

◇ 머리글 ◇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 윤 응

국내의 일선에서 어려운 환경을 굳게 딛고 훌륭히 일어서서 태권도 보급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범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최근 어느 대학의 졸업반 학생들의 사은회(師恩會)석상에서 「올해의 교수상(教授賞)」을 수여하였는데 수상한 교수는 평소 강의에 빈틈이 없고 학점(學點)에 엄격한 엄사(嚴師)였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지도하시는 사범들께서도 禮節(예절)과 겸양(謙讓)의 미덕(美德)을 으뜸으로 삼고 엄격한 수련을 시켜서 사범 모두가 올해의 사범상(師範賞)을 수상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다사다난하였던 '82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82년은 우리의 신장(伸張)된 국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88서울올림픽 유치(留置)후의 첫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실을 다지는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들을 한가지 한가지씩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88올림픽 유치후 IOC위원장 GAISF회장을 비롯하여 각 종목의 국제경기연맹회장단등, 많은 스포츠계의 국제적 유명인사들이 국기원을 방문하여 태권도시범을 참관하고 태권도의 스포츠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국가적으로는 태권도가 훌륭한 민간의교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제 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는 9체급을 석권하여 중주국의 위용을 유감없이 과시하였읍니다.

태권도는 '86년 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채택될 유망경기종목으로 世界各國이 태권도를 주시할 뿐만아니라 서구는 물론, 공산권에서도 태권도수련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각처에서는 태권도가 이제 한국인 지도사범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한국인 사범을 배타(排他)하는 경향까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태권도 세계화 십여년에 자연발생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두개의 큰 힘이 병존(併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肉身(육신)의 힘이고 하나는, 精神(정신)의 힘입니다.

태권도의 태권을 손발(手足)로 표현하여 肉身(육신)의 도구(道具)라 한다면 도(道)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스포츠의 태권도에서 스포츠와 무도(武道)를 병행하는 도(道)의 정신을 뿌리 깊게 심어야 하겠으며, 더 더욱 새로운 작으로 긍지(矜持)와 자부심을 갖고 개척자의 신념으로, 태권도 세계화 노정(路程)의 대열에서 낙오(落伍)될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精進)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야누스(JANUS)의 신(神)을 간직하고 지남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다가올 내일을 알차게 설계 하십시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말입니다.

태권도 가족 모두의 건승(健勝)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제5회 아시아 태권도

## 선수권 대회



김 병 운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단 장



감 독



코 지



트레이너

제 5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1982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싱가포르 "게이월드 스타디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선수단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자유중국, 태국, 오스트랄리아, 파타르, 필립핀 쿠웨이트, 요르단,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르네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17개국 선수단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황을 이루었다고들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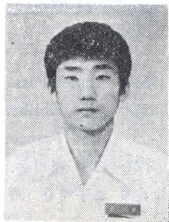
경기 전날인 12월 8일 오전 9시부터 "루레지던트 벨린호텔" 회의실에서 세계태권도연맹 임원진과 싱가포르조직위원 임회하에 각 출전국 팀 대표자들이 대진추첨을 갖았다. 추첨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과 대진이 이루어질까봐 조바심을 갖는 모습이 역력히 눈에 보였다. 그러나 추첨 기계에서 나오는 번호 대진은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홈 그라운드인 싱가포르측은 예선에서 게임이 한국과 대진이 이루어지게 되어 조직위원들에게 "럭키"란 조크까지 하며 장내를 웃음속에 몰아 넣기도 했다.

첫날경기는 12월 9일 플라이급, 웰터급, 라이

트미들급, 12월 10일 핀급, 페터급, 미들급, 헤비급, 12월 11일 밴텀급, 라이트급, 라이트헤비급으로 경기시간은 오전 9시~12시, 오후 2시 30분~5시, 야간 7시 30분~10시, 이렇게 1일을 3회로 나누어서 대진번호에 따라 3일간 진행하게 되었다.

### 플라이급 대전

한국대표선수 권기문은 예선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올라온 필리핀선수를 가볍게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태국선수를 맞아 판정승으로 결승전에 섰다. 결승은 자유중국을 맞아 판정승으로 결승전에 섰다. 결승은 자유중국을 맞아 판정승으로 결승전에 섰다.



가 힘겨운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기량면에서 우세하여 한국에 첫번째 금메달을 안겨주었다.

- 1위 권기문(한국)
- 2위 Hong Jong Chin(자유중국)
- 3위 Tand Boon Suwan(태국)
- Abdulla Ralaka(쿠웨이트)

### 웰터급 대전

한국의 광동수선수는 예선에서 "타이티"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콤파투, 싱가포르 등을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섰다. 결승전에는 요르단선수를 역시 일방적으로 이기고 올라온 호적수인 자유중국 Wu Tsung Che선수와 겨루게 되었다. 막상막하의 경기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 싱가포르인의 대부분이 중국계이어서인지 일방적인 중국선수 응원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한국선수가 뛰어난 기술을 보일뎨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광경은 보기좋은 장면이었다. 3회전 경기가 끝나고 어느쪽 손이 올라갈까? 그러나 안타까움에도 자유중국선수의 손이 높이 올라 한국은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다.

- 1위 Wu Tsung Che(자유중국)
- 2위 광동수(한국)
- 3위 Abdull Samad(요르단)

Loyong Poo(싱가폴)

### 라이트미들급 대전

한국의 오일남선수는 예선전에서 파키스탄, 싱가포르선수들을 연승하듯 가볍게 눌러 이기고 준결승에서 일본선수를 훌륭한 기량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오스트랄리아"를 이기고 올라온 자유중국 Ho Chin Chen선수와는



갈자그대로 붙붙는 듯한 대전이었다. 그러나 두 접면에서 월등한 차이로 오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어 두번째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1위 오일남(한국)
- 2위 Ho Chin Chen(자유중국)
- 3위 Tatsud Koba Gasi(일본)
- Geoff Rees(오스트랄리아)

이틀째 되는 12월 10일 경기에는 첫날과 달리 관중이 경기장에 꽉 찼다. TV 등 메스콤을 통하여 태권도경기가 싱가포르지역에 열기가 맹창되어 있음을 느꼈다.

### 핀급 대전

한국의 최 천선수는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선수들을 가볍게 판정으로 이기 후 자유중국 Wu Ching Shan선수와 결승전을 치루게 되었다. 핀급은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기로 KO승이 나와 관중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한국의 최 천선수는 자유중국선수를 맞아 좋은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1위 최 천(한국)
- 2위 Wang Ching Sahn(자유중국)
- 3위 Naw Chook Dongout(태국)
- Kenny Couch(오스트랄리아)

## 페더급 대전

한국의 장명삼선수는 태국을 관정으로 이기고 올라온 자유중국을 관정으로 이기고 싱가포르선수들과 준결승전을 맞이하였다. 홍콩 선수인 싱가포르선수인 장래가 떠나갈듯한 응원속에 경기가 진행되었으나 역시 모든 면에서 역부족으로 장선수는 결승의 문앞에 쉽게 도착했다. 요르단 선수를 제치고 결승에 오른 파타루 Abdulla Harzoak 선수는 투지도 좋고 기량도 뛰어나 보였다. 그러나 장선수는 특점도 확보하면서 태권도의 멋진 기술을 과시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관중의 박수갈채속에서 우승을 가슴에 안았다.

- 1위 장명삼(한국)
- 2위 Abdulla Harzoak(파타루)
- 3위 Khaul Aoil(요르단)  
Chua Bee Whatt(싱가폴)

## 미들급 대전

한국의 이동준선수는 필리핀 선수를 돌보이는 발기술로 이기고 올라온 태국 선수를 맞이하여 압승한 후 "파타루" 선수를 1회에 KO로 이긴 말레이시아 선수와 준결승에서 태권도의 겨루기모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중의 박수갈채속에 여유있게 판정승을 거두고 인도네시아를 KO로 이기고 올라온 오스트랄리아 Michael Stahl 선수와 결승전에서 역시 훌륭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일방적인 경기운영으로 박수갈채속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 1위 이동준(한국)
- 2위 Michael Stahl(오스트랄리아)
- 3위 Marzouk K. Nashi(쿠웨이트)  
Lee Yoke Keong(말레이시아)



## 헤비급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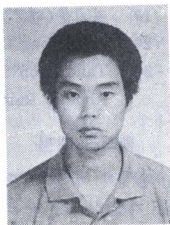
한국의 장승화선수는 홍콩 선수인 싱가포르 선수를 1회 KO로, 필리핀을 이기고 올라온 뉴질랜드 선수를 관정으로 가볍게 물리친 후 체격이 거구인 태국 선수와 결승전에서 1회전에 장선수에게 몸통을 공격받은 후 충격이 대단히 컸는지 장선수의 연속공격에 집어들어 도망다니는 것을 본 태국의 코우치가 수건을 던져 심겁게 기권승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 1위 장승화(한국)
- 2위 Amnet Possa Wong(태국)
- 3위 Aied Khilher(파타루)  
Alan France(뉴질랜드)

12월 11일 경기는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이어서인지 오후에는 경기장이 짝 메어진 기분이었다.

## 밴텀급 대전

한국의 김종기선수는 파키스탄, 필리핀 선수를 가볍게 차레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 자유중국 선수를 맞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열기찬 경기를 하였으나 역시 세련된 경기운영으로 판정승을 하고 결승전에서 태국의 Aunat Nicheong 선수와 경기에 임하였다.



태국 선수는 킥복싱에서의 습관인지 접근시에 무릎공격이 심하였으나 이를 잘 피하면서 우세한 경기로 판정승하여 일곱번째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 1위 김종기(한국)
- 2위 Aunat Nich Jong(태국)
- 3위 Wang Chi Ho(자유중국)  
Aunat Niem Jong(태국)

## 라이트급 대전

라이트급은 인도를 제외한 16개국이 참가한 비중높은 급으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였으나

한국의 한재구선수는 예선을 가볍게 통과하고 막강한 자유중국을 2회에 통쾌하게 2단앞돌려차기 KO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 홈그라운드인 싱가포르 선수와 대전을 갖게 되었다. 싱가포르 선수가 경기장에 나오자 분위기는 싱가포르의 응원열기에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재구선수는 의연하게 1회전을 뒤풀고 2회전에서는 멋진 이단 앞돌려차기의 발기술로 싱가포르 선수 얼굴을 강타 KO승을 거두었다. 자국의 선수가 KO패를 당했어도 승리자에게 우렁찬 박수갈채를 보내는 싱가포르관의 태도는 흐트러진 광경이었다.

1위 한재구(한국)

2위 Jeff Tameyo(필리핀)

3위 Yan Chai Tanfi Ratapong(태국)

Aw Jeng Por(싱가포르)

### 라이트 헤비급 대전

한국의 문중국선수는 예선전에서 싱가포르 선수를 1회전에서 회전축 발기술로 얼굴을 강타 KO승, 준결승전은 "쿠에이트" 선수를 1회 KO로 이긴 "타이티" 선수를 맞이하여 일방적인 우세로 판정승, 결승전에서는 자유중국과 필리핀을 이기고 올라온 태국 선수를 1회전에서 좌우옆구리를 돌려차기로 KO로 이겨 끝경기를 통쾌하게 장식하였다.



1위 문중국(한국)

2위 Kamon Pensri Nu Kun(태국)

3위 Rickg Reges(필리핀)

Vai Ra Aroa Bertrand(타이티)

3일간 열전의 결과는 종합 1위 한국, 2위 자유중국, 3위 태국, 오스트랄리아로 한국은 5연패를 하였다. 자유중국은 4회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2위를 고수하면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제 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경기를 담당한 본인의 느낀바를 요약하면 첫째, 지역적인 면에서 선택이 적절했다. 제 1회(74년) 서울, 제 2회(76년) 호주, 제 3회(78년) 홍콩, 제 4회(80년) 대만에 이어 제 5회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중간지점인 싱가포르를 택하였음이며 태권도를 과감하는 태도 중요한 위치라고 본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질서가 있고 깨끗한 나라로 알려져 있고 지난 여름 전대통령자하의 아시아순방에 포함되었던 국가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둘째, 대회준비면에서도 잘 되었다고 본다. 행사준비, 숙소배정, 경기장운영, 수송작전 등 세밀한 계획하에 완전하게 되었다. 어느 대회나 혼란되기 쉬운 선수입원 수송은 싱가포르의 교통질서의 안정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싱가포르 조직위원들의 헌신적인 승용차지원 등은 높이 평가될 사항이었다.

셋째, 조직위원의 임무분담이 잘 이루어졌다. 각 위원들은 맡은 임무는 맡없이 차분하게 수행하고 남의 하는 일에 간섭이나 불평을 일체하지 않는 점은 본받을 만한 것이었다.

넷째, 체계처리가 신속정확하게 잘 진행되었다. 2개의 저울로 질서있게 진행하면서도 체중이 넘는 선수는 한번의 기회를 더 주어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완전나체로 체계를 하여 선수들이 모두 눈쌀을 찌푸렸고 중동지역은 종교적 이유를 들고나와 나체계체 반대를 하여 임원들이 설득을 하느라 고 진땀을 흘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팬티를 공통되게

준비하여 착용케하고 계체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문제이다.

다섯째, 경기운영면은 아주 잘 되었다. 진행 부에서 적시마다 마이크로 게임을 알리고 대전 국을 알기 쉽도록 “보딩마크”를 하였고 계시원 관리와 심판배정도 잘 되었으나 외국 국제심판원의 미숙한 경기운영은 종주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여섯째,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단조롭게 느꼈다. 종주국인 한국선수의 뛰어난 기량이 몇가지 보였으나 경기가 기교면에서 자기 새로운면이 없어 관중의 흥미와 인기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문제와 관중의 인기와 흥미가 태권도경기 중 어떤 곳에 많은가를 분석하여 특수한 기교공격 특점과 보통기공격의 특점의 차이를 두어 기량을 다양하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느꼈다.

일곱째, 경기용구의 취약점 보완의 시급성을 느꼈다. 몸통호구의 목부위가 너무 얇고 약해서 수기충격에 치명적인 사고들이 있었으며, 남성 보호대는 부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용구다. 경기중 주심의 경기상황처리를 애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구의 취약점으로 생각되며 팔, 다리 보호대도 조잡스럽고 경기중 밀리고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선수는 아예,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주심이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었다.

여덟째, 소청문제, 이번 경기에는 별 큰 문제는 없었으나 요르단과 파타르의 경기에서 요르단축이 우세하였는데 파타르에게 승리를 주었는

나는 것과 말레이시아와 오스트랄리아의 경기에서 반칙공격 KO패에 대한 소청이 있었는데 즉시 긴급소청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에 따라 설득으로 해결되었다.

소청은 보다 현실적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청양식을 6하원칙에 따라 만들어서 경기장에 비치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태권도가 국제스포츠계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하여 문제점들을 색출분석하여 한가지 한가지씩 개선하여 나아가는 길이 오늘 종주국인 우리 태권도인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각국의 종합성적

국	별	금	은	동
한	국	9	1	0
자	중	1	3	1
태	국	0	3	3
호	주	0	1	3
카	르	0	1	1
필	핀	0	1	1
싱	가	0	0	3
쿠	웨	0	0	2
요	르	0	0	2
일	본	0	0	1
말	세	0	0	1
뉴	질	0	0	1
타	히	0	0	1
브	르	0	0	0
인	도	0	0	0
파	키	0	0	0
인	도	0	0	0

〈오늘의 격언〉

한자리에 머물지 말아! 힘을 내어 자 가자!  
 머리와 팔과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 그제 나의 집  
 태양을 즐기면 마음의 우울은 없어질터  
 자자 용기를 내어 떠나자  
 세계는 이렇게도 넓은 것을.

# 제 5 회

# 아시아 태권도

# 선수권대회를 마치고



코 치 박 창 덕

1982. 12. 4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김 운용총재님을 비롯하여 태권도 관계인 및 가족 친지들을 모시고 엄숙한 가운데 우리 선수단은 필승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가졌다.

이번 제 5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단의 진영은 단장에 조 영수, 감독에 박 명수, 코치에 필자 트레이너에 남 상덕, 선수에는 핀급 : 최천(동성고), 푸라이급 : 권기문(서울체고), 반탐급 : 김종기(해군), 페터급 : 장명삼(동성고), 라이트급 : 한재구(청주대), 웰터급 : 광동수(경희대), 라이트미들급 : 오 일남(대구대), 미들급 : 이 동준(청주대), 라이트헤비급 : 문종국(한국체대), 헤비급 : 장승화(해군), 회의 대표에 황 춘성(협회 건무이사)로 구성된 15명이었다.

12월 6일 17시 20분 K.A.L 615기 편으로 정하고 환송을 나와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과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가슴에 단 태극마크의 기상을 드높이며 다시한번 필승을 다짐하고 홍콩행 트랩을 올랐다.

우리 선수단 일행은 기내에서 제공한 식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대만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때에 현지 시간은 19시 25분(한국시간 20시 15분) 약 30분간의 기내밖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트랩을 올라 홍콩을 향해 출발하였다.

21시 30분 홍콩 공항에 도착되어 그곳 사법들의 반가운 환영을 받으며 그들의 안내로 엠버서더호텔에 여장을 풀고 홍콩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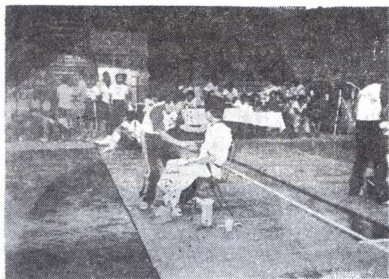
12월 7일 11시 747기 편으로 홍콩에서 싱가포르 향하여 날았다.

3시간 50분에 걸친 여행 끝에 우리 일행은 드디어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하여 많은 대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예약된 프레지던트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에다 여장을 푼 우리 선수단 일행은 가벼운 식사를 마친후 현지 답사차 싱가포르거리를 나서게 되었다.

싱가포르의 기온은 섭씨 29°C나 되는 무더운 날씨였다.

우리 나라의 한여름과 흡사하여 겨울철에 장도에 오른 우리 일행에게 갑자기 바뀐 기온에적



을하기가 매우 힘들것 같았다.

그러나 시야에 들어오는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풍경, 길서있는 국민들의 활기찬 생활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머위를 가져주고 숙연해지도록 만들었다.

'게이월드' 체육관에 도착한 일행은 체육관을 두루 살펴며 촬영도 하였다. 체육관의 규모는 경기장 3코트와 관중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스탠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주 깨끗하게 꾸비되어 있었다.

12월 8일 개최 전날인 오늘은 대진표를 추첨하기 위해서 각국 대표들과 선수단이 모였다.

상대국인 선수와 싸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불안과 초조함이 감도는 가운데 강국과의 대진이 안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우리 선수단의 추첨은 박 명수 감독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한국과 대진이 짜여진 국가에서는 약간 불안한 눈초리들이고 반면 갈려진 국가에서는 환성이 울리기도 하여 천태만상이었다.

이어서 14:00시 부터는 아시아 태권도연맹 총회에서 회장 선거에서 기권 3 반대 5 찬성 17표 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 한국이 당당히 아시아 태권도연맹 회장국이 되었다.

좋은 결과의 동기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업운 규 부회장님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싱가폴 국영방송의 초대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시범이 방영되었다.

태권도 중주국의 후예답게 그간의 닭은 기량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수준 높은 시범

을 보인바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그곳 언론인들과의 인터뷰도 있었으며, 싱가포르 국민들과 참가국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다.

12월 9일 김 운용 총재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가 시작되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 9, 은 1, 종합 1위를 기록. 당당히 우승하여 빛나는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태극기를 휘날렸다. 중주국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경기장이 떠나갈듯한 많은 박수와 갈채와 싸인명세에 물러 선수들의 즐거운 비명 속에서 우리 선수단 일행은 보람과 기쁨속에 태권도인의 확고한 긍지를 갖게 되었다.



대회는 짜임새 있고 순로롭게 진행되었으며 마무리 역시 좋았던 것 같았다. 아시아의 태권도 수준은 우전 보다는 많은 발전과 기술이 향상되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될 자유중국, 필리핀, 호주 등 몇몇 국가는 한국의 수준을 바짝 뒤따르는 긴장감을 맛볼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나은 기술을 연구하고 습득해서 후진 양성과 보다 많은 태권도인구 저변 확대에 힘써 중주국으로써의 발판을 굳혀야 할 것이며, 태권도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에 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이번 대회에 보내주신 전 두한 대통령각하의 축전에 감사를 드리으며, 현지에 계신 대사님을 비롯, 각국의 사범 및 교민들 그리고 김운용 총재님의 배려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 아시아 선수권 대회 좌담



**사 회 :** 대회를 성공리에 치루고 개선하신 단장님 이하, 임원, 선수, 여러분께 태권도인들을 대신하여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대담을 하고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단장님의 말씀부터 들도록하죠.

**단 장 :**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등 팀이 좋았기에 단장인 제입장에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모범되게 행동을 하여서 승리 이전에 안정감이 있었고, 또 이렇게 승리를 해서 팀 전체에게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감 독 :** 이번 대회는, 대회를 주관한 싱가포르의 준비도 잘됐고, 진행도 모범적으로 잘 된속에서 우리선수들은 질서 정연하게 우수하게 대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임원들이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제대로하지 못한 점 들이 임원으로

**일 시 :** 1982. 12. 22

**장 소 :** 대한태권도협회

**사 회 (기록) :** 한규인(홍보실)

**<참석자>**

조영수(단장, 지도위원)

박명수(감독, 전문위원회부회장)

박창덕(코치, 영등포고교교사)

남상덕(트레이너, 성동상견교사)

오일남(대구대, 라이프·미플급)

장승화(군인, 해비급)

장명삼(동성고, 패터급)

문종국(한국체대, 라이프해비급)

곽중수(경희대, 웰터급)

최 천(동성고, 핀급)

미안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사 회:** 우리가 9체급을 석권했습니다. 태권도의 세계화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일 같습니다. 일본은 가라메 시합을 주최하고도 타국에 1, 2, 3위를 양보하고 자국은 4위에 머물렀다는데, 작전의 사명담인 코치께서 한말씀 하시지요.

**코 치:** 한국을 출발하기 전부터 대외적인 면에서 메달분배에 관한 문제를 제일 큰 과제로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메달을 분산시킬 만큼 상대국들이 역량부족으로 불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출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말입니다.

**트레이너:** 실력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기스타일과 기술이 타국선수들의 기술 미숙으로 고전을 하였습니니다. 한국의 독주로 웰터급 경기의 경우는 한국의 경기상식으로는 무난한 승리였다고 봅니다만, 결과는 졌거든요. 그후 우리 선수들이 화가나서 좀더 기운을 내어 K.O승 T.K.O승으로 확실하게 이기는 승리를 택했다고 봅니다.

**사 회:** 실력으로 경계를 하여야 할 나라라면?

**트레이너:** 자유중국, 필리핀, 오스트리아 등이 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인트먼트의 우월도 중요하지만, 태권도의 각종요기를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기술을 익혔으면 합니다.

**사 회:** 국제시합에서 월드게임과 아세안게임에서의 선수들의 기량은?

**오일남 선수:** 아세아지역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한단계 아래이고, 체력도 우리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서구유럽쪽의 선수들은 신장이 우리보다 월등히 크고 체력도 우리보다 강함을 느낄수 있었으나, 기술적인 면은 한수 아래로 봤습니다.

**사 회:** 헤비급 선수가 보는 아시아지역 헤비급 선수는?

**장승환 선수:** 금번 대회에서는 헤비급에서 제가 키도 크고 체격등 모든 면에서 조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대회에 참석하였던 선배님들 얘기로는, 유럽쪽 선수들은 키도 크고

힘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키 큰 선수가 많이 육성해야 되겠지요. 헤비급은 도전 받는 쪽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세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선수층이 두터운 금은 어떤 금이며, 전체급을 출전시킨 나라는?

**코 치:** 대만,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전체급 선수를 내보냈고 덴마크, 페터, 라이트, 웰터급 등의 선수층이 제일 많고 84kg 넘는 헤비급은 거의가 덜다듬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 회:** 장진수는 어떤 나라선수가 경기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장명삼 선수:** 카타르 선수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천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먹혀들지가 않았습니니다. 경기방식이나 운영의 차이가 너무 달라서 팔뚝치로 막고 똑같은 발로 차고 무릎을 드는등, 우리와 경기운영이 달라서 부상 당했습니니다.

**문종국 선수:** 스피드나 기량면에서 힘이 좀달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체증보다 3~4kg 부족해서 인지.....

**사 회:** 시합을 떠나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의양으로 느끼기에 눈에 띄는 점은?

**곽중수 선수:** 계획도시라서인지 짜임새가 있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보수적이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느꼈습니니다.

**사 회:**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한국인의 근면성을 높이아서 한국의 이미지가 좋다고하는데, 시합장외의 좋은 추억이 될만한 일이 있는 선수가 계시면 한말씀하시죠.

**트레이너:** 최천 선수는 싱가포르 아가씨들에게 저녁식사도 대접받고 하였는데 자랑좀해 보시지.

**최 천 선수:** (무척 수줍은 표정으로) 여자들이 자꾸 친하려고 접근하고 모든 면에 잘해 주어서 대접만 받았습니니다.

**오일남 선수:** 한국선수하면 태권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스타가 되는 거지요. 싱가포르뿐만 아니고 모두가 잘 대하여줍니다. 우리 선수가 언어의 장벽만 없다면 이것저것 묻고, 답하고, 재미있는 일, 아름다운

추억도 있겠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국제선수는 좀 어렵더라도 영어공부를 좀해서 시험외의 일반생활에서 민간의교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코 치:** 우리 선수들은 싸인공세를 받아서 진담을 흘렸습니까. 한선수가 몇백명씩을 싸인을 해 주었을테니 말입니다. 이것도 국위선양이고, 민간의교였다고 봅니다.

**감 독:** 저도 싸인을 500명이상 했으니 선수들이야 더 바빴음은 당연했을 겁니다.

**사 회:** 임원으로 가장 어려웠던 일이라면?

**코 치:** 한선수가 체중이 오버해서 체중조절을 하느냐구 3일동안 식사를 못한 일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기가 제일 안타까울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88올림픽을 놓고 보면, 정책적으로 메달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상황도 피부로 느꼈고, 앞으로 어느 누가 코치를 맡아 출전하든지 간에 큰 국제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너:**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가지 느낀점이 있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싱가포르 여자가 일본사람이냐구 묻기에, 한국사람이라고 하니까, 부드럽던 인상이 알잡아 보는 표정으로 변하더군요. 그러나 시험장에 나가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한국인으로서 시내에서 상한마음을 줌은 회복했습니다. 보다더 열심히 태권도를 육성해서 머큰 긍지를 갖고 선수들에게도 언어, 교양등을 갖추도록 열심히 지도를 해서 태권도 인으로서의 국위선양을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 회:** 태권도인은 모두가 태권도를 재분석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까. 88년, 올림픽에 태권도가 채택되었다고 보면 자국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돈도 많고 우리보다 드든 면에 발달한 나라에서 여러가지로 연구 분석하여 도전한다면, 국력, 체력등의 우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도 큰 문제로 대두시킬 수 있겠지요. 서구스타일의 우리 해비급 장선수가 한말씀 해 보시지요.

**장선수:** 서양 사람들은 키가 커도 모두 몸의 균형이 잘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큰 사람은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수준이 높아져서 재목만 좋으면 성장하면서 체력을 어떻게 잘 기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격에 맞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여 태권도 체질로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체력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오선수:** 선수입장에서, 국가대표 선수는 두가지 스타일을 다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스타일과, 국제스타일인데 국내에서 우승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국제시험에서 우승한 선수가 국내시험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어렵겠지만 선수들은 두가지 스타일을 겸비한 훈련을 새로이 쌓아야 되겠다고 봅니다.

**사 회:**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독께서 정리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지요.

**감 독:** 금번 대회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용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진 대회였습니다. 선수들은 시험이 끝났다고 나태하지 말고, 체력관리를 잘해서 오래 선수생활 하기를 바라고 되도록이면, 국가단위의 친선게임을 많이 갖도록 하여 태권도 세계화에 박차를 가할 기회가 더 많아져 많은 선수가 국위선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자리에 같이한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권도 가족의 건승을 빕니다.

◎ 내가 이에 간절히 부탁하는 바는 이것이다. 여러분은

「힘을 기르소서! 힘을 기르소서!」 이 말이다. —도산의 말씀—



# 제 63회 전국 체육대회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분과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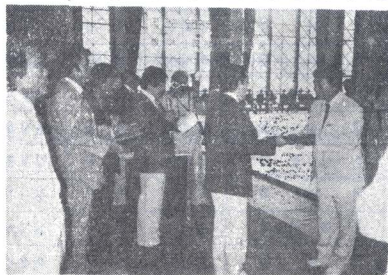
김 봉 기



제 63회 전국체육대회는 화합제전, 인정제전, 질서제전이란 구호 아래 10월 14일 마산 종합경기장에서 질서정연한 가운데 그 막을 올렸다. 우리 태권도는 창원기능대학 체육관에서 오전 7시 30분에 계체를 시작하여 8시 30분에 마치고 9시부터 고등부 경기를 시작, 열전 연 4일간을 계속했다. 대회 장소인 창원 기능대학은 마산시에서 차편으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공단내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체육관은 수준급에 속하는 좋은 경기장이었다.

경기장은 A코트, B코트로 두 코트를 사용하였으며 본부석이나 관중석이 비교적 협소하였으나 중앙임원 시·도임원 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전사상 처음으로 사고 한건 없이 마쳤으며 특히, 이번 체전은 경기장 내에서는 일체금연이



으며 질서있는 응원으로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되어 시종 질서가 유지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10월 18일 오후 2시에 시상식에 이어 이번 체전에 공로가 큰 경남협회장, 이 도재 부회장 김태운, 이 순달씨에게 협회장 공로패와 표창장 수여가 있었다.

단체성적은 서울 1위, 전남 2위, 경남 3위로 83년 인천체전에서서의 선전을 약속하며 대회를 마쳤다.

전적은 다음과 같다.



**제63회 전국체육대회 입상자**

**<고 등 부>**

등 위		1 위		2 위		3 위			
성명·도명	등급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민	급	지용식	충북	최천	서울	채상만	제주	왕광연	전남
플라이	급	권기문	서울	이정동	경남	박흥철	강원	이인재	인천
밴텀	급	이해진	서울	조철식	경기	이재규	부산	배길수	충북
페더	급	정호영	전남	최상진	전북	장태원	대구	김상태	서울
라이트	급	정명삼	서울	박종현	충북	김성원	전남	정용석	인천
웰터	급	이준명	경남	함남득	경기	이승주	충남	조삼권	충북
L미들	급	이용희	부산	윤운택	강원	이정희	경남	이강일	전북
마들	급	이계행	전남	이정진	서울	조준형	전북	윤윤관	대구
L해비	급	김광열	부산	김현수	전남	김성겸	충남	윤일선	서울
해비	급	이경식	충남	최남규	경기	오주선	경북	박경호	서울

**<대 학 부>**

등 위		1 위		2 위		3 위			
성명·도명	등급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민	급	이창식	충북	김선택	부산	장경수	경기	김형수	서울
플라이	급	양기모	서울	한기동	인천	김영식	부산	장광영	대구
밴텀	급	정해준	충남	이종열	경남	한홍식	경기	도용석	강원
페더	급	최일영	경남	김재천	전남	이종호	서울	임관인	충북
라이트	급	한재구	충북	이근호	서울	이성식	경남	이차열	전남
웰터	급	윤오남	전남	전정우	경기	김해명	강원	오일섭	경북
L미들	급	경국현	서울	김성훈	제주	심원정	부산	오일남	대구
미들	급	이동준	충북	정찬	부산	박광준	강원	이종찬	제주
L해비	급	황선두	서울	임재덕	충북	김성남	전남	김재열	대구
해비	급	박형태	전남	하용성	서울	박한일	부산	최호성	전북

〈일반부〉

계급	성명·도명	등 위		1 위		2 위		3 위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성명	도명		
권	급	이진우	경 남	윤원근	서 울	박창용	부 산	엄준성	충 남				
플 라 이	급	박성현	부 산	강학봉	전 북	양범모	강 원	김준현	서 울				
벨	급	김충이	서 울	강동길	인 천	최종운	강 원	백성욱	전 북				
페	급	고봉수	전 북	김성배	경 남	임병준	서 울	김동섭	강 원				
라 이 트	급	김창규	부 산	김태우	경 남	유성용	제 주	박현서	서 울				
셀	급	김형중	인 천	양희서	강 원	김홍근	경 북	김삼철	전 남				
L 미	급	김양기	전 남	박종일	인 천	김금선	경 기	김기복	충 북				
미	급	김상천	인 천	김양우	충 북	곽원규	전 남	신재근	경 남				
L 해	급	노옥상	인 천	손홍창	부 산	유호성	전 북	최윤종	충 북				
해	급	장승화	경 남	노영식	부 산	서일원	충 남	진중의	전 남				

제6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팀별 순위

참 가 팀 시 도 명	종합득점	등 위	참 가 팀 시 도 명	종합득점	등 위
서 울 북 별 시	1,925	1	충 청 남 도	864	10
부 산 지 할 시	1,343	4	전 라 북 도	982	7
대 구 지 할 시	685	11	전 라 남 도	1,483	2
인 천 지 할 시	1,036	6	경 상 북 도	506	12
경 기 도	899	8	경 상 남 도	1,466	3
강 원 도	868	9	제 주 도	503	13
충 청 북 도	1,336	5	재 일 동 포	24	14

☆ 표지 설명 ☆

제 5 회 아 시 안 태 권 도 선 수 권 대 회 에 참 가 하 여 태 권 도 중 주 국 의 위 용 을 유 감 없 이 발 휘 한 자 랑 스 러 운 얼 굴 들 이 다.

'86, '88 올림피을 앞둔 청소년들의 모습이 '86년, '88년에는 표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82 우수선수 선발대회

< 편집 실 >



82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실시한 82 우수선수 선발대회는 글자 그대로 열전이었다. 우수선수 선발대회의 참가자격은 태권도협회 또는 각 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입상(1위, 2위, 3위)한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고등부 이상의 해당자로 남자에

한하여 자격이 있다. 각종 대회의 화려한 입상 경력을 가진 선수들 중에서 선발하는 시합으로써 선수 164명이 부별(고등부·대학부·일반부) 구별없이 10체급으로 나누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82년도 최우수선수 입상자

체	급	순위	성	명	소	속
민	급	1	지	용	석	청주기공
		2	한	성	동	성동상고
		3	최	지	천	동성고
플라이	급	3	김	지	태	서울체고
		1	고	정	호	성동상전
		2	양	기	모	한국체대
벨	급	3	박	명	천	유도학교
		3	이	인	재	광성고
		1	한	홍	식	경희대
텍	급	2	박	기	성	한국체대
		3	이	종	열	체육대
		3	손	열	규	체육대
페	급	1	이	재	봉	한국체육대
		2	김	재	호	동아대
		3	박	중	완	육군
라이트	급	3	이	종	응	한국체대
		1	정	우	용	한국체대
		2	라	일	환	서울체고
헬	급	3	김	윤	표	유도학교
		3	라	만	수	성동상전
		1	최	광	근	한국체육대

체	급	순위	성	명	소	속
라이트	급	2	파	동	수	경희대
		3	이	효	주	한국체대
		3	이	준	명	현대공고
미	급	1	정	국	현	한국체육대
		2	노	옥	상	육군
		3	박	종	틀	성고
라이트	급	3	[김	병	삼	동아대
		1	오	일	남	대구대
		2	정	정	국	명지대
레	급	3	박	상	식	수원수성고
		1	김	용	범	동성고
		3	고	영	철	유도학교
레	급	2	김	병	근	한국체대
		3	임	종	남	동아대
		3	문	종	국	한국체대
레	급	1	하	용	주	한국체대
		3	김	세	명	서울체고
		3	강	승	우	경희대

최우수선수상: 대구대 오일남  
지도상: 한국체육대 이승국

☆ 정중부(鄭仲夫)의 란(亂)이란?

고려 의종(毅宗) 24년((1170) 정중부 이의방(李義方) 등 무신(武臣)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란. 무신의 난, 또는 경인(庚寅)의 난이라고도 한다. 고려 초기 이래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깔보는 정부시책에 반감을 품고 있던 무신들은 의종 때 와서 더욱 왕과 문신들에게서 학대와 모욕을 받게 되었는데, 이해 8월 30일 의종현으로 놀러가던 도중 오문(五門) 앞에서 오병수박희(五兵手擲戲)를 하다가 지고 달아나는 대장군(大將軍) 이소옹(李紹膺)을, 문신 한희(韓賴)가 붙잡아 그의 뺨을 쳐서 모욕을 준 것이 도화선이 되어, 왕이 보현원에 도착할 무렵 반란을 일으켜 문신들을 모조리 숙청 왕을 거제(巨濟)로 추방하고 왕의 아우인 익양공(翼陽公)·호(皓)를 왕으로 모셔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였다.





#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제 6 회 단체전 · 제 9 회 개인선수권



「제 6 회 단체전경 제 9 회 개인 선수권대회가 82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21개 대학에서 204명(남자 182명, 여자 2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에서 열렸다. 한국 실제적인 내일을 담당할 學士의 群雄임을 자처하는 대학선수들은 승패를 초월한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깨끗한 경기로 질서정연하게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개최실에는 이상주 대회장을 대신하여 노희덕(서울대 교수) 부대회장은 개최사를 통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생들이 민족의 슬기와 지혜가 어린 태권도 수련에 실제 참여하여 이렇게 성대한 대회를 치룰 수 있음은 언행일치의

(대학연맹 제공)

행동인이 되는, 선비의 기상을 키우는, 지도적인 자질을 육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해마다 더 많은 대학에 태권도가 보급되어 내년엔 더 좋은 대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것은 이 대회에 참가한 여러분들이 끊임 없이 노력을 하여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전과 발전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여자대학부가 신설되어 여성태권도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이날 경기에서 여자부 김선희(이화여대)선수가 이광욱(중앙대)선수를 3회 2분20초에 KO 승을 거두는 등, 여대부도 태권도에 만치않은 기

량을 보여주었고 남대부의 라이트급 조이희(대구대)선수는 서승원(홍익대)선수를 3회 30초에 들어오는 선수를 뒷차기로 받아 KO승을, 웰터급의 이강일(한양대)선수는 공찬규(대구대)선수를 1회 뒤차기로 KO승을 거두는 등 돋보인 기량을 보였다.

이날 최우수상 헤비급 김병곤(한국체대)선수가, 우수상 웰터급 이근호(유도학교), 여대부우수상 박필순(유도학교)선수가 수상을 하였고, 지도상은 한국체대의 이승교교수가 수상을 하였다. 이번 대회의 참가교 및 성적은 다음과 같다.

**제 6회 회장기 경탈 및 제 9회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참가대학 및 출전인원 현황**

1. 중앙대	9	12. 한양대	5
2. 대구대	11	13. 경희대	14
3. 세종대	4	14. 강원대	5
4. 이화여대	8	15. 서울대	4
5. 동아대	17	16. 동양공전	4
6. 유도학교	26	17. 연세대	6
7. 홍익대	6	18. 경기대	1
8. 홍익공전	6	19. 계명대	6
9. 한국체대	27	20. 시립대	3
10. 인천전문	24	21. 제주대	9
11. 명지대	10		

총 출전선수 : 204

**제 9회 전국 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입상자 명단**

계	급	1 위	소 속	2 위	소 속	3 위	소 속	3 위	소 속
민		박 명 철	유도학교	김 형 수	한국체대	차 주 현	세 종 대	임 창 배	유도학교
플	라	이 김 영 식	동 아 대	김 운 환	한국체대	한 규 상	유도학교	박 재 성	경희대
밴	덤	손 영 규	한국체대	홍 종 만	유도학교	김 찬 구	유도학교	조 병 준	명지대
페	터	이 종 호	한국체대	이 계 응	한국체대	장 원 도	명지대	이 재 봉	한국체대
라	이	트	박 동 수	경희대	조 임 형	유도학교	김 인 선	경희대	조 이 회
웰	터	이 근 호	유도학교	박 천 재	한국체대	이 성 국	유도학교	이 효 주	한국체대
라	이	트-미	최 찬 응	유도학교	김 병 삼	동 아 대	이 강 식	한국체대	박 재 욱
미	돌	정 찬	동 아 대	정 정 국	명지대	김 동 환	한국체대	이 중 균	동 아 대
라	이	트-레	김 병 곤	한국체대	문 종 국	한국체대	김 제 명	인천전문	황 선 두
레	비	김 병 수	경희대	강 용 구	명지대	하 용 성	한국체대	박 한 일	동 아 대
여	자	부	경량급	강 희 인	경희대	최 승 분	이화여대	임 미 회	이화여대
"	"	"	중량급	황요안나	중앙대	전 애 연	유도학교	임 미 라	이화여대
"	"	"	중량급	박 필 순	유도학교	김 선 회	이화여대	류 속 녀	홍익대
"	"	"	무제한급	공 덕 기	유도학교	안 선 기	유도학교	이 인 수	연 세 대

## 승품심사 보는 날



서울 사대부속  
국민학교5학년

장 윤 호

12월 19일. 오늘은 국기원에서 승품심사를 보는 날이다. 가족이 모두 국기원에 오셨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심사 보는 것이 겁이 나서인지 좀 떨렸다. 심사를 보기 전에 같이 온 친구들과 사범님의 구령에 맞추어 몸을 풀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다. 줄을 서서 심사위원사와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한후 드디어 내차례가 되어 품세를 하려고 심사장에 섰다. 마이크로 심사위원이 태극4장, 태극4장을 하고나니 태극7장하고 품세를 지정해 주셨다. 마음으로는 평소 운동할 때 보다 더 잘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열심히 했으나 웬지, 심사위원 앞이라서인지 마음이 떨렸다. 그러나 동작은 연습때보다 잘되는 것 같았다. 품세를 마치고 나는 키 순서대로 심사위원이 짝을 지어 주어서 내 키와 비슷한 상대와 겨루기를 할 짝이 되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겨루기가 시작 되었다. 나는 빈 틈을 보아 상대방에게 앞차기와 뒤돌려차기로 공격을 했다. 상대방도 나에게 앞돌려차기로 공격을 해왔다. 나는 빨리 한 손으로 쳐 내려 막았다. 막는 순간 마음이 통쾌하고 태권도를 한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친구들도 처음에는 나처럼 고생 많이 했겠지 생각하니, 친구들이 모두 훌륭하게 보이고 태권도의 기본정신이 생겼다. 태권도는 삼국시대에 시작되어 신라시대에는 화랑들이 몸을 수련하고 정신을 맑게 수양하기 위해 산이나 공기 맑은 곳에서 삼국통일의 큰 뜻을 가지고 태권도를 하였다고 한다. 태권도의 정신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등 화랑5계를 생명으로 삼고 수련을 한 우리나라 고

유의 훌륭한 무술이라고 배웠다. 나도 이 다음에 나도 커서 태권도정신으로 남북통일을 하는 데 이바지 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태권도를 시작하였는데 저 친구들도 그러하겠지, 하고 생각하니 더욱 우리 고유의 태권도를 할 수 있다는게 자랑스러웠다.

내가 처음 태권도를 시작할 때는 몸이 무겁고 다리가 올라가지 않아 사범님께 기합도 많이 받아 울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다리도 마음대로 올라가고 힘도 생겨서 공격도 재빠르게 할 수 있으니 꼭 꿈을 꾸는 것 같다. 1년간 태권도를 배우는 동안 말로 교육을 시켜서 잘 안듣고 말씀을 부리면 정신봉으로 뺏다도 맞고, 사범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마루바닥에 주먹치고 입드려 팔 굽히기 등 여러가지 어려운 수련과 기합을 받을 때는 사범님이 미워서 태권도를 하는 것을 가끔 후회하기도 하였는데, 오늘 국기원 심사를 마치고 나니 기합 주시던 사범님이 고맙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사범님이 가르쳐 주신 화랑5계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고유의 태권도를 더욱 빛내야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태권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니 어려운 수련과 기합도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사범님이 운동 끝나고 반성시간에 말씀하시던 적은일부터 솔선수범하고, 약속 잘 지키는 일, 비겁하지 않는 사람, 태권도만 잘하고 공부 못하면 깡패어린이로 손가락질 받는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아라 등의 사범님의 말씀, 태권도 수련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나는 태권도를 하면서도 공부에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방학동안 태권도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태권도를 보고서

〈이 글은 태권도 어린이시범단이 일본에 가 시범을 보이고 귀국 후 일본 어린이의 편지 두 통을 선정 번역 기재한 것임.〉

能 城 知 幸

(노오시로지코오)

—일본오까야마시립조오가국민학교—

태권도라는 한국의 스포츠 이름을 듣고서 펴 가슴이 설레이었습니다.

일본의 「가라테」와 많이 닮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설레이었습니다. 태권도시범을 보았을 때 많이 훈련을 했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쌩! 하고 달리며 힘찬 구령을 부르면서 판자를 쪼깁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잘 쪼개지지 않을 때도 있더군요. 여러번 발로차도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은 업두도 못됩니다.

「잘해라」하고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작! 하고 쪼개졌을 때는 한숨 놓았겠지요. 우리도 모두 마음을 놓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돼서 연습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구령에 따라 착착 재빠르게 정열합니다. 다음 구령으로 서로 마주 붙입니다. 이쪽을 바라다 보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일본의 「가라테」보다 훨씬 좋은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보고서 정신이라든가 열성을 본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사람. 한사람. 한국의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돈도구이 집회 때 날려보낸 풍선」 한국의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한국까지 풍선이 날아 갔으면 더욱 더 좋겠는메말야.

풍선아! 제발 우리들과 한국친구들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다오.

더욱더 친해질 수 있도록!

## 굉장했던 태권도

柿 本 惠 理

(가키모토에이리)

—일본오까야마 시립조오가국민학교—

크게 감동하여 놀란것은 한국친구들의 자세가 바른 것입니다. 같은 4학년 어린이들이인데 저렇게 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인 일본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가슴을 짝악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이상으로 놀라운 것은, 태권도의 훌륭한 점

입니다. 판자를 멋지게 쪼개 버린다는 것은, 저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둥글게 원을 그리고 서서 한어린이가 한번 돌고서 발로차면서 갈때 마지막 판자가 좀처럼 쪼개지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결국 쪼개 버렸습니다. 최후까지 쪼개려고 한 점이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또 말타기 놀이와 같은

모습을 한 10명의 아이들을 뛰어넘다가 10번째 어린이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반 사내아이들이라면 금방 싸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꼭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나는 꼭 감동하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그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훌륭하였습니다. 판자 조각이 우리들 앞에 날아 왔을 때는 꼭 놀랐습니다.

아— 이 한시간. 그 한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친구들은 「동무」라기 보다는 「형님이나 누님」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은 4학년인데……

이집회에서 한국의 친구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날렸던 그 풍선이 제발 한국까지 날아가 주었으면……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하였다해도 서로 친하게 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 제 2 회대회 필기시험 답

1. (3) 2. (아래) 3. (한국 국민학교배권도연맹)
4. (명치) 5. (1) 6. (2) 7. (3) 8. (1)
9. (4) 10. (3) 11. (8) 12. (3) 13. (3)
14. (2) 15. (1) 16. (4) 17. (1) 18. (3)
19. (조국) (민족) (충성)
- 20.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피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 제 3 회대회 필기시험 답안

1. (앞서기) (앞꿈이) (뒷꿈이) (범서기) (주춤서기) (편히서기) (준비서기) (모아서기) (꼬아서기) 중에서 선택
2. (3) 3. (아래) 4. (4) 5. (2) 6. (3) 7. (1) 8. (3) 9. (2)
10. (4) 11. (3) 12. (2) 13. (4) 14. (3)
15. (1) 16. (3) 17. (4) 18. (2) 19. (2)
20. (질서지키기)

### —오늘의 대한 학생(大韓學生)—

오늘이라 함은 과거나 미래를 말함이 아니요, 현시에 되어진 경우를 말함이며 대한 학생이라 함은 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이를 가리킴이되다.

무릇 학생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사회에 나아가 활동 할 준비를 하는 자이다. 생존과 번영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되는 것이므로 활동 그것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것이며, 많으면 크게 번영하고 적으면 적게 번영할 것입니다. 그런즉, 인류 사회의 생존은 사람의 활동에 있고 사람은 활동할 무기를 잘 준비함에 있고, 이 무기를 잘 준비함에만 전력을 올 하며 이 무기를 예비하는 자가 곧 학생이되다.

그러므로 대한의 학생된 이는 먼저 대한 사회로부터 세계 어느 사회든지 나아가 활동할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창호 선생 말씀중에서>

# 태권도연맹 회장기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경 개인선수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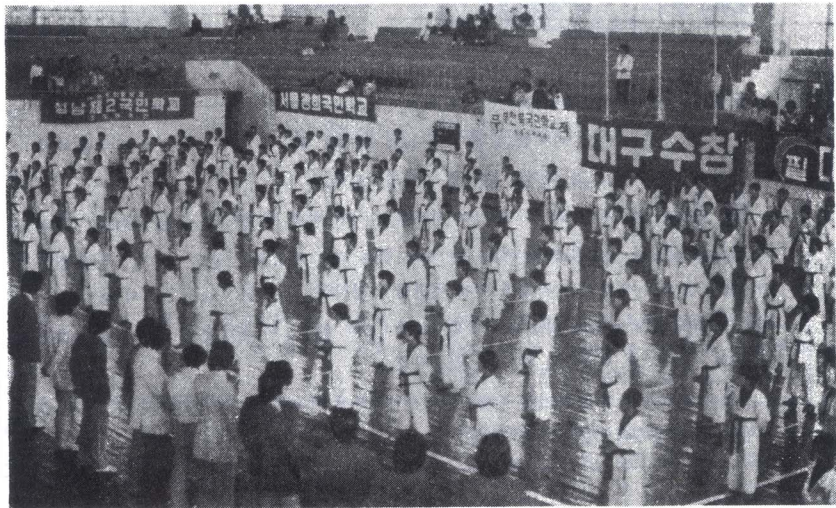
(주상일 · 국민교연맹 전무이사)



국화향기 그윽한 가을을 맞아 여덟번째로 열리는 태권도연맹회장기대회, 알찬 결실을 다짐이라도 하듯 37개교 363명이 출전하여 학교의 명예와 지방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하루를 1982년 9월 25일 국기원에서 거행되었다. 본 대회에는 경기도 인천지구를 제외한 지방학생 80여명은 9월 24일 서울에 도착하여 연맹회장의 따뜻한 배려로 영동유스호스텔에 여장을 풀고 당일(24일) 오후 5시에 국기원에서 계체를 마치고 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대회는 예년에 비해 지방교어린이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서울지방도 실력이 평준화되어 어느 학교가 우승을 할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특히 대구수창국민학교의 뱀탄급 정재정, 충북 모충국민

학교의 홍성철(라이트급), 박종범(미들급) 등은 서울의 강호들을 이기고 우승을 하였다. 그리고 이번대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대성 부회장님과 각종 인채물을 제공하여준 남산청년회의소 송수안 회장께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개회식에서 이대성 대회장은 지금 우리는 일본을 이기자는 뜨거운 외침이 거족적으로 메아리치고 있으며 거짓역사를 가르치는 그네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날의 부끄럽고 억울한 역사는 우리에게 힘이 부족했고 울음을 행하지 않는 무리가 활개쳤기 때문이므로 우리 태권도 어린이는 태권도를 통하여 정의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서울남산회의소 송





수안(5월 태권왕 겨루기대회장) 회장은 “어린아이는 평소 학업에도 모범적이고 모든 착한 일과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어린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태권도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체력을 향상시키고, 옹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가운데, 남을 돕는 정신이 깃들어서, 장차 이 나라의 재목이 되고, 앞서가는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5월 태권왕 겨루기대회를 더욱 알차게 꾸며 나갈 것도 아울러 약속을 하였다. 대회 참가현황과 전적은 다음과 같다.

### 단 체 성 적 표

순위	학 교 명	점수	비 고
1위	성남제 2 국민학교	17	
2위	서울광희국민학교	14	
3위	서울화계국민학교	13	
장려	충북도충국민학교	10	
감투	충남예산국민학교		
모범	서울동국민학교		

### 체급별 입상자 명단

체 급	순위	성 명	학 교
핀 급	1	김인성	성남제 2 국민학교
	2	김유성	충남예산국민학교
	3	조성호	충남예산국민학교
플라이급	1	김현섭	성남제 2 국민학교
	2	장진영	충남예산국민학교
	3	김태호	충남예산국민학교
밴텀급	1	정정우	대구수성국민학교
	2	정성우	서울대림국민학교
	3	박현철	서울용문국민학교
페더급	1	홍영식	서울화계국민학교
	2	기호우	충남예산국민학교
	3	양정호	충남예산국민학교
라이트급	1	홍철환	충남예산국민학교
	2	박정미	충남예산국민학교
	3	김진영	충남예산국민학교
웰터급	1	이병호	서울화계국민학교
	2	송승우	충남예산국민학교
	3	안준환	충남예산국민학교
미들급	1	박중범	충남예산국민학교
	2	최호원	충남예산국민학교
	3	김희재	충남예산국민학교
헤비급	1	민태남	충남예산국민학교
	2	김현인	충남예산국민학교
	3	김기찬	충남예산국민학교

### 《대회참가학교명》

집수순	참가 학교명	집수순	참가 학교명
1	대구수창국민학교	20	서울면목국민학교
2	서울은천국민학교	21	청주모충국민학교
3	부천북국민학교	22	서울미동국민학교
4	서울대림국민학교	23	서울석관국민학교
5	서울연수국민학교	24	성남수진국민학교
6	대구월배국민학교	25	서울문왕국민학교
7	대구본리국민학교	26	경기삼송국민학교
8	경기용인국민학교	27	서울성내국민학교
9	서울남산국민학교	28	서울신곡국민학교
10	경북오천국민학교	29	서울고척국민학교
11	서울광희국민학교	30	서울갑성국민학교
12	서울구의국민학교	31	예산금오국민학교
13	서울광장국민학교	32	충남예산국민학교
14	성남제 2 국민학교	33	서울미양국민학교
15	서울중곡국민학교	34	서울상곡국민학교
16	서울마천국민학교	35	서울백산국민학교
17	서울방배국민학교	36	충주충렬국민학교
18	서울화계국민학교	37	서울신서국민학교
19	서울삼양국민학교		

### 제 3 회

## 문교부장관기 쟁탈

#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지 동 원

(국민교연맹 부회장)

11월 13일 늦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하는 일기에도 300여명이 참가한 제 3 회 문교부장관기쟁탈 태권도 대회는 종합부분 252명 겨루기부분 157명이 쌀쌀하기 보다는 춥다는 표현이 없을 아침 7시에 겨루기부분, 체체를 시작하여 8시 30분 체체를 마치고 9시에 대회를 시작 9시 20분에 태권도 이론 필기시험을 40분간 치루고 10시부터 품세와 기본발차기 실기시험을 본 다음, 겨루기시험 순으로 대회를 진행하였다.

문교부장관기 쟁탈 대회는 일반 태권도대회와 달리 품세, 기본발차기, 태권도 이해력 필기시험(3가지를 종합부분이라고 칭하였음) 겨루기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일선 사범들이 태권도 대회가 품세나, 발차기나, 필기고사가 무어나?고 반문과 항의가 빗발치듯 하였다. 그러나 본 연맹 임원들은 태권도 대회가 겨루기로 일관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 있어 설득과 이해로 진행을 하여 이제는 본대회가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일부 사범들은 바람직한 대회라고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

태권도 선수들은 거의가 품세나 태권도 이론을 소홀히 하고 겨루기만을 치중하여 지도받고 겨루기를 잘하면 태권도를 다하는 것으로 아는 경향이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 대회는 태권도 기본인 품세와 기본발차기와 국민학교생에게 적합한 이론바탕 위애다 겨루기로 연결시키는 실

제로 태권도의 모두를 공부시키자는 의도에서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 대회는 겨루기로만 치루는 대회보다 참가하는 인원이 적어 대회를 주관하는 연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나 이런대회가 태권도 발전에 다소라도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속하고 있다. 채점방법은 종합부분 60점(품세와 기본발차기 20점, 필기시험 40점) 겨루기 4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였다. 이번 대회의 우승은 국기원과 본 연맹의 시범단인 이규형사범이 지도하고 있는 미동국민학교, 2위는 전 판선 사범이 지도하는 광희국민학교, 3위는 황 용웅사범이 지도하는 남산국민학교가 차지하였다.

겨루기부분은, 시험전적이 많은 광희국민학교가 단연 우세하고 종합부분에는 시범단인 미동국민학교가 두드러지게 우세하였다. 본연맹에서는 내년 대회에는 좀더 많은 이해와 필요를 인정하여 많은 학교가 참가하여 주기를 바라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태권도 어린이들께 태권도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81년, 82년도의 문교부장관기 쟁탈 대회의 필기시험 문제를 기고하니 각자 본인의 실력을 가늠해보자. (정답은 39페이지)

제 3 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태권도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성적표 2. 체급별 입상자 3. 종합부분 입상자



◇ 어린이 소식 ◇

1. 단체성적표

순 위	학 교 명	점 수	비 고
1	서울미동국민학교	33	
2	서울광희국민학교	16	
3	서울남산국민학교	11	
장려상	청주모충국민학교	10	
"	서울잠원국민학교	8	
"	경기용인국민학교	6	
감투상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		

2. 체급별 입상자 명단

체 급	순위	성 명	학 교 명	비 고
전 락	1	정동원	광희국민학교	
	2	이상봉	청주모충국민학교	
	3	신창일	명일국민학교	
플라이급	3	김효중	남산국민학교	
	1	서성교	광희국민학교	
	2	신성식	청주모충국민학교	
벌레급	3	서민호	남산국민학교	
	3	오용남	잠원국민학교	
	1	권태호	광희국민학교	
벌레급	2	정재정	대구수창국민학교	
	3	안성철	남산국민학교	
	3	최희준	잠원국민학교	
피디급	1	진 식	대구수창국민학교	
	2	손기진	남산국민학교	
	3	진재성	성남수진국민학교	
	3	오민석	미동국민학교	
라이트급	1	이한도	미동국민학교	
	2	홍성철	청주모충국민학교	
	3	김태형	잠원국민학교	
웰드급	3	이병근	선곡국민학교	
	1	이병하	광희국민학교	
웰드급	2	유광배	잠원국민학교	

미플급	3	김용철	미동국민학교	
	3	김용희	중곡국민학교	
	1	박종범	청주모충국민학교	
	2	김종원	미동국민학교	
	3	박세진	명일국민학교	
해비급	3	한범길	경기용인국민학교	
	1	문기찬	광희국민학교	
	2	이호철	남산국민학교	
	3	손성수	경기용인국민학교	
	3	양철원	청주모충국민학교	

3. 종합부문 입상자 명단

구 분	학 교 명	성 명	비 고
금 상	잠원국민학교	최 희 준	
	송천국민학교	황 준 섭	
	미동국민학교	김윤기, 이근섭 여광천, 오민석 김용철, 김종원	
은 상	명일국민학교	전 수 용	
	남산국민학교	박 종 승	
	경기용인국민학교	이현철, 오경연 배 용 수	
동 상	선곡국민학교	김형섭, 이한도	
	미동국민학교	김 태 곤	
	성남수진국민학교	김태일, 정석인 오 승 훈 이정운, 김효중 송홍철, 황승문 박준영, 김혜수 오영화, 조남욱 문병호, 진재성 김경국, 장운호 박 세 흥	

어린이는 민족의 꽃. 나라의  
기둥. 보호하고 육성하여 바른  
일꾼 만들자.

## 제 2 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 국민학교

### 종합 태권도대회 필기시험 문제

※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 ) 안에 쓰시오.

1. 태권도는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을까요?.....( )

- ① 중국 ② 일본 ③ 대한민국 ④ 미국

2. 사람의 몸을 공격 부분 중심으로 크게 셋으로 나눌 때 나머지 한 부분의 이름을 쓰시오. 얼굴, 몸통.....( )

3.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를 주관하고 국민학교 태권도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이 힘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

4. 몸통에서 대표적인 급소의 이름을 쓰시오. ( )

5. 승품 및 승단 심사를 주관하고 품증과 단증을 발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

- ① 국기원 ② 대한태권도협회  
③ 대한체육회 ④ 문교부

6. 세계 태권도연맹 본부는 어디에 있으며 총재는 어느나라 사람일까요?.....( )

- ①미국-미국사람 ②대한민국-대한민국사람  
③미국-대한민국사람 ④대한민국-미국사람

7. 도장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 ① 관장님께 경례 ② 사범님께 경례  
③ 국기에 대한 경례 ④ 선배님께 경례

8. 품세 태극 1장의 진행선(연무선)은 어느 것일까요?.....( )

- ①  ②  ③  ④ 

9. 다음중 태권도경기를 심판할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

- ① 배 심 ② 주 심 ③ 부 심 ④ 선 심

10. 겨루기를 할때 남심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도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 ① 호 구 ② 도 복 ③ 샷보대 ④ 체육복

11. 국민학교 태권도 경기는 몇 체급으로 나누

어졌을까요?.....( )체급

12. 태극 품세의 각 장별 동작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틀린 것은 어느것일까요?.....( )

- ① 태극 1장 : 18동작 ② 태극 2장 : 18동작  
③ 태극 3장 : 22동작 ④ 태극 6장 : 23동작

13. 국민학교 경기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체급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플라이급 ② 미들급  
③ 주니어 핀급 ④ 라이트급

14. 앞굽이 가세에서 두발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

- ① 1걸음 ② 1½걸음 ③ 1족장 ④ 1½족장

15.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

- ① 삼국시대 ② 고려시대  
③ 조선시대 ④ 일제시대

16.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 ① 실행력 ② 정의감 ③ 봉사정신 ④ 이기심

17. 태극 품세를 할 때의 준비 자세는 무엇일까요?.....( )

- ① 기본준비서기 ② 통밀기  
③ 법서기 ④ 모아서기

18. 도장이나 방 마루에 땀사람이 앉아 계실 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

- ① 목례 ② 거수경례  
③ 무릎 꿇고 엎드려 인사함  
④ 차렷 자세로 머리를 숙여 인사함.

19.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 )과 ( )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 )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 애국가 4절을 쓰시오.(후렴은 쓰지 않아도 됨)

### 제 3 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대회

용시번호 ( )번 ( )국민학교 이름( )

※ 다음 물음에 맞는 답이나 답의 번호를 ( ) 안에 쓰시오.

1. 태극 폼세에 나오는 「서기」의 종류를 5가지만 써라. (태극 1장~8장까지에서)  
( ) ( ) ( ) ( ) ( )
2. 윗굽이가 처음으로 나오는 태극폼세의 이름을 쓰라. 답 (태극 ( )장)
3. 남십을 대표 급수로 하는 신체 구분명칭은? 답 ( )
4. 태극 3장에서 앞차기는 몇번 나오나? ( )  
① 2번 ② 4번 ③ 5번 ④ 6번
5. 태극 3장의 제 5번 동작의 공격 동작 이름은? .....( )  
① 손날막기 ② 손날목차기  
③ 몸통막기 ④ 얼굴막기
6.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 )  
① 조선시대 ② 고려시대 ③ 삼국시대
7. 체중이 25kg인 사람(국민학교)의 체급은? .....( )  
① 권급 ② 페머급 ③ 플라이급 ④ 밴텀급
8. 경기를 진행하면서 감점과 경기를 선언할 수 있는 심판원은? .....( )  
① 계시원 ② 부심 ③ 주심 ④ 배심
9. 태권도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태권도의 ( )이라고 한다.  
① 발생국 ② 중주국 ③ 탄생국 ④ 시초국
10. 王 왼쪽 그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태극폼세의 )  
① 폼세선 ② 행진선 ③ 동작선 ④ 진행선
11. 두발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은 서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 )  
① 앞서기 ② 윗굽이 ③ 범서기 ④ 앞굽이
12. 몸통 안막기는 어느 부위로 막느냐? ( )  
① 안팔목 ② 바깥팔목  
③ 옆주먹 ④ 등주먹
13. 앞차기는 발의 어느 부분으로 공격하는가? .....( )

- ① 발바닥 ② 발날 ③ 발등 ④ 앞꿈치
14. 주춤서 몸통 지르기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 )  
① 지르는 주먹에 힘을 많이 준다.  
② 어깨에 힘을 많이 준다.  
③ 허리를 틀면서 반대팔을 옆구리 쪽으로 빨리 당긴다.  
④ 허리를 곧게 펴고 지른다.
15. 몸통지르기를 한다. 이때 시선의 방향과 높이는? .....( )  
① 지르는 쪽의 눈높이  
② 지르는 쪽의 가슴높이  
③ 지르는 쪽의 목표지점  
④ 지르는 쪽의 배꼽높이
16. 국민학교의 경기 체급은 몇 가지로 나누는가? .....( )  
① 6체급 ② 7체급 ③ 8체급 ④ 10체급
17.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생명의 안전을 위한 술법이 있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 )  
① 맞추어겨부기 ② 격파  
③ 폼세 ④ 호신술
18. 제비춤 목치기에서 얼굴을 막는 부위의 이름은? .....( )  
① 바깥팔목 ② 손날 ③ 등주먹 ④ 바탕손
19. 손날 몸통 막기에서 보조손의 높이는? ( )  
① 얼굴높이 ② 몸통(명치)높이  
③ 눈높이 ④ 목높이
20. 여러 사람이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서로 지켜 이익이 되게 하는데 협력하여야만 한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부족하다. 경기장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나, 새치기를 하는 것등이 이런 것들이다. 1등 국민이 되려면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생활화하여 문화민족이 되도록 우리를 각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

# 김은용회장 '88서울올림픽 집행위원 피선

'88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11월 2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제 1차 위원 총회를 열어 전두환대통령을 명예총재로 추대하고 위원장에 김용식(한국적십자총재)氏를 만장일치로 선출했

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은 다음과 같다.

##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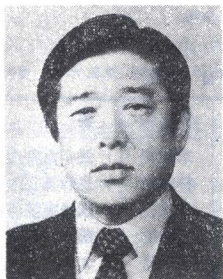
職 責	姓 名	現 職	職 位	性 名	現 職
委員長	金溶植	한국적십자총재	委 員	李鍾贊	民正黨院內總務
副委員長	曹相鎬	同組織委事務總長		林鍾基	民韓黨院內總務
	金聖培	서울特別市長		李東鎮	國民黨院內總務
執行委員	鄭周永	K.O.C委員長		尹誠敏	國防部長官
	李源京	體育部長官	”(監事)	鄭壽昌	大韓商工會議所會長
	金澤壽	I.O.C委員	委 員	申秉鉉	韓國貿易協會長
	韓炳來	國會文教公報委員長		張忠植	檀國大總長
	李奎浩	文教部長官		申榮均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盟會長
	盧泰愚	內務部長官		文胎甲	韓國新聞協會長
	李元洪	韓國放送協會長		金聖鎭	聯合通信社長
	李世基	國會올림픽支援特別委員長		鄭義淑	梨花女子大學校總長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總裁		河大敦	國際觀光公社長
	姜慶植	財務部長官		趙重勳	大韓航空社長
委 員	金 業	國會올림픽支援特別委幹事		崔豫婁	올림픽組織委事務次長
	朴鐘圭	大韓射擊聯盟會長		崔萬立	大韓올림픽委員會名譽總務
	崔元碩	大韓卓球協會長		朴世英	서울올림픽事業支援團長
	孫基禎	베르린올림픽大會金메달受賞者		金祥振	올림픽組織委事務次長

### (명 언)

즐거 일을 하며, 한일을 기뻐하는 자는 행복한자다. 결점을 고치고 과오를 보상하는 일은 최근의 행복이다. <箴言>



## 국제경기연맹 (G.A.I.S.F.) 집행위원재선



비올림픽종목 회장이며 올림픽운동위원회 위원인 김운용 총재는 1982년 10월 12일~17일까지 모나코 소재 국제경기 연맹본부에서 개최한 제 16차 연차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국제경기연맹 집행위원직에 재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재 선출되었다. 국제경기연맹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84년까지 올림픽과 국제경기의 경기운영책임, 각국 선수의 자격문제, 경기규칙개정, 해석, 세계 기록 공인등의 중요한 일들을 다시 하시게 되었다.



## 이상주 아시안태권도연맹 회장에 피선



이번 제 5 회 아시안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기해 1982년 12월 8일 14시에 싱가포르 President Merlin Hotel에서 각 회원국 대표

태권도연맹 총회를 개최하였다.

본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은 아시안 태권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자유중국 태권도 협회 회장(Gen Yuan Cheng)이 1982년 9월 23일 서거에 따라 공석인 아시아연맹 회장 선출이었는데 현재 한국 대학태권도연맹 회장이며 강원대학 총장인 이상주씨가 만장일치로 아시안 태권도연맹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8명 실행위원 7명이 참가하여 제 3회 아시안

# 金雲龍 總裁

국제체육 기자연맹 한국지부 顧問으로 推戴



국제체육기자연맹(A.I.P.S) 및 아시아체육기자연맹(A.S.P.U) 한국지부(K.S.P.U)는 오는 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과 '88년 제24회 하계올림픽 서울개최를 앞두고 조직을 강화 본격적인 국내의 활동을 펴면서 평소 한국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李源京 체육부장관, 金澤壽 IOC위원, 鄭周永대한체육회장, 金容植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등 4명은 당연직 고문이며 金雲龍세계태권도 연맹총재, 曹相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총장, 崔淳永 대한속구협회장, 朴鍾圭 국제사격연맹부회장, 崔元碩 대한탁구협회장, 金宗河 대한핸드볼협회장, 金昇淵 대한아마복싱연맹회장등 7명이 각각 고문에 추대됐다.

현재 金雲龍會長은 비올림픽종목회장(Non Olympic) 올림픽운영위원회위원이며 국제경기연맹 집행위원(G.A.I.S.F.)이다.

※ 국제체육기자연맹이란?

IOC에 가입한 공식적인 국제스포츠 기자들의 단체로 올림픽을 비롯한 중요 국제스포츠 행사 때 각국의 취재기자 편의제공은 물론 취재기자 워터배정 등 중요한 업무를 맡아 관장하고 있는 단체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연합통신 KBS, MBC등, 10개사의 체육부 기자를 정회원으로 국제체육기자연맹 및 아시아체육기자연맹에 정회원국으로 활동을 활발히하고 있다)

☆ 사진설명 ☆

(좌로부터 朴甲哲(조선일보 체육부장) 金雲龍 총재, 河政助(연합통신 체육부장), 嚴雲圭(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盧鎮浩(중앙일보 부국장겸 체육부장) 한국지부 회장을 대신하여 국제체육기자연맹한국지부의 朴甲哲부회장과 河政助 사무총장이 추대패를 전달

## IOC사무총장의 서한

친애하는 총재님

최근 본인이 귀국을 방문하였을 때 훌륭한 태권도 시범을 참관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때 본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만든 기장들을 젊은 학생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참가자 전원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기장이 없었습니다. 로잔느에 돌아오자마자 이 기장들을 좀 더 보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 대신에 총재님께서 당초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이 기장들을 나누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한국 체재중 베풀어 주신 후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하시옵기 빌면서, 태권도 만세!

모니끄 베를리우 배상



Re: Olympic Pins

Dear Mr. Kim,

During my recent visit to your country it was my pleasure to attend a delightful demonstration of taekwondo. On this occasion I presented some of the young pupils with pins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Unfortunately, I did not have enough of these pins to give to each participant. Upon my return to Lausanne, I am happy to be able to send to you some more of these pins. I should be most grateful if you could distribute them on my behalf to those pupils that did not initially receive them.

May I thank you once again for the generous hospitality extended to me throughout my stay in Korea.

Yours sincerely,

Kind regards and  
Vive le Taekwondo!

Monique Berlioux

## 스포츠 독립의 협약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마란치위원장과 세계태권도연맹(WFT) 김운용총재는 스포츠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OC와 ISF(국제경기연맹)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총재가 협약에 서명한것은 한국스포츠 외교가 세계무대로 한층 도약함에 따라서 그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는데 큰 뜻이 있다.

### 협약의 주요골자

1. 각국의 국내올림픽위원회(NOC)의 운영이나 구성요소가 외부의 어떤압력등으로부터 변경을 강요당해 변경될경우 IOC는 그나라 NOC의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고 세계태권도연맹은 그해당NOC관할하의 협회 자격을 함께 정지시킨다. 또 해당 NOC에 대하여서는 다른 NOC와의 일체의 접촉을 금하도록 조치하게 한다.

2. 국제경기연맹(ISF)에 가입되어 있는 각 국내의 협력도 똑같이 해당된다.

위와같은 내용은 그 나라스포츠 단체의 구성요소 및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할때는 세계스포츠계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해석이된다.

### CONVENTION BETWEEN THE IOC AND THE FI

In order to protect the independence of the Olympic Movement in general and of each of

its members in particular, the two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1. When the running or the composition of a recognised National Olympic Committee is arbitrarily modified by the decision of a body from outside the Olympic Movement, this National Olympic Committee may be suspended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which requests: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to suspend its corresponding affiliated national federation, and to forbid all its other national federations to have any contact with this national federation suspended;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s to stop all contact with this National Olympic Committee suspended.

2. When the running or the composition of a national federation affiliated to the F.I. is arbitrarily modified by the decision of a body from outside the Olympic Movement, this national federation may be suspended by the F.I., which requests: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suspend the corresponding National Olympic Committee.

For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For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  
.....  
.....  
.....



# 체육인의 영광 체육훈장

(제 5 회 세계대회)



제 5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82년 2월 24일 ~27일)에서 종합우승의 건인차역함을 한 임원과 선수들에게 12월 27일 체육부에 초치 전대통령

령자하를 대신하여 이원경체육부장관으로부터 체육훈장을 받았다.

## 훈장 포상자 명단

- ★기린장 단장 : 김두원(전 전남태권도협회장)  
 감독 : 안영택(협회심사분과위원장)  
 코치 : 김인수(동성고등학교체육교사)  
 코치 : 강신장(풍생고등학교체육교사)
- ★백마장 선수 : 하용정(한국체대 4년)  
 선수 : 박천재(한국체대 4년)  
 선수 : 장명삼(동성고등학교 3년)  
 선수 : 정국현(한국체대 3년)  
 선수 : 전용환(동대문상고 3년)

## 慶熙종합대학교에 跆拳道學科 설립

모든 종목 이론, 실기교육……지도자 양성 목적

종합대학에 사상 최초로 태권도학과가 설립되어 국기 태권도의 발전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됐다.

경희대는 전세계 1백8개국에 보급되고 88서울 올림픽대회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태권도의 이론적 학문 체계를 세우고 우수한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해 내기 위해 83년부터 태권도학과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금까지 태권도는 일반도장과 일부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특기반으로 가르쳐 왔고 복수대학인 유도학교에서 태권도학과를 격기학과와 분리

시켜서 단일학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종합대학에서 태권도학과가 신설됨으로써 태권도의 전반적인 지위향상과 함께 해외파견지도자의 수준향상은 물론 중 고교 태권도인구의 저변확대에 좋은 계기가 전망된다. 태권도는 동아무도로서의 특성을 갖고 세계 곳곳에 2000여명의 사범이 파견되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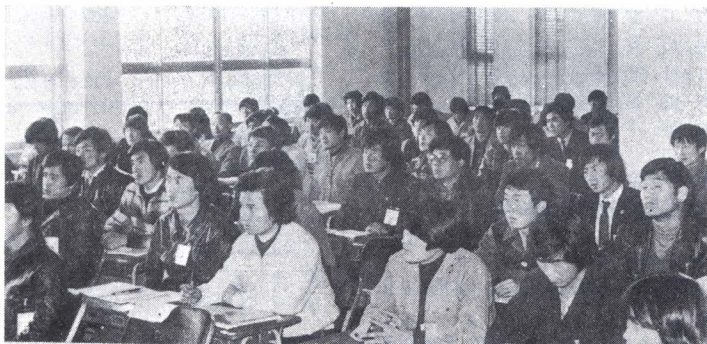
경희대는 매년 우수 태권도선수를 스카우하여 체육교육학과에 입학시키고 특기반으로 태권도부를 운영 선수를 육성하여 왔다. 이번 신설되는 태권도학과는 선수육성과는 별도로 지도자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본 대학 4년교과

◇ 이리일 저런일 ◇

과정동안 태권도의 이론, 실기교육은 물론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신체조 등 전 체육종목의 교육과 함께 영어 체육생리 보건학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우리 태권도인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원당국에 감사를 드린다.

## 지도자 교육

국기원에서는 제35기 지도자교육을 12월 9일부터 18일까지(10일간) 115명이 수강을 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의에 귀기울이는 지도자교육생들)

### 제35기 지도자 교육 합격자 명단

1 김 현 덕	2 정 일 환	43 장 원 익	45 유 영 희
3 정 영 일	5 한 원 선	46 김 준 호	47 이 종 철
7 김 금 선	8 이 익 수	48 권 삼 택	49 이 상 만
9 강 병 천	10 김 윤 철	50 백 승 갑	51 김 노 결
12 김 기 상	13 정 진 무	52 서 인 오	53 임 광 섭
14 김 동 진	16 홍 영 식	54 박 기 수	55 조 태 환
17 이 상 섭	18 차 승 국	56 오 기 주	57 윤 광 호
19 양 회 정	20 이 재 훈	58 김 문 석	60 조 병 휘
21 김 회 선	22 함 승 천	61 김 동 정	62 전 철 원
24 김 회 선	25 함 승 천	65 김 동 섭	66 박 민 섭
26 파 노 근	27 박 영 진	67 이 병 직	68 이 규 재
28 고 영 웅	29 강 동 명	69 양 의 석	71 명 재 승
30 장 섭 찬	32 우 찬 목	72 김 경 철	74 설 선 기
33 김 총 곤	34 김 영 훈	75 이 근 욱	76 최 은 정
35 김 정 숙	36 김 태 호	77 윤 중 원	78 허 맹 욱
37 김 언 증	38 한 귀 석	79 박 진 기	80 문 병 일
39 김 기 일	40 김 부 향	82 강 준 원	83 박 세 영
41 손 일 랑	42 김 진 회	84 제 갈 흥	85 이 현 행
		86 정 기 호	87 박 형 철
		88 김 기 익	89 이 상 재
		90 박 한 배	91 염 용 환

- |           |           |
|-----------|-----------|
| 93 김 중 근  | 94 김 중 오  |
| 95 나 화 열  | 96 이 상 덕  |
| 97 김 길 성  | 98 김 창 열  |
| 99 이 운 재  | 100 오 중 복 |
| 101 황 단 년 | 103 김 영 락 |
| 105 조 성 운 | 106 김 명 진 |
| 107 최 병 대 | 108 이 중 하 |
| 109 이 기 호 | 110 박 용 국 |
| 111 이 성 용 | 112 안 점 용 |
| 113 김 청 이 | 114 정 영 모 |
| 115 김 주 북 |           |

회)이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 응심자격 기준(심사규정 제 8조 해당자)
  - 5단: 만 27세 이상자로서 4단승단 기한이 4년 경과자
  - 6단: 만 32세 이상자로서 5단승단 기한이 5년 경과자
  - 7단: 만 40세 이상자로서 6단승단 기한이 6년 경과자
- 실기심사(심사규정 제12조 참조)

구분	품		세	거루기
	지	정		
5 단	태극, 고려, 태백 중 1 지정		평원, 십진중 1 선택	1회
6 단	태극, 고려, 십진 중 1 지정		지태, 천권중 1 선택	1회
7, 8 단	태극, 고려, 천권 중 1 지정		한수, 일여중 1 선택	없음

## 고단자심사(5. 6. 7단)

국기원에서는 12월 11일 오후 1시에 고단자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응심은 5단 46명, 6단 19명, 7단 20명이 응심하였다. 5단심사에 여성 2명(김안자, 장정

- 논문제출(심사당일 현장에서 작성함)  
심사 1개월전에 논문주제를 단별로 통보함



### 제109회 전국 고단자(5. 6. 7) 합격 명단

< 5 단 >

- |           |           |
|-----------|-----------|
| 501 오 점 덕 | 503 정 창 주 |
| 504 류 결 한 | 505 이 춘 식 |
| 506 정 인 화 | 507 김 정 령 |

- |           |                  |
|-----------|------------------|
| 508 김 정 철 | 509 황 수 갑        |
| 510 정 문 갑 | 511 서 기 수        |
| 513 정 정 우 | 514 허 맹 욱        |
| 516 김 철 영 | 517 박 성 훈        |
| 518 장 정 희 | 520 이 효 섭        |
| 521 김 영 일 | 524 청 외 킨        |
| 525 이 상 열 | (cheung wai kin) |

◇ 이련일 저련일 ◇

526 김 기 일	528 손 일 량
529 김 안 자	530 이 백 운
531 김 영 국	532 고 행 중
533 양 병 석	534 이 철 주
535 박 상 만	536 장 기 환
537 서 인 원	538 고 명 환
540 조 성 태	541 이 노 훈
542 목 진 일	543 박 기 수
544 양 의 석	546 임 흥 섭

< 6 단 >

601 김 성 조	602 이 정 수
604 이 영 철	605 유 백 만
606 이 종 호	609 김 교 준
610 박 용 준	612 정 경 학
613 심 명 구	615 김 종 오
616 김 태 균	617 이 종 환
618 허 송	619 문 영 환

< 7 단 >

701 이 치 문	702 김 종 식
705 진 귀 운	706 김 위 수
707 김 영 준	708 문 신 호
709 이 상 달	710 채 한 석
711 김 흥 규	712 김 중 영
713 윤 성 희	714 오 부 응
715 안 승 용	716 고 익 조
717 김 영 진	718 정 흥 진
719 김 일 남	720 최 영 현
721 노 상 석	

1. 응모자격(국민기육진흥법 시행령 제 9 조 3항 해당자)

(1)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과 2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2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 4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

2. 특 전

(1) 2급 정규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2급 경기지도자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음.

(2)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가 실시하는 국가대표선수 요우치로 선발될 수 있으며 체육경기 및 이에 대한 행사 등으로 해외파견시 우선권이 부여됨.

(3) 우수 수료자는 체육부장관 표창이 수여됨

(4) 본회 강화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경기지도자는 반드시 본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3. 연수에 관한 사항

※ 태권도사범들께서도 응모자격이 있으신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가 꼭 경기지도자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협회운영부 로 문의 바람.

가. 연수장소 : 체육회 강당 및 보조경기장

나. 연수시간 : 총 240시간

나. 교육예정일 :

전반기 : 1982. 12. 6~12. 23(16일간)

후반기 : 1983. 8. 1~8. 18(17일간)

라. 교육방법 : 주간교육

토요일 09 : 00~13 : 50(4시간)

평 일 09 : 00~17 : 50(8시간)

전반기교육이수자에 한하여 후반기 과정을 할 수 있음.

◇경기 지도자 2급과정 안내

대한체육회교육연수원에서는 경기지도자 2급 과정을 년 1회 실시하고 있다.

목적 및 취지는 국민체육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부장관이 지정한 경기지도자 양성기관으로서 각 종목별 경기지도자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 및 실기를 주입시킴으로서 한국체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다.

<경기지도자 2급과정 연수자 박현중, 유형환, 허송, 이백운, 추신규, 이철주, 안대준, 김종연, 이주성, 지병운, 하석광, 이용찬>



(전반기 교육을 마치고)

## '82. 해외 스포츠인사 국기원 방문 명단

( '82년 1월 ~ '82. 12월 )

방 한 인 사		초청기관	방한기간	방 한 목 적	
국	지 위 성	명			
케	나 국 무 장 관	지. 지. 카리유키 G.G. KARIUKI	WTF총재	1982. 4. 8	세계태권도연맹 임시 집행위원회
화	관 WTF집행위	부텐 후프트 THOUTENFOOD			
서	독 태권도 협회장대리	자크림지. 헤이 JACLM C. HEY			
스	페 인 WTF집행위	마르코사일라 M. MARCO. SAILA			
프	랑 스 "	자크 두게 JACQUES DUGUET			
미	국 WTF부총재	조시아 헨센 JOSIA HENSEN			
덴	마 크 IOC위원	니엘스홀스트소렌센 Mr. & Mrs NIELS HOLST SORENSEN	WTF총재	4. 25~5. 3	88서울올림픽시찰, 한국스포츠택지도자예방, 태권도현황파악

◇ 이련일 저련일 ◇

방 한 인 사			초청기관	방한기간	방 한 목 저
국	적지	위 성			
프 예 트 리 코	IOC위원	게르만리이케호프 Mr. & Mrs GERMAN RIECKHOFF	WTF총재	5.15~5.19	"
이 태 리	세계公道연맹 회장	프란체스코그네치루스코네 FRANCESCO GNECCHI RUSCONE	WTF총재	7.25~7.28	"
아 코 이 보 르 스 트	IOC부위원장	루이스기랑두엔디예 LOUIS GUIRANDOU- N'DIAYE	WTF총재	7.25~7.30	"
스 위 스	GAISF회장	토마스켈러 THOMAS KELLER	WTF총재	9.13~9.17	"
터 키	IOC위원	수아트얼러 SUAT ERLER	WTF총재	11.28~12.4	"
파 타 르	왕실경호대장	히크마트마푸스 COL. HIKMAT MAHFOUZ	외 무 부	82. 1. 5	"
영 국	IBF회장	쨌지리이디 C.G. REEDIE		82. 1. 14	"
알 젠 틴	NOC위원장	안토니오로드리게스 ANTONIO RODRIGUEZ	KOC	82. 1. 15	"
라 이 베 리 아	국민구제위원 회위원	제프메데스그바투 B/G JEFFRED S. GBATU	외 무 부	82. 5. 10	"
스 리 랑 카	NOC위원장	란지트위라세라 Mr. & Mrs RANJITH WEERASENA	체 육 회	82. 5. 14~15	"
메 바 논	IOC위원	셰이크가브리엘게마엘 CHEIK GABRIEL GEMAYEL	SLOOC	82. 5. 13	"
세 네 갈	IOC위원	케반엔베예 K'ÉBA M'BAÏE	"	82. 2. 27	"
페 루	NOC위원장	에두아르도알악시넬리 Mr. & Mrs EDUARDO R. ACCINEL	체 육 회	82. 7. 27	"
우 루 과 이	IOC위원	호세드바야리노베라시에르도 JOSE' VALLARINO VERACIERO	SLOOC	82. 9. 29	"
아랍에미레이 트	내무성차관	칼핀카미사이프알아메미 KHALFN KHAMIS SAIF AL-AMEMI		82. 8. 9	"
프 랑 스	FIL사무총장	얀스텔러 JAN STELER		82. 8. 19	"
중 국	중국 LUGE 협회회장	치유슈 Mr. & Mrs CHI YOU HSU			"
싱 카 폴	태권도협회장	데니스옹카이구만 DENIS NG KAI GUAN		82. 8. 19	"
에 치 오피 아	IOC위원	이드네카체우테세마 YDNEKATCHEW TESSEMA	SLOOC	82. 8. 24	"
카 메 룬	IOC위원	르네에쑤바 RENE ESSOMBA			"
프 랑 스	IOC사무총장	모니크베를리우 MONIQUE BERLIOUX	"	82. 10. 25	"
스 페 인	IOC위원장	후안안토니오사마란치 JUAN ANTONIO SAMARANCH	"	82. 4. 8	"
가 나	가나태권도협 회사무총장 항만청장	케이스닥지 CDR KEITH DADZIE	"	82. 12. 20	"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 편집 실 —



송 봉 섭 전무



엄 윤 규 회장



임 춘 길 사무국장

86아시아 올림픽과 88서울 올림픽을 대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80년 3월 서울시체육회가 경기단체를 구성하여 80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를 창립하여 동년 4월 7일 집행부를 구성하여 엄윤규씨를 회장으로 선임, 시험회가 출범을 하였다. 송봉섭 전무이사는 어느 경기단체보다도 우리 태권도협회 산하에는 회원이 많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고

또 일선도장의 사범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제는 어느 경기단체보다도 탄탄한 단체가 되었고 처음 출범시 빗미로 시작하던때를 송봉섭 전무이사는 회고한다.

타경기단체는 4~5坪짜리 사무실에 2개의 단체가 쓰고 있으나 시험회는 2개의 사무실을 한 개로 사용을 해도 협소할 정도로 발전을 하였다.

82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서울시 각구 대의원



장학금 수혜자

## 1. 대 회

국내대회를 21회에 8096명이 참가했고 국제대회 1회를 치루었다. 특히나 국제대회는 태권도의 불모지이고, 북한이 선착한 마카오에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은 일은 태권도 외교의 개가로서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바랍직한 일이었다. 지금은 마카오에 우리사범이 파견되어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 2. 승품, 단 심사

승품심사를 23회에 19,741명 응심하였고 승단은 6회에 4,783명이 응심하여 총 24,524명의 심사를 보았고,

## 3. 독립기념관 성금

독립기념관성금 모금운동에 각지구 대의원들이 선봉이 되어 2,002,500원을 모아 기탁하여 태권도인의 긍지를 유감없이 발휘하였고

## 4. 장학금

장학금들을 마련하여 10명의 모범어린이를 선발 50만원울 지급하였고 시체육회에서 태권도 초, 중, 고등학생을 13명 선발하여 35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시태권도협회

#### 장학금 수혜자명단(각 5만원)

정훈재(남성국교) 김영관(송정국교) 박영석(거여국교) 김용백(신월국교) 서승희(금성국교) 박정화(화계국교) 박찬혁(남산국교) 권태호(광희국교) 이한도(미동국교) 민태남(미천국교)

### ☆시체육회 장학금 수혜자명단

강철우(한영중 3) 250,000원 신재균(한영중 3) 250,000원 김경환(한영중 3) 250,000원 양대승(동성중 2) 250,000원(이상 4명 제11회 소년체전우수자) 장명삼(동성고 3) 300,000원 전용환(대대문상고 3) 300,000원(이상 2명 제17회 대동명기우수) 이병화(광희국 6) 200,000원 양정석(면목국 6) 20,000원 장병인(한영중 3) 250,000원 박봉권(동성중 3) 250,000원 인해진(서울체고 2) 300,000원 이해진(성동상전 3) 300,000원(이상 제1회 시장기대회우수자) 권기문(서울체고 3) 300,000원(제63회 전국 체육대회 우수)

## 5. 전국체육대회

제6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임회장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태권도협회를 어느시도의 협회보다도 우수하고 견실한 단체로 육성하겠다는 태권도사의 증인인 엄운규회장의 탁월한 역량과 알뜰이 살림을 하여 온 송봉섭 전부이사 및 사무국 요원의 노력은 물론 시협회 산하 일선도장의 사범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단합의 상징이다.

본 협회는 82년 12월 29일 총회에서 제 4대 회장에 엄운규전임회장을 만장일치로 유임시키고 임회장에게 집행부 구성을 위임하여 전부이사 송봉섭 사무국장 임춘길이 다시 협회살림을 맡아 수고를 하게 되었다.

본 협회는 83년도 수지에산을 60,320,000원으로 82년의 45,510,000보다 1천 5백여만원을 증액하여 보다 활발히 일할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 집행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탄핵될 각 지구 대의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 된다.

부서울시태권도협회 대의원명단☆

중양대의원 : 강영복, 김정기, 양영모, 김춘근  
 종로구대의원 : 한규인, 중구구대의원 : 김태용, 동대문구대의원 : 김태균, 서대문구대의원 : 문선호  
 마포구대의원 : 유병호, 은평구대의원 : 김정대, 성동구대의원 : 이기용, 성북구대의원 : 한만규,  
 도봉구대의원 : 박석천, 용산구대의원 : 최중수, 영등포구대의원 : 심재익, 동작구대의원 : 전만식  
 구로구대의원 : 신영덕, 관악구대의원 : 박찬수, 강서구대의원 : 전창식, 강남구대의원 : 최종학,  
 강동구대의원 : 박용하

83년특별회계로 장학기금을 500여만원 책정되어 우수선수들에게는 장학기금을 보다 폭넓게 지급할 계획이며 국제경기를 확대하여 선수와 협회임원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넓힐 계획이다. 마카오와 서울시협회는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교류가 확정되었고 일본, 태국, 하와이 등에서 친선경기 제의를 받고 있어 본협회에서는 선수 파견 등을 예의 검토중이다.

※다음호에는 각 시도 협회순회 탐방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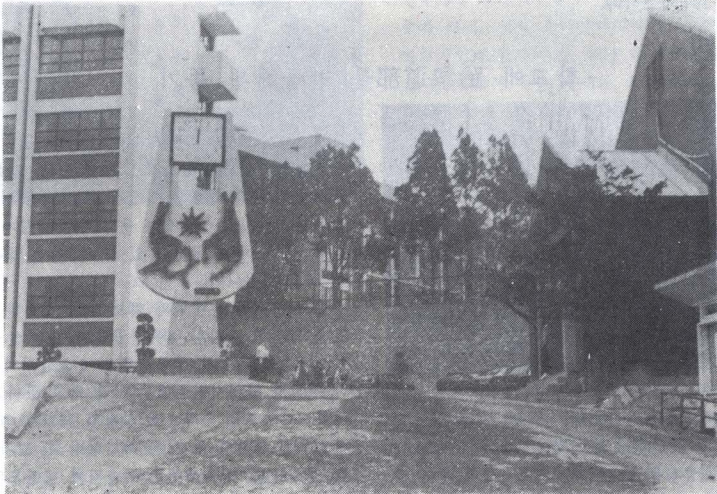
◇ 명 언 ◇

저쪽에서 오는 것을 기다려서는 인간을 알 수 없다.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쪽에서 먼저가야 한다.

# 교기(校技) 태권도 학교를 찾아서

(동성 중·고등학교)

편집부



역사가 오래된 카톨릭계통 재단의 학원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학교엘 도착하였다. 체육교사 김인수(공인 6단) 선생의 반가운 안내를 받아 교무실에 들러 남궁 성 교감, 남궁 한 체육주임선생을 차례로 소개를 받으면서 이 학교에 태권도의 위치를 확인이라도 하는것 같았다. 가는날이 장날이라고 학교의 종합감사가 있어서 한시간 가량, 기다리며 체육관과 태권도 지도를 위한 차드 피도등, 체제있게 한눈으로 학교태권도부의 활동을 읽을 수 있었다.

본고는 1977년 11월 7일 교장 박순재 신부님의 재가를 얻어 교내 태권도부원 34명으로 시작을 하였다.

78년 12월에 처음으로 유단자 74명을 배출하였고 79년 209명, 80년 342명, 81년 391명, 82년 301명이 응시하여 총 1,223명의 유단자를 육성

하였으며 아울러 선수양성에도 게으름없이 크고 작은, 각종 대회에 총 24회나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으로 국가대표선수에 선발되어 최근 개최한 제 5회 세계대회 및 제 5회 아시아 대회에서 우수한 페터급의 장명삼선수, 제 5회 아시아대회 우수한 핀급의 최천선수등을 육성한 명문교이기도 하다. 이 동성학교에서 태권도를 교기로 선정한 목적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무술이자 스포츠인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인 동시에 국방체육으로서, 정신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으로 건전한 인격형성에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태권도를 통한 심신단련 및 자추극방 태세를 갖춘 국가안보교육과 학교생활의 안정과 질서준중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한다.

태권도의 교과운영 과정은

본교 1학년 2학년의 체육교과시간 주 3시간중 태권도가 2시간으로 체육담당 교사가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태권도부 운영에는 ① 태권도부원현황 ② 태권도부 경기실적 ③ 태권도부 졸업후진로 등 체계있고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으며 교장 박순재 신부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족함이 없는 태권도의 모범학교이다.

현재 동성 중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교사 박종식(5단) 선생지도로 1,050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며 고등학교는 교사 김인수(6단) 선생과 교사 김세혁(5단) 선생의 지도로 1,200명이 태권도 수련을 하며 40명의 선수가 탐을 홀리고 있다.

교장 박순재 신부님은 태권도를 교기로 삼은 이유를

## 학교에 跆拳道部를 만들게 된 동기



(교장 박순재 신부)

학생들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을까? 하고 제가 이 학교에 취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재학시절은 물론 졸업 후에도 정신의 道와 건강에 혜택을 입는 운동과, 아울러 공동체적인 단합정신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태권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했고, 또 나라에서 권장하는 국기이기도 하지만 이런면에서 태권도를 도입하면 개인에게나 사회인으로서나 단체적인 정신면에서 좋겠다는 판단이 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학교 환경과 교육적인 방침과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풍토가 위유내강의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 자칫 잘못하면 무기력한 사람. 밖으로 볼때에 암전하지만 하고 패기가 없는 학생들의 위양들을 만들기쉬운데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강인한 정신력과 신의가 있으면서도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수 있는 인간상을 만들

고져 하는, 학교교육 방침과 잘 조화를 이루워서, 태권도부를 창설한지 5년이 지난 지금에는 학생들의 밝은 얼굴과 자신감 있는 행동이 눈에 보임은 물론, 외부에서의 우리 학생들 평가도 말 말하면서 어떤 긍지가 있어 보인다는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본교는 카톨릭 재단의 학교로서, 김수환 추기경을 위시한 교회의 성직자들을 많이 배출을 하였으며, 본교 출신 선배들은 밖에 표출되지 않으나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를 주축으로 설립된 학교가 교기로 태권도를 정하게 된 것은 특기할만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교에서는 카톨릭과 태권도의 관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적인 하나의 계기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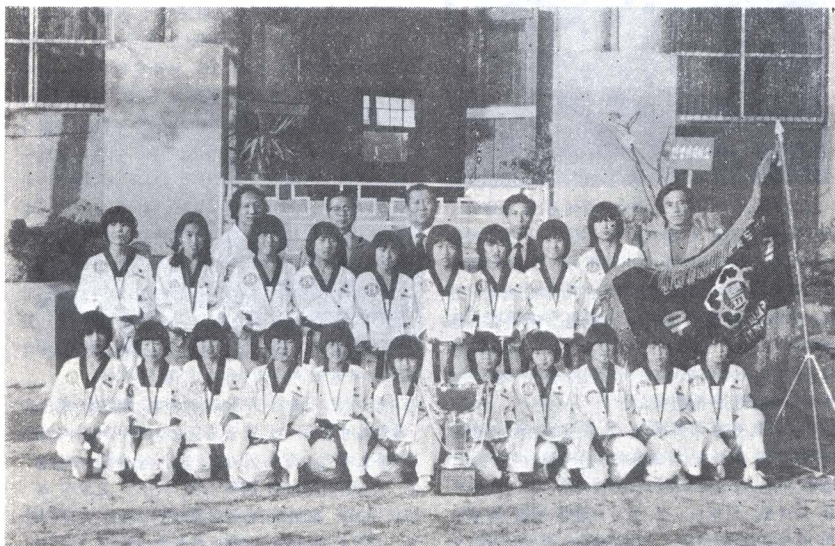
교회도 옳다는 정의가, 신앙면에서나, 정신적인 면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힘이 정의 구현에 연결되는,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태권도와 카톨릭이 연결되었다면, 종교생활을 하는 신부들도 더욱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합니다.

본교는 태권도가 학교의 교기가 된 후, 학생도부나 학교의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등으로 학교의 기강을 바로 잡으 특히, 태권도부의 학생은 타학생의 모범생으로 학교생활의 지도에 큰 몫을 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대를 하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태권도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승부보다 인격형성이 먼저

서울미동국민 학교

이 규 형



희(喜)와 비(悲)가 엇갈리던 제 3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 국민학교 단체대항 시합은 3연승이라는 감격의 기쁨보다 나에게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0년전 우연한 기회로 인하여 미동 국민학교 태권도부를 지도하게 된 나는 처음의 몇명도 안 되는 적은 부원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국가대표 시범단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유단자를 길러내며 나름 대로의 말할수 없는 정신적 아픔을 겪어 왔지만 그동안 나의 마음 한가운데에 뚜렷하게 자리를 잡은것이 있다면 오직 무(武)의 정신(精神)은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과 지도자와 수련생의 기본자세가 사랑으

로 연결될 때에 무서운 힘이 지속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어떤 알박한 잔재주나 요행으로써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얻으려는 자세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꾸준한 기본바탕의 수련(修練)없이 큰 것을 얻으려 할 때에 더욱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어린 꼬마들을 지도하여 온 지 10년 어찌던 이 대회에서의 3연승은 이러한 집념속에 꾸준히 심신을 연마하며 지도하여온 신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데에서 보다 큰 기쁨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3회대회 에서 우승하는 데에는

지난 1, 2회 대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시합 10여일 전까지 수많은 内外의 귀빈들(各國의 IOC위원, GAISF會長 등)에게 국기태권도의 정통성(正統性)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시범 활동(活動)에 보내야만 했으며 더구나 지난大會와는 달리 경기규칙면에서 전년도 대회와는 판이하게 달라 태권도의 이론, 기본기와 품세 그리고 승패(勝敗)를 떠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무(文武)를 겸비 하자는 것이 이 대회의 원래 취지였으나 금년에는 원래의 취지를 좀벗어난 거루기 위주의 試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단의 활동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중요한 시범활동이 모두 끝나고 나니 시합날까지의 기간은 불과 20일 그러나 이 20일이 꼬마들에게 더욱 값진 보람과 단결력을 굳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 기간중, 어린선수들의 열성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했다. 한참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 그러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이룩한 2연속 우승을 자신들이 3연승의 업적으로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스스로 훈련에 참여, 휴식시간도 없이 뛰다가 밤 10시를 넘기기가 매일 같았다. 이런 어린 꼬마들을 볼때 나는 하나에서 열까지 나의손이 닿는 모든 곳까지는 신경을 써 선수를 뒷바라지에 모든 열과 정성을 쏟지 않을수 없었다. 매일 간식과 저녁식사를 마련하여 꼬마들 체력관리에 신경을 써 가며 훈련을 시켰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린 꼬마들은 너무 잘 따라 주었다. 특히 빼 놓을 수 없는 어려움은 시범단원 전원이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들 이기에 학업성적 관리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몇명씩 조를 짜서 공부한 결과를 서로 알려주며 모르는 문제는 전화로 물어가며 공부를 하여 밤 11시30분에서 12시까지 공부한 결과를 나의 속속로 보고하게 하였다. 또 아침 6시에 선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상을 시켜 아침공부를 시켰다.



평상시의 강한 심신훈련(心身訓練)을 통해 이미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나는 믿고 지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짧은 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거루기 부문에서 8명이 출전하여 4명이 입상하였다는 것은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하는 훈련보다 평소의 기본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해 준 셈이다.

철저한 기초훈련 위에 거루기에 관한 기술동작을 응용시켜 준다면 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에 가서는 한 사람의 거루기 재주꾼이 아닌 다양한 기술을 지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태권도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듯, 학교와 선수와 사범이 3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훈련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들에게 큰 힘을 준 요인 중의 하나가 미동 태권도부 출신인 선배들이었다. 미동 태권도부 졸업생들로 구성된 「무인회」는 현재는 대학졸업반까지 있으며 미동 태권도부의 행사때마다 틈틈히 나와 후배들을 격려해주는가 하면 이번 훈련기간중에도 매일 간식을 마련하여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다. 문과 무를 겸비하자는 무인회 모임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가지며, 중·고·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선배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과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는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적 또한 우수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인장을 비롯주위의 각 중고등학교에서

학업면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무인회 회원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으름가는 모범생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

미동 태권도부나 무인회의 똑같은 공통점은 첫째, 양심불량을 절대 해서는 안되며 둘째, 학업성적 85점 이상이어야 하고, 현재 전원 90점 이상 유지하고 있고 셋째, 경기면에서 우승이라는 승부의욕 보다는 태권도 정신(예의, 엄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 곧 수업에 90%이상 학업과 생활에 연장 시키며 넷째,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높고 값진 인격의 기본인 예의(禮義)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모두가 태권도로 맺어진 따뜻한 친구들이지만, 해가 거듭 할수록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바른 자세로 성실한 노력을 하는것을 보았을 때, 사범으로서 고마움을 느낄 뿐이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러한 어린 학생들에게 순수하고 진실한 인격을 가꿔주고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히 일해줄길 진심으로 비는것 일 것이다.

제 3회 문교부 장관기 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수련에 임했던 꼬마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문과 문외배움속에서 성실히 성장하는 무인회 회원들, 그리고 항상 태권도부 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주시는 이만포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의 미동국민학교의 시범단이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신 태권도 선배님들과 협회와 연맹인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태권도의 유래

태권권법이라 함은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서 쪼르코(突), 치고(打), 발로 차는 것을 중심으로 잡으면 넘어뜨리는, 즉 신체의 각 부분을 이용하여 자기 몸을 방어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로서 몸을 진감하게 하며 전진한 정신을 도야하는 무도(武道)이다. 이 무도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원시인들이 아직 무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에 인간의 수족으로서 적이나 맹수와 싸우는 데에서 비롯된 원시적 투기술(鬪技術)로서, 예를 들면 신라·고구려시대의 벽화·조각, 고대 에집트의 피라미드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격투, 로마제정시대의 노예투쟁술, 또한 인도에 있어서 사찰(寺刹) 입구의 사천왕상(四天王像) 등은 태권권법의 초기의 자태라 볼 수 있으며, 태권권법이라는 명칭은 아니었으나 세계 도처에서 자기방어·공격법이 각종 다양으로 그 지방의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발달하였다. 이 무술의 체계화의 과정은 이 기술의 전수(傳授)가 비밀리에 행하여 졌기때문에 명확한 문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지역적 발달은 다음과 같다. 1) 유럽: 유럽에서는 현대의 권투와 레슬링을 혼합한 것 같은 판크라티온(pankration; 씨름)이라는 투기의 1종이 발생하여 BC 648년에 올림피아경기의 1종목으로 경기되었던 것이다. 2) 인도: 인도에서는 과 제우(諸侯)가 그 세력투쟁에서 태권권법격투기를 많이 이용한 흔적이 보이며, 상주상박(相攖相撲)이라 불리어 불교가 발생하여 승려의 수행자(修行者)가 불교를 전파할 때에 다른 종족 또는 맹수 등의 습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널리 연구되었던 것이며, 당시의 태권권법격투기가 성행한 사실로는

사찰산술(寺刹山門)의 좌우에 서 있는 사천왕상, 앞 좌우에 서 있는 금강관보살상(金剛拳菩薩像)은 마귀를 물리치는 방공일체(防功一體)의 형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3) 중국: 중국에서는 수박무희(手搏武戲) 또는 각저(角觝) 등의 이름으로 무예의 1종으로서 성행하였으며, 단(前) 중국 단기서(段祺瑞) 위하의 맹장(猛將) 마양(馬良)이 중화민국 9년의 직예파(直隸派)와의 정패전(爭霸戰)에서 단기서 1파가 패함에 그는 군벌(軍閥)山東督軍)을 은퇴하고 무술도장을 개설하여 중국 국수무술의 신앙(宣揚)에 노력하였으며, 초민외(稍民館)라는 국민정부의 위원 이 국수무술의 장려를 도모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여 국술(國術)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오늘날 국술양법(國術養法)을 만들어 도처에서 연마하고 특히 남권북태(南拳北踏)라 하여 남에서는 손을 잘 사용하고 북에서는 발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다. 4) 일본: 일본에서는 유술(柔術)·소구족(小具足)·체술(體術) 등의 이름으로 수련하였으며 유구열도(琉球列島)의 오기나와(沖繩)에서 전하여진 맨손으로서의 방어공격법이 발달하여 오기나와테(手)라는 이름으로 수련되던 것을 일본 명치유신 이후 1922년에 유구인이 일본에 전파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5) 타일란드: 현재도 타일란드에서 경기되고 있는 권투는 방구(防具)를 착용하여 손으로 또는 발로 차는 투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도 이와 비슷한 투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 말라야: 말라야의 무술은 말라야 요술의 오신술(吧吧士利科)로 옛날에는 이것을 습득하기 전에 완전한 교육을 못받았다고 하며, 현재는 의식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다.

## 무주 구천동의 메아리

최 문 옥

(전북 무주구천동 구천국교 지도교사)



4도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구천동, 덕유산 국립공원의 물 맑고 경치 좋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또 한편은 산간 오지, 벽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이곳 무주 구천동에 나는 1979년 3월 1일자로부터 임하여 왔다.

3월이던 계절상 봄의 문턱에 다가올 때건만, 발령받아 온 구천의 3월은 그저 황당하고 쓸쓸한 바람과 아직 채 녹지 않은 하얀 눈의 세계로 별천지에 온 듯 신기하기만 하였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이곳 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관광지에 위치한 이곳 아동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지도 문제라는 걸 탐지할 수 있었다.

나름대로의 자오와 신념을 가지고 학창시절의 태권도 선수 생활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통한 강인한 의지와 질서있는 행동을 심어 주어야겠다는 생각하여 태권도부를 창설하였다.

하지만, 모든게 뜻대로 되지 않는듯 태권도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총 학생수 320명 중 남학생 150명) 4, 5, 6학년 남학생 약 80명중 겨우 9명에 불과했다.

운동을 배우면 아이들을 버린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 방식이 이 지역 학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태권도 배우는 것을 꺼려했고, 배우는 학생들마저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때가 오리라 믿으며 방과후 1시간씩 나의 반 교실에서 '하면 된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쳤다.

태권도부를 창설한 지 1년쯤 되면서 아이들에게 그저 이대목이 아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안겨 줄 필요성을 깨닫고 먼저 승품 심사사를 거쳐 80년 제 1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 출전하였다.

큰 기대를 건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패자의 쓴맛을 맛보자 나 자신의 실망이 컸음은 물론, 애초부터 태권도부 창설을 반가워하지 않은 주위의 눈총은 더욱 따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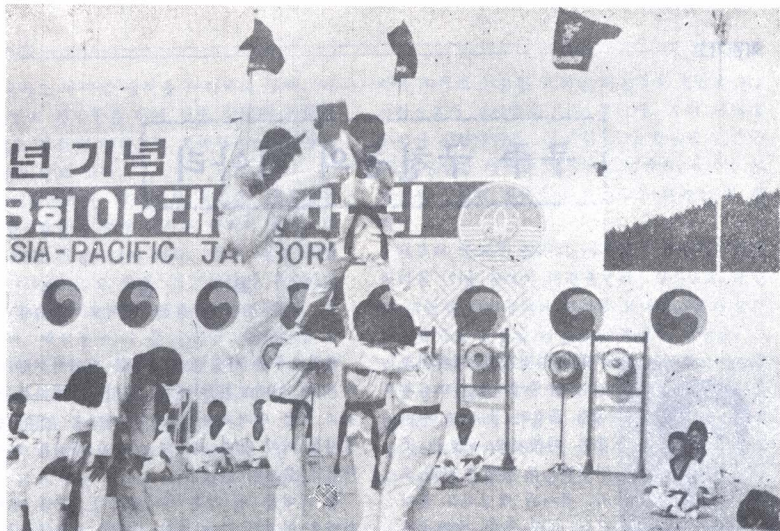
그렇다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내가 그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었기에 한번 실패를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8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던가? 81년 5월 제 2회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에서 해비급 송춘식 어린이가 은메달을 따내면서 나와 우리 어린이들의 꿈은 이루어졌고, 솟아오르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거기에 힘입어 연맹 회장기 때에는 은메달 1, 동메달 2개를 획득했고, 전북 태권도 회장기 때에는 두메 산골의 강인함을 과시하듯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여기 거기서 산간 벽지의 경사라는 칭찬이 대단하였고, 나 자신과 아이들의 기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회 때마다 갖는 어려움, 가난한 학생들의 대회 출전 여비며, 심사비의 부담 등 나의 적은 월급으로 충당하며 겪어야 했던 고충의 나날들이 계속되는 우수속에 모두 잊혀지는 듯 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전북 검사장배 경탈전에서 우리 태권도부는 좋은 성적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또 한번 그 실력을 인정 받았다.

이렇듯 각종 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학생들의 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자 이제 이곳 구천동 주민들도 구천 국민학교 태권도부에 매우 협조적이고 우호적이다.

이런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열심히 노력해 온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없는 좋은 기회가 왔다.

다음 아닌 태권도 시범 요청.

제 8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 챔버리가 이곳 무주 구천동 덕유대에서 8월 4일에서 10일에 걸쳐 열렸는데, 8월 6일 밤에 있는 '한국의 밤'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나와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구천동의 모든 주민들의 가슴은 설레었고 시범에 많은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모르게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연습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6월, 7월 집중 강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뜨거운 오후의 피약벌 아래서 훈련에 임하는 나와 아이들의 귀로는 늘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벅찬 기대와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행사날이 왔다. 시합에 나가 본 경험 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엔서 본 경험이 없는 우리 어린이들은 긴장이 되어 안절 부절 하였고, 개중엔 "선생님 소변이 마려워요" 하며 갔다온 지 채 5분도 아니되어 "선생님 소변 좀 보고 올게요" 하고 연방 번소애다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 긴장된 기다림의 순간이 드디어 사회자의 "다음에는 이곳 무주 구천국민학교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는 방송과 더불어 밖과 우리 44명의 태권도부 어린이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무대에 올라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시범 순서에 따라 유감없이 발휘해 나갔다.

마지막 순서 격파가 진행되는 중엔 대회장에 있는 만 오천명의 관중들의 우뢰같은 박수와 환호 소리에 잠시 정신이 없는 듯 두눈을 동그랗게 빛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모습은 보이기도 했다.

태권도 시범이 끝나자, 박수와 환호소리는 장내를 떠나갈 듯 계속 되었고 그 소리는 곧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박수 갈채 속에서 무대를 빠져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외국 대원들이 싸인을 해 달라고



종이와 펜을 내밀자, 당황한 우리 어린이들은 “선생님, 싸인이 뭐예요?” 하고 묻는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만, 잼버리중에 보인 태권도 시범은 그야말로 우리 교유의 태권도를 외국인들에게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

또한, 나 자신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면 된다’는 신념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어 나로서는 더욱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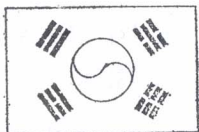
### 〈국기계양방법〉

태릉령 고시 제 2호(1966년 4월 25일)인 국기 계양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1) 국기계양 기간: 국기는 일출 시에서 일몰 시까지, 청명시에 계양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의 절차로서 계양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경조일(慶弔日)에 계양하는 방법: a) 경축일에는 깃봉과 깃족 사이를 베지 아니하고 단다 b) 조의를 표할 때에는 반기(半旗)로 한다. c) 이경우에는 깃족을 깃봉에서 깃족만큼 내내서 한다. 3) 국기 하나만을 계양하는 방법: 식장의 단상을 향하여 왼편 또는 중앙에 계양한다. 그러나 이미 고정적으로 시설이된 계양대가 있을 때에는 그 고정된 위치에 계양할 수 있다. 4) 국기 둘을 계양할 때의 방법: 좌·우측에 따로 띄워서 병립시키거나 교차시킨다. 교차시킬 때에는 단상을 향하여 왼쪽의 국기(깃대 밑을 오른쪽)를 밖으로 한다.



깃대를 확대해서 달때

5) 외국 국기와 함께 계양할 때의 방법: 우리나라에서 외국 국기를 높은 위치에 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우리 국기와 외국국기 하나를 함께 계양할 때에는 좌우에 따로 띄워서 병립시키거나 교차시킨다. 병립시킬 때에는 우리 국기는 단상을 향하여 왼편에 외국국기는 오른편에 각각 세워두어, 교차시킬 때에는 우리 국기의 깃족은 단상을 향하여



가두장식 또는 식장에서 깃족만을 달 때

이제 태권도 시범을 성공리에 끝낸 구천국교 태권도부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

나는 태권도인의 긍지를 지니고 오늘도, 내일도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신체와 ‘하면 된다’는 강인하고 건전한 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내일을 향해 뛰리라.

우늘도 우리 태권도부의 힘찬 기합소리는 해저물어 가는 구천동 골짜기, 골짜기에 메아리친다.

왼쪽에 오도록 하고, 우리 국기의 깃대는 밖으로 한다. b) 우리 국기와 함께 3개국 이상의 국기를 계양할 때 i) 국기의 수가 기수(奇數)일 경우: 우리 국기를 중앙으로 하고, 외국 국기는 단상을 향하여 국명의 알파벳순으로 왼편의 둘째, 오른편에 셋째, 그밖에 왼편에 넷째, 오른편에 다섯째 등의 순서로 배열한다. ii) 국가의 수가 우수일 경우: 우리 국기를 단상을 향하여 왼편 첫째로 하고, 기타의 국기는 국명의 알파벳순으로 둘째에서부터 배열한다. 위 b) b)의 국기 배열 방법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국제회의의 주최국일 때에도 적용된다. c) 우리 국기와 다른 외국 국기를 함께 계양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도 국기의 크기와 높이는 똑같이 하여야 한다 d) 외국 국기의 계양은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한다. 만국기를 계양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e) 국제연합기를 함께 계양할 때에는 <a>와 <b>의 계양 방법을 준용하되, 국제연합기를 가장 높은 위치로 하고 우리 국기를 버금 높은 위치로 한다. 6) 국기의 깃족만을 사용할 때의 방법: a) 가두 장식 또는 식장에서 우리 국기의 깃족만을 달거나 붙일 때에는 깃대를 제대로 향하여 건(乾; ☰)을 좌상감(坎; ☵)을 우상으로 단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길이로 늘어선다. 이 때에, 우리국기는 건(乾; ☰)을 우상, 이(離; ☲)를 좌상으로 한다. b) 국가적인 의식 또는 경축행사에 있어서 국기를 확대하여 늘어선 달리는 길이와 넓이를 3과 2의 비율로 하되, 깃면만을 길이로 늘어선 달고자 할 때는 높은 부분을 기면색(旗面色)과 같이 한다. c) 식장에서 깃족 하나만을 달거나 붙일 때에는 식장의 정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d) 우리 국기와 외국 국기의 깃족을 병용할 때에는 5) 외국 국기와 같이 계양할 때의 방법을 준용한다. e) 부칙: i) 이 고치는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 국무원 고시 제 8호 국기 계양 방법을 이를 폐지한다. 국기에 대한 예는, 계양할 때에는 주목만으로 하고, 이미 계양되어 있는 기에 대하여는 경례로써 한다.

# 選手에서 감독까지의 考察

1. 나의 태권도(선수)수련기
2. 태권도(감독)지도자 경험론

CISM 감 독  
허 송



앗! 야-앗!  
“시작했다. 싸웠다.  
이겼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연된다”의 좌우명속에서 오늘에 이른 나의 태권도! 태권도의 眞價는 어디에 있을까? 국민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군인도, 모두

모두 다 수련하고 있는 우리 국기 태권도가 지금은 武道에서 SPORTS로 변해버린 오늘의 태권도는 태권도의 3要素인 품세, 겨루기 격파중 겨루기 하나만을 重要視하게 된 지금의 태권도 수련자들은 과연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 무엇을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훌륭한 수련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볼 시점에 온 것 같다.

여기에 이른 지금 하나의 意味는 言語行爲를 위해서가 아니고 단순한 感情이나 對話를 위한 傳達手段이 아니며 감동을 주려고 아름다운 表現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느낀바 사실을 관찰한 因果關係를 進술하여 價値 있는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태권도와 인연을 맺어 도장의 門을 노크한 것은 1962년 중학교 1학년년부터이며 이때부터 시작하여 現在까지 어언 세월은 유수하게 훌쩍 20年의 時間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0年이던 누구나 말하는 江山

도 변한다는데 한번쯤 지나간 時間을 더듬어 보고 싶다. 本人이 유단자가 되어 競技場에 登場한 것은 한국체육관과 한성여고에서 최초 1966년 9월 시합에 풀라이급으로 치며 출전(이때는 1분 30초 2회전) 당시 어떻게 하다보니 3位の 입상자가 되어 동메달을 목에 걸고 집에는 후 1967년 11월에 실시한 전국 우수 선수권대회에는 뱀텀급으로(총 8번 겨루기) 출전하여 결승전에서 한무관의 임某군과 겨루었으나 내입장에서는 분명히 2점을 앞차기로 얻은것 같았으나, 배심의 판정은 우승의 영광을 획득치 못하게 만들고 만다. 타인의 실력보다도, 내도장의 아이이니까하고 팔이 안으로 구부러지면 때의 운동시합의 한장면이다. 정말 억울하지만, 한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다음시합은 KO승으로 이기기 위한 實力을 쌓아야 된다는 信念을 가졌다.

運動시합은 敗한 後의 마음자세가 重要하다. 술이나 담배로 마음을 달래는 비굴함이 없이 敗하는 날부터 고된 運動은 始作되는 것이었다. 오로지 必勝하는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이때만해도, 지도해주는 선배도 教師도 없었다, 단, 거울속에서의 태권도연습과 같하는 선배들의 뒤를 따라 모방하고 습득하며 運動하는 것이다. 어느날 體育館에 運動을 하기 위해서 도장문을 들어서는데 체육관 同門들이 도망가듯 뛰쳐나온다. 이유도 모르고 도장에 들어서니 연승의 해병대 대표선수들이 運動을 하고 있었다. 아! 아까 나간 同門들이 떠올랐다. 해병대 대표선수 는 도장에 나와서 오로지 겨루기만 하고 후배들



을 양성하는 것보다 겨루기 파트너로 하여 마음껏 좌상과 스트레인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지만 남자가 맞는다고 도망갈 수 없다, 들어가서 도복을 잘어입고 몸을 풀고있는데, “야! 이리와보라” “우리 겨루기하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 온몸은 멍들지 않은곳없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배운다는 사실은 기쁜뿐이며 힘이든 것이다. 이렇게 맞고, 배우고 맞고 배운것의 보람으로 1968년도 대학 개인 선수권대회 경기에서는 實力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무명의 선수가 유명한 선수를 이긴다는 사실은 매우 강한 힘이 作用하지 않고는 힘이든다는 사실을 또 맞보게 되었다. 2등(은메달) 어찌하여 영광의 여신은 나를 멀리할까...” 그냥 마옵겠 술이라도 먹고싶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잔도 못먹는 내가 한병을 먹을 수 있겠는가...반성해본다. 왜 졌는가? 이유야 어땠든 2등이다. 특히로 활발한 새로운 무기의 발차기가 필요하다. 위력적인 발차기를 개발해야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통감하고 道場에 나가지 말고 혼자 研究하며 열심히 努力하자고 굳게 다짐한 몇일 후

부터는 親友와 같이 朝刊新聞을 들고 새벽 4시부터 달리기 始作하였다.

또 발차기는 맹목적인 발차기보다는 목표를 연상하며 좌우 2백회이상 지르고 차며 뛰어나왔다. 한편으로는 직접 앞에서 차는 발보다 말아차는 것처럼 뒷차기를 연습하며 짧고 길게 차는 방법을 숙달한지 삼개월후 체육관에 나갔다. 마침 이날따라 이름있는 선배가 도장에 나와서 운동하고 있었다. 나도 몸을 풀고 있으려니까 “야 이리와봐, 겨루기좀 하자”하는 것이다. 이제 몸이 다치겠구나하고 보호대(호구)를 입으려했으나 이때의 보호대(호구)는 굵은 대나무로 조개 째라서 천에다 끼워 다시 천으로 씌워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입고하면 더욱 다쳤다. 그래서 호구없이 선배와 겨루도록 되었다. 선배의 주먹기인 앞차기와 주먹의 소나기 공격...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지른다. 정말 맞지않으려면 도망보다 막기를 철저히 하고 시선은 상대편 눈을 그리고 상대보다 더빠른 속도로 발을 차야하며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스를 기다렸다.

일찌기 兄으로부터 배운(63년) STEP을 경험

하게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발을 차겠다는 자세로 움직였다. 아니나 다를까, 공격자는 공격이 곧 방어지만 차는 순간에 가장 취약한 찬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뒷차기로 뒤로 나가면서 힘차게 벌어 찼다. 느낌으로 발의 뒷꿈치가 명치에 닿았다. 그 순간 선배는 넘어져서 뛰우는 것이 아닌가 잠시후 이병로 사범님이 오셔서 인공호흡을 시킨다음, 겨루기를 그만하라고 인사를 시키신다. 나는 미안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선배입장에서는 창피하고 기분이 안풀려서인지 감정을 앞세운 흥분된 목소리로 다시금 겨루기를 하자고 하여, 또 겨루기는 시작되면서, 앞, 뒤, 좌, 우를 맞아 시커멓게 멍이 들고말았다. 이정도되니 선배는 그만하자고 하면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장문을 달없이 나가는 그 모습은 진정 무도의 선배인가 반문하고 싶은 날이었다. 그날은 온종일 파—스와 안티프라틴을 벗삼아 지냈다. 하지만 내가 연구한 뒷차기의 위력을 과시하고 적정됨엔 새삼 회열을 느꼈다.

나에게 새로운 발차기가 생긴 것이다. 그후 1970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3학년 편입과 軍 문제를 놓고 軍에 지원 3대 1의 경쟁을 해치고 제 3사관학교에 입교명을 받았다. 이렇게 되니 태권도와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치체(약 8주후)가 실시되면서, 조조체력단련, 자유시간, 맨발로 자갈밭걸기훈련 수영 시간 후에 태권도를 指導하게 되었으며, 추운 영하 10°~18°C속에서도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 체력단련으로 태권도를 指導하게된 생도시절, 모든 동기들에게 국기 태권도를 통한 전전한 肉體에 전전한 精神을 갖도록 굳은 意志를 보여준 한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時間도 화살처럼 지나가고 1971년 7월에는 소위로 임관하여 발령을 받은 곳이 가장 막강한 정예부대, 소위들이 전전공군하던 특전사 제 1공수단에 命을 받은 것이다.

정말 그때만 해도 모두 무서운 부대에 알려져 있던 때였다. 배치를 받고 바로 오후에는 ③대대 ⑥중대 소대장으로 명을 받았다. 다음 B.O.Q.

(독신장교숙소)에 모두 숙직하면서 출근하라는 명령속에서 몇일이 지났다. 퇴근후 몇몇 동기는 밖에도 나가고 당구도 치고 술도 배우지만, 나는 이 많은 將校속에서 무엇인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느꼈다. 그때 그날부터 남들은 놀아 술먹을때, 나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 30분까지 4km를 달리며 발차기 지르기 막기 STEP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하고 7시 30분에는 부대에 출근하였다. 이렇게되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 운동을 안하는 날은 무엇인가 잘못된 느낌의 습관이 붙어 눈이오나 비가오나 운동은 계속되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며 약 5개월된 어느날 부대 체육의 날 행사 시간에 우리 대대에서 제일 태권도를 잘한다는 김한수 중사(3단)가 사병들과 간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난때없이 키가 큰 이중사가 다가와서 김중사에게 겨루기를 하자고 신청을 하는 것이다. 듣고 있던 김중사는 “좋다”하며 두사람의 겨루기는 연병장에서 시작되어 공방전과 난타전이 계속되다. 키 큰 이중사가 쟁쟁증증 뛰다가 앞차기를 하는 순간 김중사의 묘기인 회전차기가 이중사의 앞면을 강타하고, 이중사는 땅에 넘어져 사지가 뒤틀리는 것이 아닌가 잠시후 인공호흡과 맞사기를 하여 깨어난 이중사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만졌다.

자만과 방심, 키 큰것의 장점을 최대로 못살린 이중사의 패함이 아쉬운 느낌이었다. 마침 대대장님이 단본부에 다녀오시는 길에 競技를 보시고 “야! 허 송소위, 너 한번 해 보아라”하시는 게 아닌가, 정말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명령이니 못한다고 말할 수 없지않는가? 누구앞에서 評價받는 자신의 모습이 싫었던 때다. “저 몸이 불편합니다. 다음에 하겠읍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보호대 호구를 가슴에 찼다.

2주일후에 태권도가 전투력 측정과목으로 채택된 터인지라 김중사는 대표선수를 데리고 품세, 격파, 겨루기를 매일 매일 하던 때였다. 만약 이 겨루기에서 내가 잘한다는 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망설이다 軍隊는 結果다 오직 승리뿐이다. 시합은 시작되어 지르고 차고 서로

열심히 하였다. 강한 투지와 체력으로 다져진 특전사 용사다. 김중사보다 낡은점은 STEP과 동격평행이 잘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투지와 정신은 내가 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중사의 단점은 좋아하는 발차기 남이 멋있게 보이주는 회전차기를 차는 것이다. 발이 땅에 닿음과 동시에 몸은 날려뜨면서 뒷차기를 시도하였다. 이 순간 격중되어 상대편 명치에 적중한 것이다. 김중사는 한방을 맞은후 들것에 실려 의무대에 가케되었다. 징전 난처해져버린 나는 어쩔줄모르고 있을때, 대대장님은 “됐어” 오늘부터 대대 대표선수를 양성하여 우승하라! 는 명을 받았다 명령이 떨어지후 계획을 수립하려니 참고서도 없고, 어떻게 운동시켜야할는지 막막하던중 육군대표선수 16명이 우리 단에 파견나온 것이다. 쫓아가서 코치에게 훈련계획서를 달라고하며 물어보았으나 아는 바도 없고 계획서도 없으며 시간표만 있을 뿐이었다.

정말 대표선수를 양성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다. 할 수 없어서 밤새도록 계획을 수립, 아침준비운동 30분, 오전운동 3시간, 오후운동 3시간 이것도 부족하여 저녁식사후 1시간30분, 정리운동 30분등 8시간30분의 장시간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행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5명의 선수중 매일 매일 환자만 늘어가는 것이다. 이유는 먹는 영양분이 실제 운동하는데 소모되는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운동을 많이 시킴으로 환자가 발생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을 논의한 결과 대대장님은 더 많이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즉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시간을 작성 조조운동 40분, 오전운동 2시간, 오후운동 3시간, 야간운동은 잘안되는 자만 특별히 하도록 수립하였다.

이 시간표를 이용한 후부터는 환자도 없고 실력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시간이 지나고 이주일후 대대 대항 태권도시합이 봉화관을 요란하게 만들었다. 초조한 시합결과는 4대6으로 우리의 패배로 2등에 그쳤다. 또 군에서 첫작품이 2주일동안(약 8일운동)의 은혜달은 좋은 결과다.

2대대는 대표선수(단체대표선수준)를 폴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敗者は 아무리 훈련연습을 열심히 하였어도 말할 수 없는 병어리 냉가슴이 되었다. 시합이 끝나고 귀주명을 찾고싶은 그때(선수이며 코치였던 시절) 기합을 각오하고 가서 신고를 하니 의외로 대대장님은 웃으면서 잘 싸웠다. 열심히 싸웠다. 목욕시키고 식사하고 오라”는 말씀, 패자에게 새로운 각오를 심어준 채적... 이런 따뜻한 속에서 충성심과 용기는 증진하여 다음해 전투력 점점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대대를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날렸다.

1972년에는 중위로 진급하여 부대에 열심히 근무하던중 제 7회 대통령기 쟁탈전에 출전하는 육군 B팀을 공수단에서 뽑게되었다. 이때, 나는 지명선발되어 육군 B팀의 일원이 되었다. 이때 B팀의 멤버는 심영근, 김정길, 김중수, 강무훈 5명이 선발되어 합숙을 하게되었다. 우리 공수단은 1968년도 대통령기 쟁탈전에서 약간의 소란을 피운 사실로 출전정지를 받아 경기에 임하지못하다가 처녀출전하게되어 우리 B팀은 우승은 커녕 예선 통과만을 기대하며 대우면에서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래서 강무훈과 나는 월급을 모아 류리닝을 맞추어 입혔다. 그리고 선수들 전원에게 정신교육으로 지금의 서러움, 친대는 오직 必勝하는 것만이 지금의 미흡함을 달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A팀이 쉬고 놀때 열심히 차고 자르고 단련해야 된다. 뭐자, 뭐어...장충체육관의 시합장에서 무엇인가 보여주자 실력을... 드디어 시합날이 돌아왔다. 처녀 출전한 우리 B팀에겐 관심도 없고 A팀과 해병대의 대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첫대전에서 대학별인 동아대학을 3대1로 이기후 5년일승한 해병대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산중의 산이다. 그렇지만 호랑이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든지 보든지 한다 우승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번 시합을 결승전으로 생각해야 한다.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우리 모든 선수는 다짐하고 다짐하며 출전하였다. 점심은 간단히 한공기씩 먹었기 때문에 가볍게 몸을 풀고 땀이 나올때까지

취고 출전하였다.

내가 선봉 사기를 좌우하는 자다. 상대팀은 막강한 선수 라종열군이다. 그와 나는 선후배지간이지만 지금은 실력대 실력의 대결 이기느냐 패하느냐는 갈릴질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1라운드에서 앞차기로 1점을 뺏겼다. 2라운드에서 방싯한 틈을 타서 30초를 남기고 앞차기를 하는척하다가 끈게 울려 떨어 상대의 턱을 명중(얼굴 2점, 몸통 1점)시켜 2:1의 점수차로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승부의 채점은 시간을 끌더니 비깅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때만해도 해병대팀을 무시할수 없는 터였다. 두번째 전위는 나가자마자 이상철(해병대)을 업어치기로 던져 반칙패를 당했다. 3번째는 우리가 이기고 후위도 우리가 이겼으니 주장은 우리가 패해 그만 2:2동률, 주장게임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양쪽팀 응원석은 요란한 가운데 우리팀은 내가, 상대팀은 작년 개인 특기상을 받은 이상철군이 출전하였다. 이군과 내키는 6cm차이로 내가 훨씬 적었다. 1m73cm대 1m79cm의 대결이다. 그렇다면 이 키 큰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차기전 차고 나오는 빠튼속도가 필요하다 거리를 주지말자 상대편 눈을 바라보며 STEP을 밟자고 다짐하며 1라운드에 들어갔다. 예상했던대로 상대는 발이 길기때문에 차기전 들어가서 점수를 앞차기로 차고 뒤로 빠지며, 계속 같은 방법을 했다. 가끔 한번씩 주먹, 뒤차기로 공격상대를 혼란시켜 제대로 나에게 공격못하고 후퇴전을 마쳤다. 시합은 끝났다. 오직 우리팀의 승리를 확신했으나 시간이 지체된 판정은 비깅이 나왔다.

어이없는 상황에 두팀의 응원석은 요란하였다 우리 두사람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내가 제비를 먼저 주울수 있었다. (상대는 가위, 나는 주먹)주심은 종이를 준비하여 동그라미를 그린다음 공중에서 땅에 던진다. 한장은 내앞에 한장은 상대편선수의 발앞에 떨어졌다. 설레고 망설여지는 추첨, 정말 어떤것을 집어야 하는지...승리의 종이는 어떤것인지... 잠시 눈을 감고 생각

끝에 복은 거져 들어오는 법은 없다. 상대편 발앞에 있는 종이를 주어 보지도 않고 주심에게 전내주었다. 그리고 우리 응원석을 바라보았다. 마침 우리 응원단의 소리가 더욱 커질것을 느끼면서 주심은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승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5년의 전봉 "음식을 먹고 목에서 넘기느냐, 안넘기느냐는 순간" 즉 3년에 한개씩 우승기를 가져가도록 되어있는데 그만 못가져가고 OVER EAT를 하고 만것이다.



우리 B팀은 다크호스로 등장, 사기는 증천되어 다음 게임에서 한양대를 3대1로 그리고 최종 결승전에서는 A팀을 3대 2로 물리쳐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진정 탐과눈물 그리고 피의 결정체였다. 노력하면 된다. 남들이 놀래 뛰고 노력한 자의 댓가이다. 이번 경기로 한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의 주축이된 나에게 최고의 영광인 개인특기상과 우승 트로피, 우승기를 받아 대대장님의 차에 타고 강릉체육관에서부터 시청앞을 경유하여 신촌까지 카퍼레이드를 한 삼박힌 제 7회 대통령기쟁탈전이였다. 이렇게 뒤편 근무하

면서 저녁에는 혼자서 운동하며 뛰고 또 뛰었다. 그 보람과 맘의 결정체는 제 1회, 제 2회 참모총장기쟁탈전의 우승과 라이트급 1위를 한바 있고, 1975년에는 처음 유럽에 원정 서독,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을 다니면서 친선경기와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그해 제 2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웰터급에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출전하여, 바테인, 싱기폴유고, 자유중국선수와 겨루어 당당 우승의 영광과 체육훈장 기린장의 댓가, 다음 2년후인 1977년 제 3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미들급에 국가대표선수 주장으로 출전(미국, 시카고)미국 구경과 대형선수들과 우리들의 입장에서 훈련방법을 대조 겨루었으나 아직 우리의 기량이 앞서 1위의 영광을 안았으며 귀국후 청와대 초청을 받아 다과회와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았다. 이러한 영광은 언뜻 생각하면 말하기 쉽다 간단할것 같으나 남이 놀고 술먹고 담배피울때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을 활용 여러시간에 운동하고 땀을 흘려 꾸준한 노력의 열매임을 말하고 싶다. 고생끝에 나이라는 말의 표현이 어물릴것 같다.

2. 외국에 나갔을때 지도자의 자세는, 그냥 목에 힘만주고 선수와 감독의 차이는 과연 서울과 부산이어서야만 옳은가, 외국에 나가서의 식사문제는 선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저 선수가 알아서 운동하고 알아서 뛰며 알아서 한다고 다되는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보며 선수의 영광은 손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선전을 거쳐 본선, 본선을 거쳐 합숙. 합숙을 거쳐폴리그에서 최종 선발전을 거쳐 일인자로 뽑혀 해외로 나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등 국제경기를 갖는 선수들에게 과연 어떤 기술개발을 시켰으며 어떤 방법과 어떤 훈련을 시켜주었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발표한 이가 없다. 우리는 중주국비선수도 선수를 위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선은 지금까지의 내용은 선수가 되어 피와 맘의 결정체와 영광속의 그늘을 설명하였고 이제 선수를 떠나 指導者로서 해왔던 바를 論하고자 한다.

1980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 1회 국제 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CISM)를 11월 강릉체육관에서 하도록 계획되어서 준비위원으로 국방부에 파견되었다. 나에게 주어질 임무는 선수의 선발과정에 있어 훈련과정, 경기실시와 해산단체까지 주어졌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군인장에서 선수생활, 보병학교, 교관생활을 통한 태권도 분야에서 기초훈련으로부터 계획적인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쟁가 소수에 불과하며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선수권대회에 2회이상 출전하고 우승한 고단자(6단)는 본인뿐 이라는 장점이 선발된 중요 요인인 것 같다. 본인의 사명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론을 토대로하여 새로운 훈련방법과 소령감독으로서 선수를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계획에 임했다. 첫째는 전반적인 계획수립, 둘째 기술개발, 셋째, 영양관리, 넷째, 정보수집 다섯째, 선수의 장단점을 위한 V.T.R 시청 여섯째, 짜인방법등을 큰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 확보이며 이때 새로 개발된 대가상사에서 주문한 오뚜기인형백을 특별주문 만들도록 하였다(180cm정도). 둘째는 선수선발전을 개최하여 1, 2등, 20명을 육·해·공군중에서 선발하였으며, 효율적이고 국가 대표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외적인 신경을 선수전원이 건혀 쓰지않도록 태능선수촌을 입촌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촌장님의 태권도 인식 부족으로 거절당했다. 나는 신념이 있다.

선수들의 영양섭취는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 그리고 과학적인 훈련을 위해서 꼭둑어가 야 된다고 설득과 이해로서 촌장님의 원고한 고집을 꺾고 선수촌 전진판 201호부터 205호까지 5개방(1한방 4명씩)을 할당받아 입촌한 8월 20일은 매우 뿌듯한 긍지를 가졌다. 입촌후 다음날 계로 훈련과정에 있어서는 태능선수촌 강화위원회의 시간계획과 혼합하여 태권도훈련에 맞는 시간표를 일주일씩 작성하였다. 그후런시간계획 첫주는 06:00에 기상하여 06:10~07:30간 점호 및 조조훈련을 하고 07:30~08:40간 조식

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음 10:00~12:00까지 오전훈련(기초체력단련), 12:00~13:30 중식, 15:18:00 오후훈련(순환운동), 18:30~19:30 석식, 20:00~21:00 정신교육(태권도인의 궁지) 21:00 22:00 자유시간, 22:00 취침하도록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감독은 새벽 05:50분에 복장(츄리닝)을 갖추고 연병장에 선수보다 먼저나가서 서있으면 선수는 모든 복장을 갖추고 모포를 정리하고 연병장에 나오는 시간을 06:10에 완료되도록 하였다. 이때 주의사항은 습관적인 생리작용인 화장실 가는 문제는 매일 기상과 동시에 가도록 하였으며 시합 1주일전에는 체중조절을 요하는 자에 따라 감량자는 기상과 동시에 화장실에 가도록 하고 증가자는 12시쯤가도록 습관을 고쳤다. 이렇게되면 06:10분에 모두 집합이되고 집합이 되면 보고를 코치로부터 받고 그날의 훈련을 설명해 주며 특히 400m트랙을 첫날은 3바퀴 다음날은 한바퀴씩 증가를 시키며, 3분빨리뛰고, 4분서는 동작을 4회이상-8회까지 실시하였다. 이훈련방법은 공용대박사의 전산과관계되는 것으로서 시합전 중요한 범위를 차지한 방법이 었다.

또 100m달리기를 2회씩 실시(우리선수의 평균은 13초 5를 마크하고 특히 잘하는 선수는 12초 5(김정국, 임대택)가 나타나 이 두 선수는 국제대회출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도 뛰어보니 12초 5를 돌파할수 있었다. 선수에게 매일 달리기를 하면서 특히 100m를 12초 5를 돌파하길 요망했으나 마지막 퇴촌하는 날까지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따라서 우리 태권도 선수의 구비 조건중 12초를 돌파한다는 꼭우수선수의 자질이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달리기는 모든것의 기본요소이다) 그리고 지그재그 등진고 넘기 넓이뛰기등 다양한 방법을 마치고 시합발차기를 마추고 한다음 정리운동을 5분간 하는 것으로 조조운동을 실시하였으며 오전훈련은 기초체력단련으로서 유연성(복근운동) 순발력(돌잡고뛰기) 반동력(트랩프린) 민첩성(100m지그재그) 지구력(100m~1,500m달리기)

등을 실시한후 각 선수의 소속팀에서 잘못된관된 동작을 우선 교정토록하면서 SPEED와 POWDR적인 발차기를 하였다.

오후운동인 순환운동은 1. 손질고 없드러얼어나기(20회부터 증가), 2. 계단오르내리기(10회 이상) 철봉턱걸이(20, ) 무릎굽혀펴기의 5종(20회)등을 훈련하였으며 발차기는 기본적인 것등으로 1주일은 교정과 기초체력을 실시하여 각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여 2주부터는 새로운작으로 장점보강, 단점은 엄한벌로서 깊은 자극을 느껴 고치도록 하였다. 선수들의 영양섭취문제는 3,500칼로리~4,000칼로리가 정량이나 우리는 6,000칼로리를 섭취한것이다. 메뉴표는 선수수준 영양사가 짜준것이였으며 그중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유와 과일은 빼놓지않고 먹였으며 계절에 맞는 과일을 먹고 훈련하니 선수의 사기는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훈련을 즐거운마음으로 부담감없는 입장에서 오로지 운동만을 좋아하도록 보조운동으로 특히 날씨가 좋지않은날등 지루감이 일고 실일이 날때는 스케이트 대표선수들과편을 갈라 축구·배구·농구등을 실시하였고 당시 최태진 주니어배구 코치로부터 에어로빅댄스를 배워서 몸무는 운동을 우리태권도에 맞게 수정운동하므로써 모두 운동에 흥미와 권태를 없애고 열심히 할수있었으며 여름에는 토요일오후를 이용 수영을 시켜 전신운동도 하게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거루기를 타선수를 불러 시합을 시키며 무비카메라로 촬영 일주일후에는 VTR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직접 느끼도록 보여주어 지금까지 선수의 불충분한 이해를 빨리찾는 방법을 제공 자기자신의 습관적인 발차기의 잘못된점과 잘못된점을 분석,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여 감독인 내가 평가를 해주도록 하므로써 선수와 감독은 항상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니 모두 피부로 느끼는듯 하였다. 또한 틈틈히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폼세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 정신교육으로서 선수자기가 열심히하여 우승한다는 것은 감독만 위하는것이 아니며 오로지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위한것은 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또 국가에 공헌을 하여 훈장을 받게된다



는 기본적인 정신을 고취시켰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합장에서 코치가 떠들며 발차기하라 열차기하라고 지시하는 것보다는 정중하고 진지한 시합의 분위기를 잘 조화시키면서 필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싸인법(SIGN)을 창안하였다. 이 방법은 일명 OND, TWO OPERATION이라 칭하고(하나, 둘 작전) 이는 즉 상대는 I.Q가 120이고 우리는 두사람으로서 I.Q 100+100이면 I.Q 200으로서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수와 Coach는 일심동체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이 방법의 승패는 항상 같이 훈련한 가운데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을 일동작 페인트검으로 주먹지르고 상대가 들어오면 발차고 상대가 도망가면 따라가 뒷차기, 이렇게 동작을 온종일 반복과 반복으로 소화시킨다음의 돌동작을 시켰다. 돌동작은 주먹지르기하고 뒷차고 앞차기동작 이동작도 잘되고 각자 소화시키면 제 3동작 내려막고 뒷차기동작 4동작(창안) 몸통회측 5동작 페인트하고 앞차고 회측 상대가 공격하면 아래막고 주먹지르고 6동작 페인트하고 얼굴내려차고 뒷차고 주먹지르기 7동작 제자리에서 아래와 얼굴을 막고 앞차기(접촉시) 8동작은 얼굴내려차고 회전하여 얼굴내려차기등 자기가 판단 상대선수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때 특이한 발차기로서 공중에며 체공상태에서 착수있도록 여러가지 변형동작들을 훈련하였다. 여기서 특이한것은 부단한 반복이 필요하며 왜 이렇게 연결하여 차는가를 설명해 주고 숙달될때까지 실시한후 다음단계는 의식적인 훈련에서 무의식적인 단계 즉 잠재의식속의 발차기로 바꾸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잠을 깊이자고있던 선수를 갑자기 깨워서 하나(일)라는 구령속에서 동작을 취하도록 반복 1달후 실습하였더니 10명중 2명밖에 안되였다. 그러나 "하면 된다"라는 신조를 갖고 시합전까지 실시하여 결과를 8가지에서 4가지만을 (1, 2, 4, 5)실효를 보였고 나머지는 끝나고서 혼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속세로 남겼다. 이러한 훈련후 선수들의 취약점인 Speed와 근력

POWER가 부족하고 시합중 빨리 지치는 것을 막기위하여 우리 태권도 선수가 누구나 망설이는 WEIGHT TRAINING을 시켰다. 그리고 Circuit Training을 시킨것이다. 처음엔 중량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차차 풀려 많은 SPEED POWER를 얻었다. 이런 훈련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썬킷츠와 W/T는 적일제로 1주일안에 2번내지 3번씩 실시하였다. W/T는 최초 태능선수촌 최항기 선생님지도도를 받았다.

1. High Pull-up(높이풀어당기기)25kg 10회 (매일 증가)
2. Two-Hands Press(두세 밀어올리기)몸무게 1/3 10회
3. Bench Press(드려누워 바벨밀어올리기) 체중의 1/2 10회
4. Bont-Over(허리굽혀 노젓기) 체중의 1/2 10회
5. Side-to-Side Bend(옆으로 허리굽히기) 10 ~12 1/2kg 10회
6. Foward Leg Raise (none) (앞으로 다리켜들기) 5단계부터
7. Squat(중량예고 앉아일어나기) 체중의 1/2 kg 12회
8. Sit-up(웃몸일으키기) 5K 15회
9. Tal-Raise(발끝 쳐들기) Body W.T 20회

이러한 운동시에는 필히 조련생 2~3명씩 편성하되 순환을 시켰으며 끝난 다음에도 근육수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봉대에 30초이상 1분씩 매달리도록 필히하였다. (단, 시합 10일전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

#### C/T

1. Twist Sit Up 30초동안 20회씩
2. Push-up Toes or Box 30초동안 20회
3. Back Extesion 30초동안 20회
4. Squat Jump(역기들고 실시) 최소요망
5. Prone Log Raise 30초동안 20회
6. V-Sit 30초동안(속도를 빨리 요망)
7. Side-Step 1m 1m 30초동안 60회이상 합격
8. The Jeep 30초
9. Squat 30초

위의 종목은 매일 하는 것보다 하루씩 격일로 하였고, 조편성을 하여 한사람 Time을 재주고 기록하고 다른사람이 실시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 Power는 첫째 강도(얼마나 무겁게 하느냐) 둘째는 시간(몇분동안) 셋째는 빈도(자주치수 실시)의 原理를 터득하게 되었다. 끝으로 출전하기전 선수들의 문제점인 체중조절 문제는 매일 자신이 그라프를 그리도록 감독함에 커다란 그라프종이를 붙이고 기상하여 조조운동을하고 몸무게, 아침식사후 몸무게, 증식전, 운동후, 석식전, 석식후 몸무게를 체크해보니 1~1.5kg까지의 격차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운동을 많이 할경우 염분이 빠진상태로 1.5kg이 빠지는 것을 느낄수 있으나 시험 1주일전에는 0~0.5kg의 격차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잘 안빠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균의 박형철군은 3.5kg을 빼야되는데 1kg을 남기고 한증탕에 가서 뺄수있었다. 이유는 경상시 몸무게를 빼고나서 틈틈히 면회오는 편에 간식을 숨겨놓고 잠잘때에 먹은 사실을 비추어보아 선수와 감독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점, 특히 선수의 부단히 참고견디는 힘만의 달성될 수 있고 2주일전부터 거의가 완전히 조절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훈련을 모두 마치고 시험장에 임하였을 때는 책임자(감독, Coach)는 물수건과 물파스, 물주전자(미지근한물) 꿀, 설탕물 초시계를 준비하고 사이다, 풀라는 당분기운이 있어 제외하였다. 시험전에는 육수물을 먹도록 권장하였고, 시험에 임해서는 라운드에 들어가기전 모든 사항을 말보다 종이에 메모하여 기억을 상기시키고 시험중 생각이 잘 안나고 당황될 때에는 Coach를 보도록 주입시키고 입장시킨다음 감독은 상대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싸이울 우리선수에게 보내면 선수는 1의 찬스~8의 찬스까지 비교적용시킴으로서 우승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또 선수가 잘할수 있는 내용등을 자신이 노트하여 감독에게 주어 라운드가 끝나고 들어와 한번쯤 보고들어가면 더욱 좋다) 이번 CISM경기중 특기할 점은 4동작으로 KO를 임태백군과 김정

국군의 다수가 적중시킴은 큰수확을 얻었다. 라운드마다 휴식시에는 앉아서 쉬도록 하고 필히 종아리땀사지와 수삼리 족삼리등 부위를 지압해주며 호흡은 들어마시고 내뿜는 동작을 3회이상 필히하여 주었다.

이외에도 많은점이 있으나 언급을 피하고 다음은 외국선수와 여러차례 시험을 통하여 금번 CISM경기에서 느낀바를 나열하자면 첫째 우리 선수의 Speed와 기술은 월등하다. 그리고 시험의 요령이 우위였으나 외국선수의 신장과 체력의 우위를 뒤따라 가기가 매우 힘이 든점이고 우리는 누구하나 무비카메라로 경기장면을 찍은 자가 없으나 외국선수는 거의다 우리들의 장단점을 기록해가며 무비카메라로 촬영해버리는 자세는 징정 필요한 시험에 우승이 우려된다. 만약에 내가 외국선수를 양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첫째, 상대가 차기전 긴다리로 하단을 누르고 얼굴이나 몸통을 차도록 훈련(이중발차기와 주먹지르기동작) 시킨다면 매우 겨루기에 어려운 적수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의 보안상 제외. 이 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중국이라는 점만 앞세우고 교육적면이나 받아들이는 자세가 동떨어져 있음을 또한느꼈다. 그러나 이번 CISM시험전후의 선수와 감독 Coach는 일일동체가 되어 우승의 영광을 얻었으나 훈장을 받을 수 없었음이 못내 아쉽다. 시험결과 우승자에게는 포상조치가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끝으로 몇가지 정리한다면 선수가 되기전에 사람이 되고 선수와 감독은 "하면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피와 땀과 노력의 결정만이 우수선수를 만들며 특히 판정에 대해서는 간혹 지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시키는 Coach나 감독 그리고 선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만한번도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실력으로 이겼는데 졌다고 생각되면 오로지 KO로 이기겠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시험해 왔다. 감독이나 Coach의 입장에서 명정을 갖고 명철한 판단속에서 시험에 임해야되겠다.

운동중에는 감독이다. Coach하다고 목에 힘만 주며 물먹여라는 명령식보다는 선수와 Coach의

마음이 일치되어 서로 아끼고 서로 위로하고 선수의 애로점을 찾아 해결하고 선수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주입시키고 틀이 있으면 유명한 체육박사들의 논문집이나 또한 상면하여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며 필히 치밀한 계획과 각 선수들의 자력표를 작성하여 다른 Coach나 감독이 맡아 키우는데 자료를 제공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항상 감독은 선수들을 한장의 화폭에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그림을 그려나갈려면 준비운동등 기초체력을 중요시하고 겨루기(경기장)에 직접 임해서는 싸인법을 할수 있도록 혼연일체의 호흡으로 작전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항상 Coach나 감독은 모범적인 행동을 잃지말아야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우리 태권도가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가입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하고 전전공공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제점과 대책

문 제 점	대 책
1. 중주국으로서 기술지도 지침서가 없다.	1. 빠른 시일안에 지도자의 지침서가 편집되도록 체육학 및 교양부문의 석학들을 참여토록 한다.
2. 태권도의 홍보활동 부족과 대기업주의 실업팀 창단이 없다. (성인은 하지도 않고 선수의 수명은 군에 다녀오면 소멸)	1. 단체전을 부활 자기업체에 태권도를 하는 홍보조성 2. 실업팀이 나오도록 연맹결성이 촉구 홍보장려
3. 기술적인면 (겨루기)을 위한 기구 및 용구가 개발이 안된 상태이다.	1. 고정된 발차기를 피하고 상공에 떠서 할수있는 발차기 기구를 개발 지원하고 호구및 보호용구를 개발 교체 자타가 인정토록 제작
4. 유비무환의 자세부족	1. 외국에 나가는 선수들 B급으로 교체 A급을 아끼고 외국 여러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어 관심을 촉구시킨다.

5. 선수들의 영양문제 훈련장 문제해결 미흡	1. 태권선수층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쪽보다는 국가원의 시설을 보완 (숙식제공)
6. 지도자의 자질을 높이고 감독, 코치는 적임자선발 자격기준 설정 미흡	1. 나누어먹기식 지도자 선발을 피하고 훈련방법요령 기술등 논문제출후 선발

이와같이 지금의 느낀 나의 견해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중주국이라고 자부하기 보다는 자라는 뿌리부터 튼튼히 양성되도록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품세와 겨루기를 가르쳐주고 중고생은 중고생에게 맞는 겨루기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개별시켜서 정확한 동작부터 가르쳐 주므로서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의 금메달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렇지않고 겨루기요령부터 가르쳐준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태권도도 일본의 유도와 같은 전철을 밟지말라는 법이 어디있겠는가고 생각된다.

우리 일선에 있는 태권도인 지도자 모두는 이점을 통감하여 하나라도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갖고 선수 하나하나에게 심혈을 기울여 대표선수를 양성할 때 적용, 성과분석, 선수의 장단점을 종합, 감독의 심사숙고한 평가속에서 진정한 중주국의 국가대표선수를 양성하고 있다고 앞장서서 논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선수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위협에 모두 유비무환의 자세로 서야되겠다.

### 경 력 서

성 명 :	허 송
생년월일 :	1950년 11월 8일생
75. 9. 30.	체육훈장수상 기린장 89
77. 12. 26.	체육훈장수상 백마장 77
80. 8. 30.	제 1회 국제군인체육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
실 적	
72. 5. 18.	제 7회 대통령기경탈전 단체 1위 개인기특기상 수상
75. 8. 31.	제 2회 제희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1위
77. 5. 21.	제 12회 대통령기경탈전 미들급 1위
77. 10. 23.	제 3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미들급 1위

# 나의 보람 태권도

## 사우디 하도철사법편



세계속에 한국인은 자기앞에 주어진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본인은 한국주둔 미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다가 82년 2월 1일 사우디 육군 전차정비 교관요원으로 사우디 복단 타복이라는 군사지역의 씨알코란 회사에 취업하였다.

타복은 홍해바다를 앞에 둔 작은 군사도시이다.

한국을 떠날 때, 나는 작오를 단단히 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느 곳이고 태권도를 보급하여 한국인의 긍지를 심겠다고 그러나 사우디에 도착하여 보니 회사방침이 입사후 3개월간은 외부활동을 강력히 규제함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달래며 3개월을 보내야만 했다.

본인은, 태권도 사범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머진 기능인이며 특히, 이 회사는 18개국의 기능인이 집결된 회사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내에서 한국인을 인정받도록 하는 방법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다. 마치 각국의 기능인이 모여 기능인대회를 하는 것 같은 상황속에서, 한국인동료 36명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 우리



가 하는 일은 사우디 정규군의 전투장비를 다루는 과정이라 사우디 당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우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인은 오후 2시 일과가 끝나면 동분서주하면서 나의 또하나의 임무가 시작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신장된 국력을 세계각국이 인정하여 86년 아시아게임과 88세계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된 일, 세계 110개국이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KOREA 하면 태권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과 태권도 자랑으로 시간을 보낸다. 18개국 기능인중에는 한국의 6.25동란에 참전한 터키, 에티오피아, 이태리, 캐나다, 미국 등의 용사들이 있어 50년대의 한국을 상상하고 있다가, 본인의 얘기를 듣고 모두 반갑고 놀라는 표정들이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들에게 우리 정부에서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하니 원더풀! 을 연발한다. 본국에 가서 수속을 밟아 아름다운 한국을 꼭 가겠다고, 무척이나 좋아한다. 이런 모든 일들은 본인은 미려하나마 민간교회의 차원에서 국위선양이라고 애써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사람에게 태권도 지도를 위해 매일 5km를 구보한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에게 정성을 쏟아 성실하게 지도를 하다 보니 주위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은 물론, 승용차를 제공하여 주는 등, 관심을 표시하게 되었으며, 본인에게 운동을 지도받는 제자들이 술선하여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금은 육군 병기학교, 타복시 성인태권도부도 개설하였으며, 83년에는 주사우디의국인학교와 사우디 공수부대도 태권도 수련을 검토중이다. 83년은 바빠질 것 같고, 본인은 즐거울고 보람된 맘을 흘릴 것 같다. 짧은 기간이지만 사우디의 생활은 한국에서 미국 군인을 지도할 때보다 더 보람이 있고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진다.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태권도 보급을 하고 하는 그 어느 사범에게도 몇몇몇 맞서 얘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며 태권도 보급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두가 태권도를 스포츠화하여 세계만방에 뿌리를 내리게 한, 김윤용총재님과 세계연맹·협회의 임원들의 노력과 10여년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피땀흘리며 고생한 사범들의 후광이라 생각하며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 해 외 어 린 이 소 식

### 사우디 이 무진 사범



사우디 담맘 한국인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이 11월 4일 담맘경찰국 강당에서 제 1회 어린이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가졌다. 이

날 선수 50여명이 참석하여 미숙한 기술들이지만 열전 하루를 보냈다. 한국교민과 사우디주민 경찰들은 간혹 돋보이는 태권도모기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 한국인학교에서는 이무진 사범이 태권도 지도를 하고 있다. 이사범은 사우디의 아스막스포츠클럽과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인학교 정정환 교장선생님과 권영문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대회가 발전하면 한국어린이와 친선 경기도 가질 계획이다.

일선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는 이무진사범과 적극 도와주신 교장선생님과 경찰당국에 지면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사를 드린다.

# 태순<sup>女</sup>씨

최경철



# 태권도 훈련의 시합용구의 개발

김 일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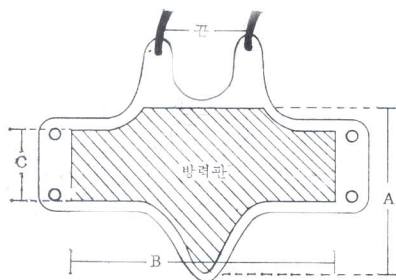
<주>대가상사전투 태권도고단자

태권도 용구 개발의 목적은 태권도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익히고 또한 발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용구 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훈련 도장의 마루바닥을 스폰지등 쿠션 바닥으로 바꾸고 기본 동작으로서 반드시 낙법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집고 넘어가 지 않을 수 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는 공방이 다양하고 위험도가 높은 격기 임에 틀림 없는 사실 인바 그 간에도 동 태권도가 아마츄어 경기로서의 발전과 선수의 기술 향상 및 안전도를 감안한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방향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여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사료되어 금번 다음과 같은 용구들을 일차 개발하여 감히 발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응고와 지적을 주시면 앞으로의 연구 개발에 더없는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오니 계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몸통 호구(Trunk Protector)

7. 형상 및 구조



## L. 사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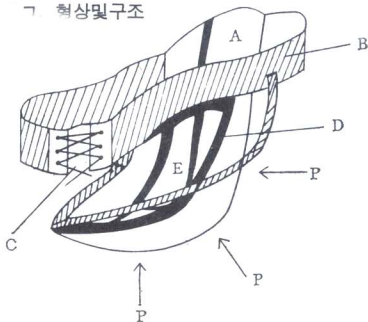
전면 및 측면 몸통(목밑흉부부터 하복부까지와 양 옆구리부)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구측에 방력판(防力板)을 넣어 외부로부터의 집중 공격을 확산시키므로써 공격력을 약화시켜 안전을 기하고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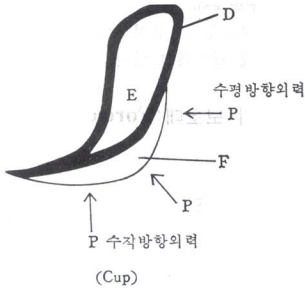
## 2. 안전도가 높은 몸통호구란?

- 방력판 재료  
두께가 10m/m이상, 강도 45°이상 EVA판
- 방력판의 규격(착용시)  
A : 목밑부터 남심골 부분까지  
B : 겨드랑 밑부터 골반의 창자뼈(腸骨)를 5cm이상 덮여야 한다.  
C : 허리(몸통)둘레의 2/3를 에워싸야 한다
- 공격을 받았을시 직경 20cm이상 확산시켜야 한다.

## 2. 남심보호구(Groin Guard)

7. 형상및구조





#### L. 사용목적

“L”字 바가지(Cup)안에 남심을 편안히 넣고 바가지 둘레에 부착된 충격보호 고무스폰지(D)를 도복 바지속 팬티위 사타구니에 딱 밀착시켜 외부로부터의 수평, 수직등 모든 방향의 공격으로부터의 충격을 고무 스폰지(D)가 받아 확산시키고 남심이 직접 받지 않도록하므로써 남심을 보호하고자 함.

#### C. 안전도가 높은 남심보호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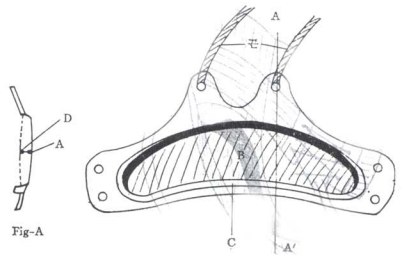
남심보호 Cup(바가지)은 사타구니에 끼워 착용하는 것으로 썩기형 바나나 바가지라야 수직 수평등 모든 방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1. A는 하복부 보호부
2. B는 폭 70m/m의 두터운 고무밴드로 복부의 힘을 더해준다.
3. C는 길이 조절부
4. D는 강도 있는 충격받이 타원형 고무스폰지 Channel
5. E는 남심을 충분히 넣을수 있도록 깊어야 한다.
6. F는 두께 2m/m이상의 나 이롱 W-6 혹은 포리카바 나이트材(압축강도 350kg이상)의 바나나 형태의 컵이라야 한다.

### 3. 여자용 가슴(유방)보호구(Fem-Woman's Chest Guard)

#### 7. 형상 및 구조

##### A-A 단면



#### L. 사용목적

현행 몸통호구는 남자용으로 고안 되었으므로 여자선수가 몸통호구만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이라닐 수 없다.

고로 여자선수는 반드시 가슴보호구를 착용하고 그위에 몸통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여자의 급소인 유방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한다.

#### C. 안전도가 높은 여임용 가슴보호구란?

- A: 방력판(4m/m의 두께의 에크셀전압)
- B: 타원형의 만곡 바가지(Cump; or Chamber)
- C: 완충 쿠션 스폰지
- D: 타원형 바가지의 길이

가슴보호구의 외형 전면은 Fig-A와 같이 평평해야만 상대방에게 안전하며, Cup(바가지)이 유방형상 대로 돌출되면 상대방의 손목 혹은 발목을 뺨 우려가있다. 착용시는 가슴의 그 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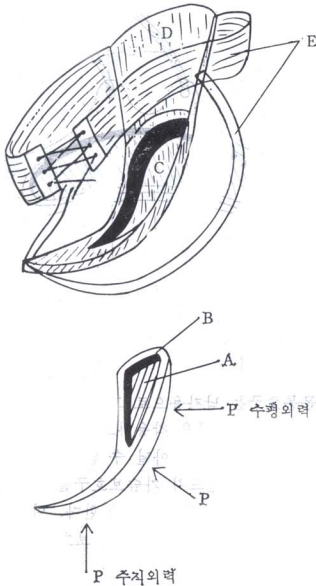
## ◇ 태권도 연구 ◇

(유방)을 안쪽으로 밀어 납작하게 밀착시킨다.

A가 공격을 받으면, P로 전달되어 힘도 유방 바깥 가슴 전체로 확산된다.

### 4. 여자용 치부보호구(Fem-Groin Supporter)

#### 7. 형상 및 구조



#### L. 사용목적

현행 여자 경기에 있어서 치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역시 위험천만한일이며,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갑소 부위이므로 반드시 패티위에 밀착착용하여 보호하고자 함.

#### D. 안전도가 높은 여자용 치부보호구란?

A : 방력판

B : 원충스폰지쿠션(고발포 E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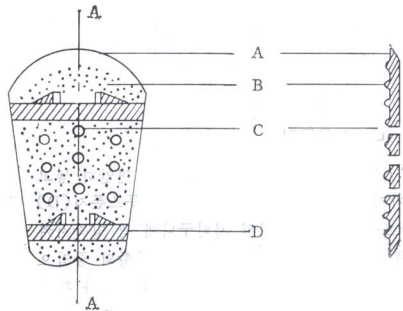
C : 치부를 덮어 받치는 Cup(마가지)

D : 하복부보호대

남성용 남십보호구와 동일하나 약간 구조만 여성에 적합하게 달리하고 있다.

### 5. 팔, 다리 보호대(Forearm/Shin Guard)

#### 7. 형상 및 구조



#### L. 사용목적

경기(겨루기)시 팔, 과 앞정강이의 뼈를 타박에 의한 골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는 스폰지 쿠션.

#### B. 안전도가 높은 팔 다리 보호대란?

A : 10m/m이상의 EVA쿠션, 강도 35°이상

B : 돌기(Projection)는 피부와 접촉면을 적게함.

C : 수평공기구멍(통풍공)

D : 고무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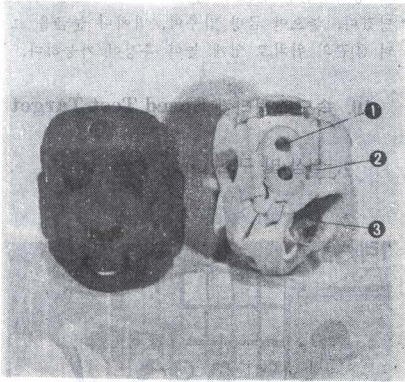
본 용구는 피부에 직접 밀착 착용하므로

1. 땀을 흐르도록 할것(돌기사이로)
2. 통풍을 시켜 땀을 식힐것(공기구멍)
3. 피부와 접촉면을 적게 하기 위해 돌기를 만들어 피부를 마찰로 부터 보호할 것

4. 세척이 용이하여 위생적일 것

## 6. 머리 보호구(Head Gear)

### 7. 형상 및 구조



### ㉔. 사용목적

현행 경기 규정은, 작은 힘으로도 생명에 큰 위협을 줄수 있는 급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면부를 주먹(발기술)로 공격을 허용하고 있음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발공격이 손 공격보다 어렵다 하지만 불가 능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고로 현행 경기 규정으로는 반드시 머리 보호구를 착용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 ㉕. 안전한 머리보호구란?

1. 비껴 맞았을 때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2. 뇌진탕 방지를 위한 머리 전체는 물론 턱 밑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3. 시야가 넓어야 한다.
4. 공기 유통이 잘되어야 하며 피부와 직접 밀착착용하말로 내면은 피부 보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7. 대형뱃 Punching/Kicking Bag

### 7. 형상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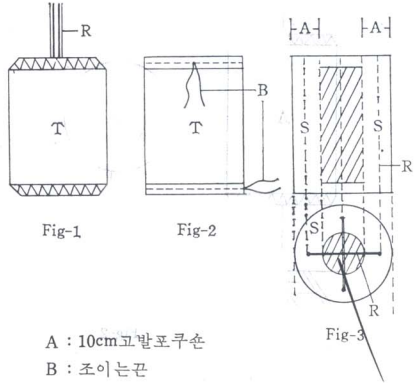


Fig-1

Fig-2

Fig-3

A : 10cm고발포쿠션

B : 조이는끈

S : 고발포스펀지 쿠션원기둥

T : 타포린(천막지) 자루(양쪽이 막히지 않았음)

R : 나이론 로프

### ㉔. 안전도 높은 뱃이란?

중래의 뱃은 자루에다 적당한 충진재를 넣어 사용했으나 계속 사용하면 밑부분은 딱딱하고 중간은 무르고 윗부분은 허공이되어 자루 부분이 터지는 현상이 보통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위험을 주었다.

본 대형뱃은 상기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할 것으로 Fig-3과 같이 고발포스펀지 쿠션 원기둥의 가운데 사선부분이 비어 있어 여기에 원하는 중량 만큼 모래등으로 채워 Fig-2카바를 씌워 Fig-1과 같이 끈을 끼워사용 하면 뱃의 전면이 고르게 같은 쿠션이 유지 된다.

## 8. 소형뱃 Double End Bag

### 7. 형상 및 구조

A : 고발포스펀지원기둥

◇ 태권도 연구 ◇

B : 고무(주부)공

C : 고무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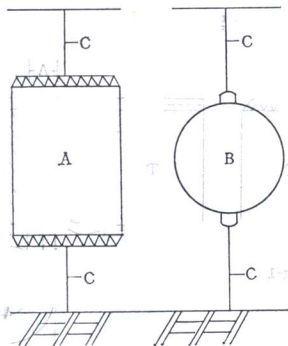


Fig-1

Fi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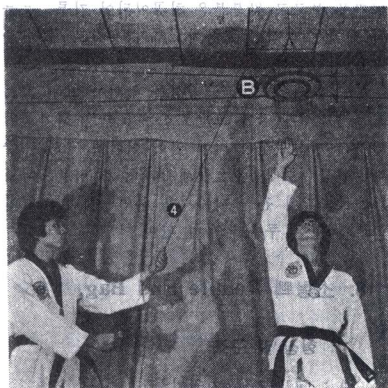
Ⅱ. 사용목적

움직이는 상태로 가상하여 눈과 수기 및 족기의 스피드 훈련을 목적으로함.

Fig-1은 족기용, Fig-2는 수기용

9. 고속타켓 High Kicking Target

가. 형상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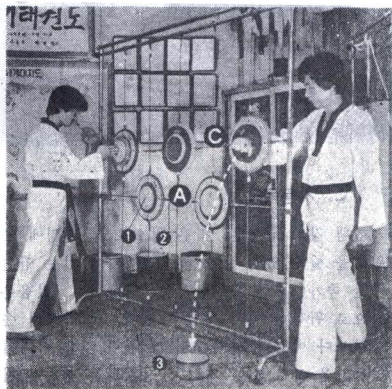


Ⅱ. 사용목적

종래의 방법은 공을 매달아 찧기 때문에 사방으로 흔들림을 멈추기가 손쉽지 않았으나 본 고속타켓은 사방에서 고무줄로 당기고 있어, 찧을 때 상하흔들림 뿐으로 쉽게 멈추나 ④줄을 한번 당겼다. 놓으면 금방 멈추며, 벽에다 눈금을 그려 ④끈의 위치로 쉽게 높이 측정이 가능하다.

10. 속도측정타켓 Speed Test Target

가. 형상 및 구조(C)



Ⅱ. 사용목적

속도격파를 위한

1. 속도훈련
2. 힘의집중(직각방향)
3. 물체의 중심(重心) 찾기 훈련을 목적으로함.

11. 손주먹보호대 Hand/Fist Guard

가. 형상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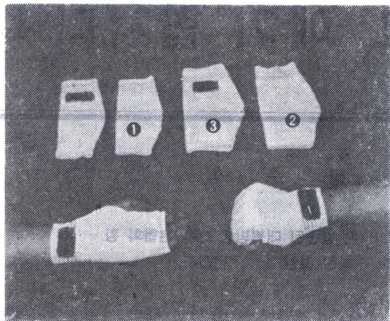
### 나. 사용목적

많은 선수들이 겨루기시에 뿔대를 감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선수들이 여러 게임을 치르며 결승에 오르기까지는 손가락을 많이 빼고 있는 실정이다.

선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볼 문제인것 같다.

붕대대신 본 손, 주먹 보호대를 착용하면 간편하면서 땀을 흡수하며 손목과 주먹을 결박하여 힘을나게 하고 손바닥 앞부분에 짚은 보(막대) ②를 붙여 주먹안의 공극을 없애며 손가락이 빠는 것을 방지하고 손등 앞부분에 ③스폰지 쿠션을 붙여 주먹 표면 및 상대방을 보호한다.



## 태극기의 구성요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를 형성하려면, 첫째 영토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국민이 있어야 하고, 셋째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태극기의 구성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1) 백지(白地)는 영토로, 2) 태극(太極)은 국민으로, 3) 사괘(四卦)는 정부로, 위 세 가지 뜻을 설명하면,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三千里錦繡江山) 하늘높고 땅 기름지고 산 곱고 풍기 좋고 물맛 좋기 때문에 백지를 영토에 비교한 것이고, 태극은 태극 자체가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것이고, 국민은 국가 형성의 모체가 되고, 자율적인 권역과 의타심(依他心)이 없이 자주적(自主的)인 국민이기 때문에 태극을 국민에게 비교한 것이고, 4괘는, 사괘 자체가 춘하추동과 동서남북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정부에 비교한 것이다.



# 터 놓고 얘기 합시다

황 추 성 대한태권도협회  
전 부 이사

▷……이 글은 12월 19일 밤 11시 30분 K.B.S 972Hz로 방송된 대북방송으로 본협회 황……<  
▷……춘성 전부이사가 출연한 방송 내용을 간추려 수록한 것이다. <편집자> ……<

북한에 계신 체육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태권도협회 전부이사 황 춘성입니다. 저는 이번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5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태권도연맹총회에 회의대표로 다녀 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지역 17개국에서 200여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하여 싱가포르 게이 월드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남한은 10체급의 전체급이 참가하여 9체급을 석권하고 1체급을 준우승하여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아시아선수권대회 5연패의 영광을 안고 지난 14일 귀국하였습니다. 이 보다 앞서 12월 8일에 열린 아시아태권도연맹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국 선출에서 우리 남한의 이상주(강원대학 총장, 대학태권도연맹 회장) 박사가 회장에 피선되어 회장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무술인 태권도를 통하여 적극적인 외교기반을 닦아 세계연맹의 회장국이며 아시아연맹의 회장국도 되었습니다. 태권도인의 전당인 국기원을 1972년 준공한 후 이듬해인 1973년에는 제 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세계태권도연맹을 이곳 서울에서 창설하였으며 1975년에는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지난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83차 IOC정기총회에서는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태권도는 86년 서울아시아게임 종목으로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고 88년 서울올림픽에는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불과 10여년만에 우리 태권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스포츠계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인도 뉴델리에서 거행한 제 9회 아시아대회에서는 우리 남한이 금메달 28개, 은메달 28개 동메달 37개를 차지하여 종합 3위를 하여 지난 제 8회 아시아대회보다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체력의 성장은 국력의 성장과 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은 그동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4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개발도상국에서 중공업국으로서의 기반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86년 아시아대회는 물론 88년 세계올림픽도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각종 대기업체마다 체육부를 두어 선수를 육성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직장생활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은 물론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는 사회단체나 국가가 뒷바침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대회에서 남·북한이 획득한 메달수를 합친다면 세계의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민족의 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계신 체육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립독립을 세계민방에 선언

하고 고귀한 선열들의 생명을 바쳐 일제 35년의 암흑에서 해방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고귀한 국권이며 값진 자유입니까? 그 고귀한 國權과 자유를 한민족이 같이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말씀 드리는 심정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비극 3.8선이란 철조망은 누가 만들어냈으며 왜 서로 넘지 못하며 왜 총칼을 겨누고 서로 원수처럼 맞서서 우리 민족의 깊은 아픔을 서로 모르는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만 있어야 합니까?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인도 뉴델리의 제 9회 아시안대회를 남한에서는 위성중계를 통하여 천연색 T.V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南北의 對決 그것도 한민족이 사우스코리아나 노스코리아로 갈려서 외국인들의 관심 속에 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스포츠적인 입장에서 승부로는 이겨야 함이 당연하나 이기고도 웬지 마음이 후련하지 않음은 웬 일인가요? 물론 북한의 동포들도 보셨겠지만요. 외국인들 눈에는 남북의 대결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속된 표현으로 집안싸움을 잘한다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는 여러가지 제의를 수차에 걸쳐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례오르기를 초월해서 무조건적 대화물 조건없는 스포츠 교류, 상호방문, 편지교환 등을.....

그러나 작금의 현실로는 전부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35년간 우리 말, 우리 글은 물론 우리 이름도 마음대로 쓰고 부르지도 못하다가 목숨을 바쳐 찾은 이땅 이民族에게 3.8선이란 철조망이 무슨 일입니까?

스포츠관계자 이전의 인간 황춘성이는 남북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아야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뉴델리 아시안대회에 남북의 메달수를 합하면 금메달 45개 은메달 47개 동메달 57개로 총 149개가

되고 일본은 총 153개로 불과 4개의 차이입니다 저 개인으로는 아니, 남한 국민 전체가 바라는 것은 남북통일이 되어 배달민족의 위대한 힘을 스포츠를 통하여서만이라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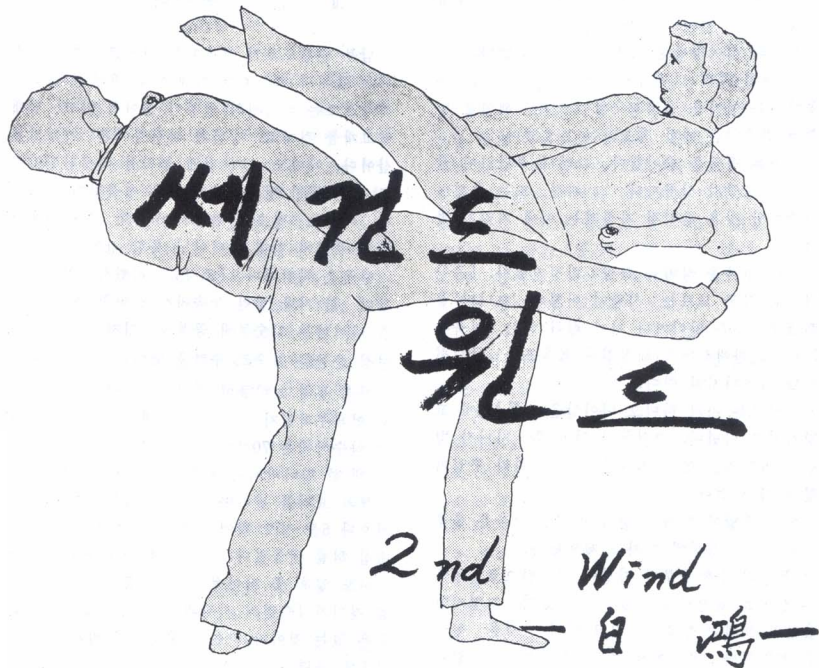
이제 세계는 일일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각종 국제경기로 어느 나라이고간에 서로 초청하고 초청받아 자유롭게 세계만방을 누비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입장을 하여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는 평생 연금을 지급하여 편히 스포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며 이번 뉴델리 아시안대회 때에도 자민간 사회단체에서는 선수들의 응원과 관광을 하고저 수백명이 뉴델리엘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여하고 있는 태권도도 세계 110여개국이 가입되어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교류라면, 제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 도울고 싶습니다. 남한의 태권도 사범들은 세계 110여개국에서 열심히 태권도 지도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얼을 심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얀 도복을 입고 세계를 누십시오. 세계는 공동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공동의 무대로 나오십시오.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 단일민족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꼭 이루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남·북에 얽힌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오는 86년 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에서는 남·북이 단일팀으로 출전, 一民族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물론 배달民族의 힘을 세계만방에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해도 저물었습니다. 닥아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오며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I. 심야방송

내 곁에 와서 누우세요. 그래서 이 밤에 나를 편히 잠들게 해 주세요...

[Come and lay down by my side-so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흑인 여가수의 호느기는 듯한 열창이 심야 FM 방송을 타고 흘렀다. 제약회사의 약품광고, 대입 학원선전, 밤참광고 등 C.M.이 계속 쏟아졌다. 「아예 광고전용 방송을 하나 더 만들던지 제길 헐!」 가라앉은 듯 한 멘트가 나왔다.

「사람은 누구나 어둠을 두려워 하지요. 그렇

지만 밤은 혼탁한 낮의 인간사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일의 희망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신의 은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창 밖에 짙은 커피색깔의 밤안개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밤도 선율과 함께 밤과 꿈을 엮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운상미입니다! 슈베르트의 「밤과 꿈」을 시그널 뮤직으로 깔고서 상미의 속삭이는 「멘트」가 들려나오자 현욱은 뒤통이에 상미의 숨결이 닿는 것 같이 느꼈다. 속으로 제법인데! 한 마디 하고는 탁자위에 두 발을 올려 놓으면서 실수라도 한 건 잡자는 마음으로 라디오를 들었다.

현욱은 상미의 심야방송이 못마땅 했지만 적

막한 겨울밤에 듣는 켈로의 선율은 생존경쟁의  
아수라장에서 한 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순수함  
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다.

상미의 심야방송은 새벽 1시에야 끝났다.

「클래식」부터 「세미·클래식」까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음악을 음대교수의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방송하는 제법 격조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현옥은 음악을 좋아했다. 그러나 부담없이 즐  
기는 정도였지 작곡자나 그 배경, 또는 주제나  
연주기법 같은 음악적 지식과는 아예 거리가 멀  
었다.

그런 현옥을 상미는 늘상 빈정거렸다. 「음악  
의 '음'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모니터'를  
하죠?」 무슨 일이거나 지기 싫어 하는 현옥은  
「디스크」판매점에서 해설집과 목록표를 구해서  
달달 외우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차의 라디오 다이알을 「F.M」에 고  
정시키고 다녔다. 그러구러 달포쯤 지나자 방  
송의 빈도가 높은 인기곡들은 거의 따라 흥얼거  
릴 수가 있었다.

어느 주말에 한가한 상미와 만난 현옥은 충무  
로의 음악감상실에 가자고 제의했다.  
그 동안의 음악공부에 자신이 생겼으므로 현옥  
은 상미를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음악의 세계는 한없이 깊고 넓다는 것을 현옥  
은 절감했다. 베토벤의 천원교향곡까지는 알아  
맞추었지만 들어보지 못한 「루빈슈타인」이니  
「바그너」의 곡들은 그저 들은 체나 할 뿐이었다  
완전한 현옥의 「T.K.O」패였다.

코가 짙어진 현옥을 보는 상미는 연상 쉼쉴  
거렸다. 「이유제강이더니 현옥씨 뻗뻗한 목이  
음악에 부러졌네요!」 나불거리는 상미의 입술  
이 꽃 뱀의 혀같다고 현옥은 느꼈다.

찾길에 서방질한다고 현옥은 톱탕집에서 상미  
가 뱀 계란을 핥듯 먹는 것을 보는데 마는듯 하  
면서 두 마리나 해치웠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 현옥은 귀가 막감도록 「재  
즈」를 들었다.

## II. 약수와 컴퓨터

남부 순환도로가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끝  
나는 좁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우면산이 있다  
서쪽으로는 관악산의 연봉이 높아서 있고 남태  
령고개를 경계로 강남과 과천시 사이를 가로지른  
산이다. 아마도 소가 길게 누워서 되새김질이라  
도 하는 듯한 형상이라고 지은 이름일지도 모른  
다. 아몽든 태초에 관악의 우람한 지각변동이  
끝날 무렵에 막내로 태어난 듯한 산이다.

현옥은 새벽마다 「조깅」을 하면서 약수터에  
갔다. 한 겨울 쌓인 눈속에서도 바위 속에서 출  
출 뻗어나는 약수물에 공복을 진지리치면서 유  
연성 운동을 위주로 수련을 했다.

간혹 동네 꼬마들이 흥내를 내곤하면서 친해  
져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꼬마대장이 되어버렸다  
그 약수터에는 70가까운 노인네들도 많이 다녔  
는 데 한 할아버지는 20분 가까이나 물구나무 서  
기형의 요가를 날마다 했다. 현옥도 흥내를 내  
왔으나 5분 정도 밖에는 견디지 못했다. 현옥은  
내심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했다  
나도 일흔 즈 되어서 과연 저분처럼 할 수 있  
을 것인가 「수련의 시작과 포기는 있을 지라도  
끝은 없는 것이다」라는 스승인 노사범의 훈시가  
가슴에 울렸다.

바람이 그 방향을 바꾸는 계절이 왔다. 이른  
봄의 산 허리에는 마치 동양화의 공백처럼 안개  
가 휘어 감겨 있었다. 「러시아워」의 잠수교는  
흡사 안개 터널 같았다. 강은 흐르지 않고 떠  
있는 것 같았다.

안개 속을 머뭇거리며 차량의 행렬이 강복으  
로 강북으로 흐르고 있었다.

「아더」왕의 영국 건설 설화인 「엑스커리버」란  
영화에서 마법의 안개를 밟고 달리는 장면이 떠  
올랐다.

현옥은 출근길의 안개가 불길한 조짐처럼 느  
껴졌다. 며칠전 부장의 은밀한 부탁만 지시받던  
비굴한 목소리가 깃가에 멘들었다, 「현재 쓰고  
있는 IBM 컴퓨터가 회사규모에 비해 너무 용량



이 적으니까 대령으로 교체하자는 품의서를 올리게」「아니 부장님 70만불이나 들여서 설치한 지 이제 2년 밖에 안됐잖습니까?」「이사람아, 중역과도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까 올리자면 올려!」「지금 사용하는 330도, 충분히 활동하고 있지 못하잖습니까?」「『프로그램』개발을 증점적으로 연구하면 본사는 물론 공장과 대리점까지 ‘카바’가 가능합니다」「아하! 그사람 고지식하구만 아뵘든 품의서 내일 아침에 올리게나!」 현옥은 문득, 중동에 나가 있는 윤국의 말이 생각났다. 공사 한 건에 몇 백만불에서 십이지 천만불 가까이 뇌물을 준단던가…… 현옥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무근이었으면 하는 그런 일이 바로 현옥의 머리위에 폭발처럼 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능한 사원들 간에는 평이 좋지 않은 정부장은 아마 부사장에게 상납할 좋은 미끼로 월급봉투나 찍고 있는 컴퓨터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X자식 저따위 출세에 영혼까지 팔아먹는 쥐새끼같은 놈들이 있으니까……」기름이 번지르한 뽕배를 그냥 축구공 차듯이 한방…… 어휴……」속으로 웅얼거리며 뺨들을 짝 잡았다.

현옥의 아버지 리건호(李建浩)씨는 가끔씩 「네가 취직해서 회사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모리배놈들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살려주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라」고 현옥을 교부하곤 했다.

역시 컴퓨터 「하드·웨어」의 교체는 무려 3천만 원 정도의 뇌물수수과 관련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현옥은 품의서와 사표를 같이 썼다.

「당사의 규모와 향후 5년간의 업무량에측 결과 전산 「씨스템」의 기재 추가도입 및 대형으로의 교체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을 원함」 정부장은 아무말도 없ed 사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면서 딱하다는 눈길을 현옥에게 던졌다.「자네 승진기회야!」

「부장님, 회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황김에 퍼 넣는 술에는 취해지질 않았다. 곁에 앉았던 「호스메스」는 적이 걱정이 되었던가

보다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한병 가까이 다신 현옥은 언뜻 상미의 안경 속에서 웃음짓는 검은 눈이 생각났다. 전화를 하러 공중전화박스에 들어가는 순간 예리한 눈길이 몇 가닥 몸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전화박스는 화장실 옆이었고 조명이 어두운 「홀」 안쪽으로 있었다.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는 순간, 진장한 젊은 이가 팔을 짝 잡았다. 「리현옥씨죠?」 고개를 고덕이는 것과 주먹이 날라오는 것이 동시였다. 좁은 박스 안에서 움치고 뿔 재간이 없었다. 옆구리에 와 닿는 「훅」에 울컥 마신 술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어서 두번째 「스트레이트」가 얼골로 날아오자 현옥은 전화기의 「코드」로 팔목을 감아서 전화통으로 이끌었다. 다이얼판이 깨지면서 적은 움칠했다. 「좁은 공간에서는 작은 동작으로 급소를 노려라」 무의식 속에서도 현옥은 단련의 계시에 충실히 움직였다. 전화기코드로 감아 쥔 팔목을 당기며 오른 무릎으로 상대의 명치를 강타했다. 꽤나 둔중한 갑축으로 보아 상대는 80kg은 넘는 것 같았다. 쓰러지는 상대를 가볍게 밟고 홀 쪽으로 몸을 옮기는 순간 왼쪽에서 공격이 있었다. 맥주병이 머리를 내려치는 것이었다. 비로서 현옥은 미간을 좁히며 긴장에 부르르 떨었다. 몸을 숙이며 전방회전낙법으로 한바퀴 굴러 위기를 모면하면서 문 쪽으로 뛰었다. 우선 상대가 누군지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랐다. 또 술집 안에서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손자병법에 지리를 모르는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쓰여져 있었다. 「야비한 정부장!」

### Ⅲ. 동기호테의 교통사고

토요일인 이튿날 퇴근길에 여의도로 상미를 만나러 갔다. 시속 120km 가까운 질주 속에서 현옥은 말이 없었다. 신갈「인터·체인지」를 지나자 상미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간단한 설명을 들은 상미는 시대착오를 저지르는 몰지각한 회사간부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하긴, 일본에서는 「로키드」사건으로 수상이 물려간 일도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겠지.」 현옥의 자조적인 냉소에 상미는 더 열을 올렸다. 「지금, 10만원도 못받는 공장 근로자들이 많을 때 그따위 썩어빠진 작자들은 몇 천만원 썩이나 뇌물수수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얼굴이 빨그레해지면서 독설을 마구 내뿜는 상미의 작은 입술은 꼭 새장 속에서 종종거리며 지저귀는 금화조의 빨간색 부리 같다고 현옥은 느꼈다.

보은에 거의 다와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길은 확장공사로 파 해쳐져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로 우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게다가 폭설로 변한 기상은 어디가 길인지 알 수도 없었고 앞뒤에는 다니는 차도 보이지 않았다.

현옥은 이 길이 바다로 향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파도의 영원한 울부짖음 위에 삼켜지는 눈조각들이 눈 앞에서 아른거렸다.

갑자기 차가 기우뚱하면서 30도 정도 기울어졌다. 왼쪽 앞바퀴가 허공에 뜬듯한 느낌이 드는 것과 동시에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아마도 작은 언덕으로 나있는 길 앞이 절벽인 것 같았다. 상미는 재미있다는 듯이 글거렸지만 현옥은 숨이 막혔다.

「문을 열고 얼른 내려 빨리!」 상미가 오른쪽 앞 문을 열고 내리다가 그만 코트자락이 걸렸다 현옥이 손을 뻗쳐 코트깃을 거두어 주면서 힘껏 상미의 등을 떠다 밀었다.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낮은 절벽 끝에 걸려있던 현옥의 차는 상미가 내리자 왼쪽으로 굴러 버렸다.

현옥은 진공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 거렸다.

#### Ⅳ. 동키호테의 어린날

현옥은 처음 좌선을 배울 때 처럼 두눈을 꼭 감았다. 검은 눈의 망막에는 스승의 말처럼 흰 백지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황, 노랑, 검정, 하얀색의 「파노라마」가 번갈아 비추어온 것

였다. 「여기가 배두산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리진호씨는 지리부도를 펼치고 물어보는 현옥을 잠시 쓰다듬어 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현옥은 명민했다. 상상력이 풍부하기도 했다.

그런 현옥을 리진호씨는 내전스러워 했으나 결코 칭찬하지는 않았다. 냉정한 방관자의 눈으로 그저 지켜보는 것이었다.

현옥이 12살이 되자 리진호씨는 도장으로 데려가서 맡겼다.

그런 일은 어느날인가 마당에서 일가족 일곱이서 담요를 쳐 놓고 가족사진을 찍은지 얼마 안되어서였다.

또 돌돌 말은 표창장을 어머니 계여사가 소중히 껴서 아들 넷과 딸 하나인 자식들 앞에서 보여 준지 얼마쯤 지나서이기도 했다.

「이 분은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립에 지대한……운운」의 내용은 현옥을 비롯한 형제들의 눈에는 막걸리로 발효시켜 찌주는 전방파는 다른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정도로 밖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

키가 작아서 학습의 맨 앞줄에 앉기 일수였던 현옥은 도장에서도 제일 꼬마였다. 유달리 접이 많아 화장실에 갈 때도 어머니가 따라 가야만 했던 현옥에게는 도장은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도 도장에 가는 현옥을 애처롭게 생각했다. 30분 가까이 걸어야 하는 도장까지 가는 길은 온통 신기한 삼점들과 초가집·기와한옥 왜식적산가옥들이 늘어서 있었다. 어린 현옥을 가난한 친구들이 많이 따랐다. 그것은 동정심 많은 어머니의 영향 탓이기도 했지만 도장으로 가는 길녘에서, 날마다 지나쳐야 했던 가난한 '구부락' 동네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생활양식을 알게되면서 부터였다.

아픈은 유치원부터 국민학교를 마칠 때까지 하루도 결석을 하지 않았던 아니 다친 발에 봉대를 대고서라도 가라는 아버지의 호통 때문에 빠지지 못했던 현옥은 도장에 일년과 여덟달을 개근했다. 검은머플 맨 현옥은 불과 8명 밖에 없는 유단자의 한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검은머플 매기 까지는 얼어붙은 마루 위를 맨발로 굴

어 앉아 사범의 험형한 눈빛과 우렁찬 혼시를 폭포수 처럼 온 몸에 끼얹어야 했던 내한수련과 작업하는 폭염의 열기에 달구어진 자갈길을 맨 발로 달리던 내서훈련을 겪어야만 했다.

어린 현옥은 검은 띠를 수여받던 날을 잊지 못했다. 일곱명의 선배 유단자들은 그에게 열대 썩 「뺏따」를 선물했다. 비록 어린 점을 감안한 사람의 매질이었으나 어린 엉덩이에 멍이 안들 리 없었다. 집에서도 아버지는 「수고했다」는 한마디 뿐이었다. 다만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장하다」는 말을 몇번 썩이나 하시면서 다 떨어져 낡은 광목도복 대신 새하얀 「구렛따」천의 새 도복을 선물했다.

현옥은 결코 입단기념 「뺏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른날부터 도장에 가는 것 대신 수련시간동안 「구부락」의 만화가계에서 만화를 즐겼다.

며칠후 선배를 통해 그 이야기가 아버지의 귀에 들어 갔다. 아버지는 크게 노했다. 현옥은 그렇게 화난 아버지를 한번도 본 일이 없었다. 아끼던 휘발유 「버너」를 엇과 바퀴 먹어도 너털 웃음으로 넘긴 정도였다. 리진호씨는 현옥을 데리고 동네 주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한바퀴, 세바퀴, 네바퀴…… 현옥은 아랫 배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눌러 참으며 아버지의 성큼성큼 내딛는 달음박질을 켌 발놀림으로 따라 뛰었다. 현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앞장서 뛰는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마치도 장애 선배유단자와 겨루기를 할 때 처럼.

일곱 바퀴 쯤 동네를 돌며 뛰던 현옥은 팔랑 거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한 발자욱도 내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이번」 한 바퀴만 더 돌아봐」하는 아버지의 낮으막한 말이 들렸다. 현옥은 이를 악물고 한바퀴를 더 뛰었다. 이상한 일은 아홉바퀴를 더 뛰었다. 이상한 일은 아홉바퀴 쯤 부터는 통증이 가시면서 약간 속도를 늦추어 주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달릴 수가 있었던 점이였다.

리진호씨는 현옥에게 말했다. 「네가 오늘 달리면서 못 견딜 것 같이 느끼던 점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이다. 그 때마다 주저 앉는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지 않는다. 알겠니?」 으쓱이는 현옥의 눈에서 영문없이 눈물이 굴렀다.

이튿날부터 현옥은 도장에 나갔다. 현옥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본 때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짐을 싸고 있었다. 채무보증을 잘못 섰다는 간단한 말을 현옥은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구부락의 낡은 한옥에는 노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뒷동산에는 녹음방초가 우거져 있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현옥은 방이 여덟이나 되었던 양옥집에서 3개인 고가(古家)로 이사오게 된 것이 이른바 「망했다」는 소문대로라는 점이 싫었다. 자연스럽게 폐쇄적이 되어버린 현옥의 학교성적이 좋을리 없었다.

초가을의 어느날 어머니는 현옥더러 쇠고리작을 들고 안방으로 오라고 했다. 이사하면서 광에다 쌓아놓은 오래된 고리작은 무척 무거웠다. 삼베로 된 작은 문치를 어머니가 펴 보았다.

「이게 무엇인지 알겠느냐? 자리를 고쳐 앉으며 눈매를 바라보는 어머니가 심뜻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했다.

「너희 친할아버지의 유품이야」

그것은 녹이 오히려 품위를 높인 것 같은 '육혈포'였다. 녹은 권총은 「벨기에」제였다. 막연히 옥사하신 독립운동가이며 장로이셨던 애국지사라고만 알고 있던 현옥으로서는 할아버지의 손 때가 묻은 「육혈포」가 신비로운 혈액의 강으로 이끄는 듯이 느꼈다.

비밀의 즐거운 고통을 알게되는 사춘기의 현옥으로서는 흡사할 아버지와 영적교감이라도 했던 것과 같은 의연함이 몸에 배이기 시작했다.

벨기에제 권총의 짙막한 총신의 붉은 녹은 할아버지의 순국혈인것 같이 고귀하게 느껴졌다.

권총의 검은 구멍을 들여다 보면서 현옥은 역사의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혁명가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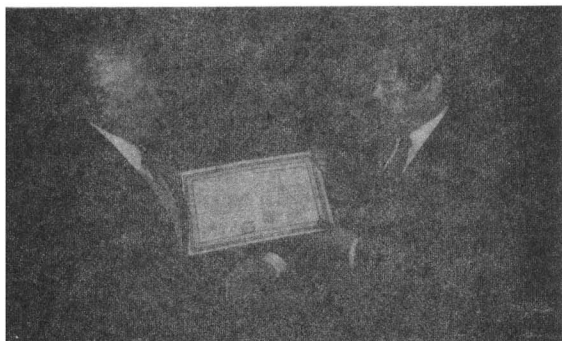
국기원에  
오신 손님

Visitors



모니크 베를리우 IOC 사무총장이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고 있다.

Monique Berlioux poses with her Kuk kiwon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in hand.



슈아트 엘타 IOC위원(프로그램담당)이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총재로부터 명예회원증을 받고 있다.

Dr. Kim awards Kuk Ki Won honorary membership certificate to Mr. Suat Erler



가나에 태권도 보급에 공이 큰 케이스 닷치 헤피장이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총재가 표창장과 기념뱃지를 전달

Dr. Unyong Kim Pins a WTF Badge on the Vest of Mr. Kaith Dadzie from Ghana



제 5 회  
아시안  
선수권  
대회

5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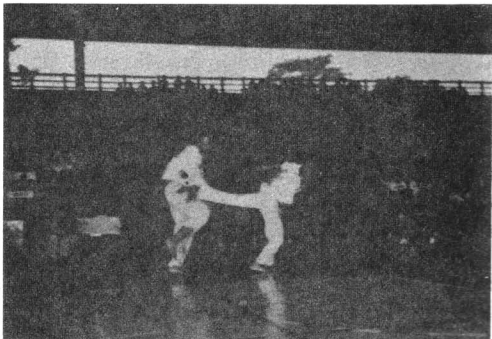
DECEMBER,  
9~11, 1982



보무도 능률한 한국팀 입장  
Entrance of Korean National Team.



개회식 전경  
Overall Scene of the Opening Cere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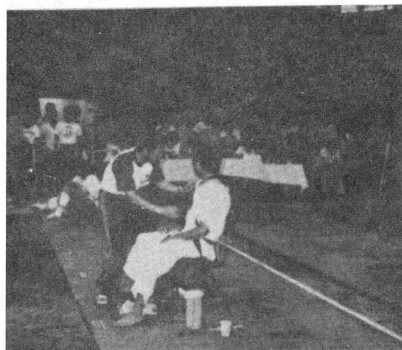
멋진 윙차기의 발기술 K.O승!  
A Scene of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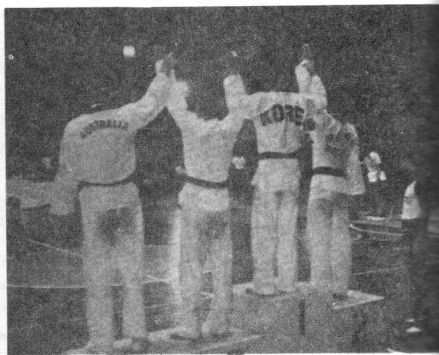
영광의 순간 우승!  
Sign of Victory by Medal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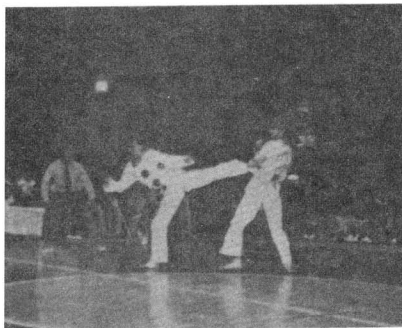
노란머리의 호주선수도 물리치고  
Defeating an Australian Contes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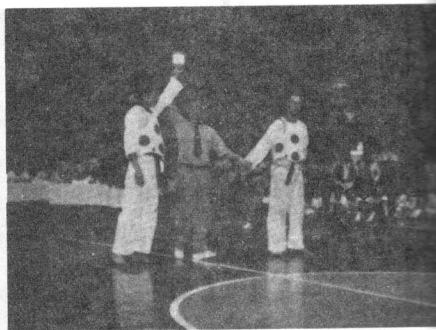
작전의 사명탑 작전지시  
Operational Instruction by Coach.



시상대의 빛모습 굿직한 글씨 KOREA!  
Korean on the 1st Place Stand.



몸 가까이오지마라! 회전축 발기술  
Using Foot Technique, of Pivoting Kick.



곱슬머리의 강인한 선수도 물리치고  
Even a stouter Opponent was easily defeated.



5연패의 헝가래 천정이 높았으니 안심(?)  
Lifting up in celebration of 5 successive wins  
of Champ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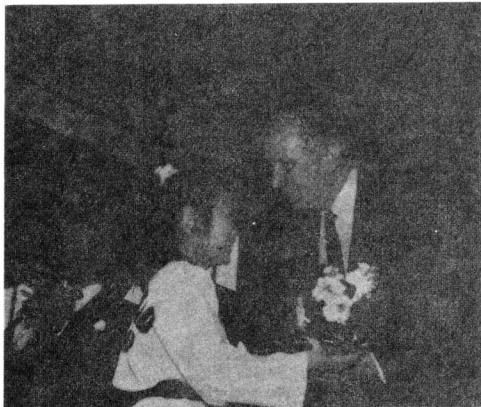
조영수단장이 우승의 트로피를!  
Trophy of 1st Place winner heled up by Mr.  
Cho Young Soo, Head of team (Kor.)



태극기를 앞세우고, 개신장군들의  
밝은 모습  
Bright face of great winner with  
Korean F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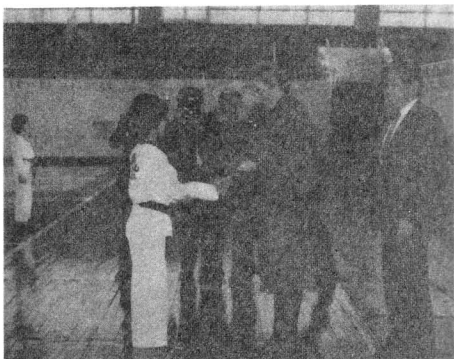
5연패의 주역들  
Faces of Champions  
wholed to 5 Successive  
wins



# 어린이 태권

## Children Taekw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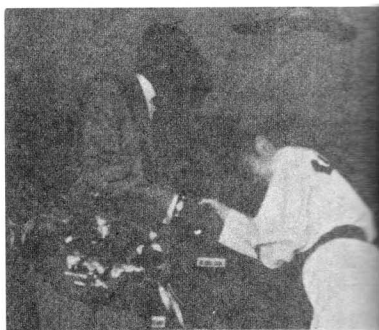
사마란치 IOC위원장께 꽃다발 인사는, 멋진 태권도 시범으로  
A Taekwondo Demonstrator Presents a Bouquet to IOC President.



모니크 베를리우 IOC사무총장이 태권도 시범 참관후 올림픽기념택지 선물을...  
Monique Berlioux Presents IOC Pins to each of Taekwondo Demonstrators.



토마스 켈러(GAISF)회장도 국기원을 방문 어린이 태권도시범을  
Thomas Keller. GAISF President



루이스 기란두 엔디에 (IOC)부위원장에게도 이 태권도시범을  
Louis. Guirandoun. Diaye. IOC. Vice. P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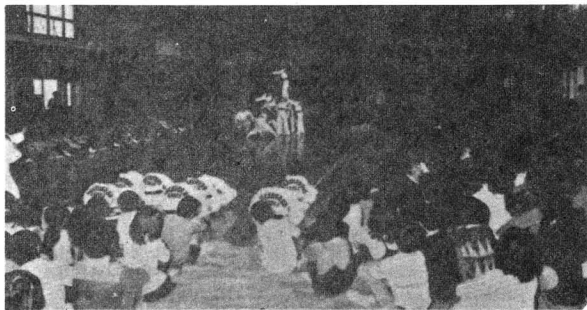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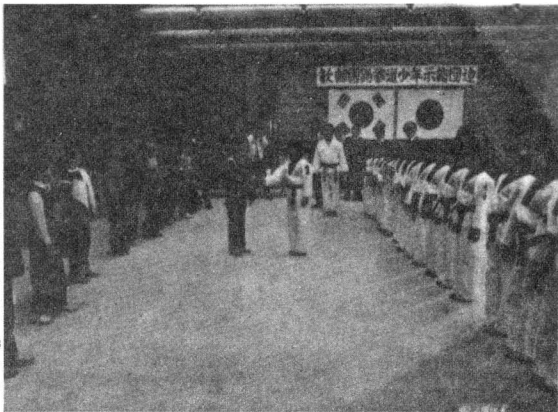


# 외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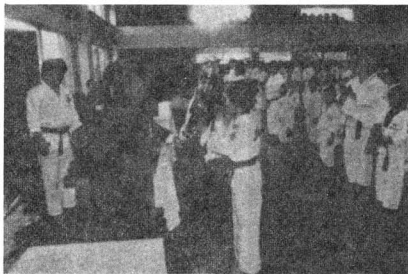
diplomatic Official

재일동포 어린이들에게 어깨를 짝 뿔수 있게 용기와 긍지를 심어준 태권도어린이 대표와 우정을 나누고 있다(일본민단본부)

Friendly Shake-hands with childre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나고야 시립국민학교에서 태권도시범으로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태권도의 정신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좋은 외교였다.  
Taekwondo Demonstration at Nagoya City Primar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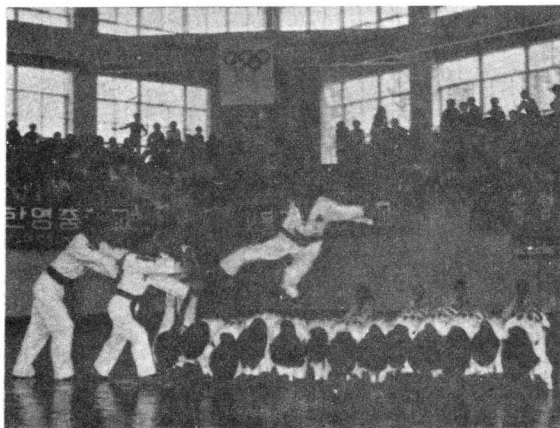
일본 최대의 가라메 수련도장인 정무원 본관에서 태권도의 위용과 우수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스즈키정무원관장이 기념트로피를 선물  
Mr. Suzuki, Head of Karate Jungmoo-Gwan, Presents a trophy of Commem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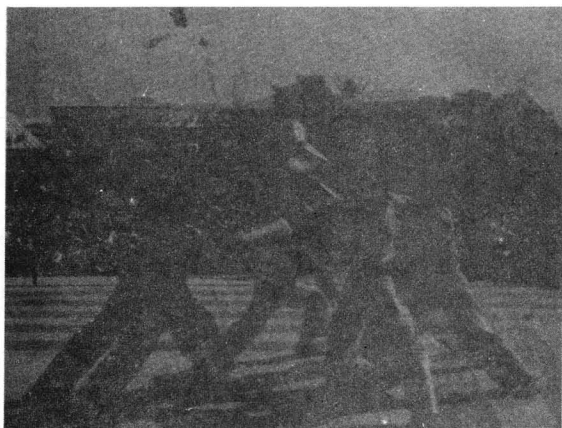
오사카민단학교(백두학원, 금강학원)의 어린이들이 시범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범단에게 악수와 박수를!  
Children of Osaka Korean Residents' School Salute a Forewell to Taekwondo Mission.



외국에서 오신 무역상들에게도, 태권도 정신이 곧 우리국민의 정신임을 몸으로 보여주는 태권도어린이시범단  
Taekwondo Demmostration at Seoul International Trade Fair.



중·고등학교 형들과 가족들에게도 우리 어린이태권도시범으로 태권도 보급을...  
Taekwondo Demonstration Shown to Their Familie and School-Mates.



박람회에 참관하신 전국의 가족들에게도 어린이 태권도시범은 인기의 절정이다.  
TKD Demonstration before the Public at Int'l Fair.